



사단법인 **인간개발연구원**

좋은사람 좋은세상

Better People Better World

2013. **01+02**

통권 제115호(비매물) 등록번호 서울 마 03200 발행일 2013년 1월 5일
발행인 장만기 편집 장용달 TEL 02-2203-3500(대) FAX 02-2203-1974
주소 135-280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www.khdi.or.kr)
디자인 하나로애드컴(www.hanaroad.com) 인쇄 (주)광진문화

CoverStory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기술원 원장

줄기세포 치료로 의료선진대국 꿈꾸는 라정찬 박사

인류의 희귀난치병 질환 극복에 앞장설 것

머리글 노병천 전략세계 대표

1·2월 프로그램

Issue & Seminar

— 한우덕 중앙일보 중국연구소 소장

— <노사발전재단 협력세미나>

가재산 조인스HR 대표 / 김영기 (주)LG CSR 부사장

Membership Day 찾아가는 CEO교실 10

TPT멘토대학

— 2012 KHDI 송년의 밤

— NGO 강연나눔 '위(we)대한 토크'

—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TPT멘토대학

Hot & Issue

— 영업마케팅 능력향상 과정 2기

회원 & 연구원 소식

아카데미뉴스

2012 교육현황

KHDI 회원가입안내

2013 KHDI 교육프로그램

정보비타민

명사초청특강 정종제 행정안전부 행정선진화기획관

발행인편지

이인식칼럼



요즘 대세 카드는

2X



6개월 뒤엔

커피가 **반값**

관리비 할인이 **2배**

골프장 할인도 **2배**

혜택에 2를 곱하다 2X 카드



SMART BANK

※자세한 사항은 외환카드 홈페이지(www.yescard.com)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외환은행 준법감시인 심의필 제2012-광고-249호(2012.9.19~2013.9.18)

KEB 외환은행

미리 아는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

손자는 다섯 가지 요소를 진단함으로써 성공하는 기업과 실패하는 기업을 미리 알 수 있다고 했다. 이를 지승유오(知勝有五)라 부르며, 제3편 모공(謀攻)에서 소개하고 있다.

첫째, 경쟁할 상대를 정확히 판단하면 성공한다(知可以與戰不可以與戰者勝). 이른바 대세판단이다. 내 수준으로 볼 때 경쟁할 능력이 없는데도 자존심이나 요행을 바라는 심정으로 소모적인 경쟁을 한다면 회사가 얹어 질 수 있다.

또한 경쟁할 대상이 누구인지를 아는 것도 중요하다. '나이키의 경쟁자는 닌텐도'라는 말은 이미 잘 알려져 있다. 과거에는 같은 업종이 경쟁 상대였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다른 업종이 복병과 같은 경쟁 상대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둘째, 집중을 할 분야에 집중을 잘하는 자가 성공한다(識衆寡之用者勝). 경영이 어려운 것은 자원이 제한되어 있다는 데 있다. 자원만 넉넉하다면 굳이 고민할 필요가 없다. 늘 부족한 인적·물적 자원을 어떻게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가 성공적인 경영의 관건이다. 그래서 어느 분야에 집중할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에 기업의 사활이 달려있다.

피터 드러커는 집중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보통 수준의 기업들은 '수익이 되는 것'들을 선택하여 열심히 하려 한다. 그러나 위대한 기업들은 반대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분야'에 집중한다. 자신이 최고로 잘할 수 있는 분야가 아니면 선택하지 않는다."

셋째, 미래를 미리 헤아려서 지금 준비하면 성공한다(以虞待不虞者勝). 지금 잘 된다고 해서 안주하면 반드시 위기를 맞게 된다. 거안사위(居安思危)이다. 편안히 거할 때 위기를 생각해야 한다. 3년 후, 5년 후, 10년 후를 헤아려서 지금부터 철저히 준비를 할 때 실패하지 않는다.

넷째, 현장의 전략을 잘 사용하면 성공한다(將能而君不御者勝). 경영자가 현장책임자를 믿고, 그들과 함께 호흡하며, 그들의 의견을 듣고 현장 전략을 짜는 것이다. 캐나다 맥길대학교의 민츠버그 교수는 오늘날 경영자들이 실패하는 주된 이유로 현장학습의 결여를 들고 있다. 그는 우발적(emergent) 전략을 주창했는데, 이는 한마디로 현장에 있는 실무자가 주체가 되는 전략이다. 현장에서 보고 느끼는 것을 중시하며, 이를 경영자와 전 직원들이 학습하고, 체계적인 전략경영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요약

할 수 있다. 100년 장수 기업들은 모두 현장에 있는 실무자가 제안한 실무 아이디어로 성장했다고 분석하고 있다.

다섯째, 모든 임직원이 하고자 하는 바가 같다면 성공한다(上下同欲者勝). 이것은 손자가 성공적인 조직을 만들기 위해 가장 강조하고 있는 도(道)의 개념이다. 모두 하나가 되는 것이다. 같은 꿈을 꾸는 것이다. 죽음조차도 함께 할 수 있는 조직이 되는 것이다.

이런 조직은 가장 바람직한 조직으로서 손자는 제11편 구지(九地)에서 술연(率然)이라 부르고 있다. 술연은 전설적인 뱀으로 누가 꼬리를 밟으면 머리로 달려들고, 머리를 밟으면 꼬리로 달려들고, 허리를 밟으면 머리와 꼬리로 달려들어 제압한다고 한다. 누가 시키지 않아도 저절로 자기 역할을 잘 감당해서 위기를 벗어나는 조직을 말하고 있다.

마침 계사년은 뱀의 해이다. 뱀이 떠오르지 않는가? 그렇다. 내가 경영하는 기업을 술연으로 만드는 것이다. 술연의 기업이 된다면 그 어떤 위기가 오더라도 위축될 이유가 없다. 손자는 그의 방법을 통해 수차례 말하기를 위기라는 것이 무조건 나쁜 것만은 아니라고 했다. 일이 잘 안 풀릴 때는 오히려 위기를 의도적으로 조장해야 할 때도 있다는 것이며, 그것을 통해 비약적으로 뛰어오르는 기회를 만들 수 있다는 것이다. 아마존은 그렇게 성공한 대표적인 기업이다. 계사년에는 모두가 보란 듯이 멋지게 성공하는 해가 되기를 바란다. **노병천**



● 노병천 대표

1955년생으로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미국 미드웨스트대 리더십 박사, 제네시스대 철학 박사 학위를 받았다. 나사렛대 부총장·교수, 육군대학 전략학처장·교수, 미국 지휘참모대학 교환교수 등을 역임했다. 대한민국에 손자병법 붐을 처음으로 일으킨 정통 손자병법 학자로 사회 각계 리더들에게 손자병법을 전파하는 일을 하고 있다. 미국을 비롯한 세계 80개국 고급장교들에게 손자병법을 가르쳤으며, 지금도 미국 전역을 돌며 CEO, 사회 리더들에게 손자병법을 가르치고 있다. <만만한 손자병법>, <서툼과 마흔 사이 인생병법> 등 32권의 저서가 있다.

2013 신년하례회

아시아의 길

제1769회 1월 10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내려갈 때 보았네 올라갈 때 못 본 그 꽃' 고은 시인의 '그 꽃'은 온 국민이 가장 사랑하는 시 중 하나다. 1958년 등단한 이래 53년간 시, 소설, 평론 등의 저서를 150권 이상 세상에 내놓았고, 국내외 문학상 15개, 훈장 2개를 수상했으며, 세계 25개 국어로 번역서가 출간되었다. 거의 반세기에 걸친 창작의 작업은 우리 문학사에서 우뚝한 산으로 표현되고 있다.

그러나 고은 시인의 청춘은 절망에 가까웠다. 수차례의 자살 시도가 있었고, 10년간 승려의 삶을 살기도 했다. 그렇지만 그는 소년 시절 품었던 꿈을 놓지 않았고, 시대의 언어가 되고자 소망한 대로 어느덧 세계의 시인이 되었다. 그의 생애 자체가 끝없는 탐구와 모색, 번민과 모험으로 점철된 한 편의 흥미롭고 처절한 장편소설인 것이다. 시인 고은은 팔순의 나이에도 뜨거운 심장을 가진 청춘이라고 고백하며, '그래도 품어야 할 우리의 희망'에 대해 이야기한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시대의 멘토 고은 시인을 초빙하여 민족정신을 꿰뚫는 역사 의식과 인생에 대한 통찰, 가나긴 인생역정과 문학의 삶 속에서 함께 공감하는 우리 시대 희망의 메시지를 나누는 시간을 갖고자 한다. 특히 이번 연구회는 2013년을 여는 신년하례회와 함께 열리는 세미나로 문학적 감성과 사람의 향기가 충만한 만남의 시간이 될 것이다.

융합과학청색기술포럼

융합시대와 청색기술

제1770회 1월 1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21세기 초반부터 생물의 구조와 기능을 연구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뛰어난 물질을 창조하려는 과학기술이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이 신생 분야는 생물체로부터 영감을 얻어 문제를 해결하려는 '생물영감'과 생물을 본뜨는 기술인 '생물모방'이다. 생물영감과 생물모방은 자연 전체가 연구 대상이 되므로 그 범위는 가능하기 어려울 정도로 깊고 넓다. 첨단 과학기술의 핵심 분야가 거의 망라되어 있는 융합기술이다.

생물영감과 생물모방이 각광을 받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이다. 먼저 지구의 환경 위기를 해결하는 참신한 접근방법으로 여겨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녹색기술과 달리 환경오염 물질의 발생을 사전에 원천적으로 억제하려는 기술이기 때문이다. 또한 2020년까지 100가지 기술로 1억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이른바 녹색경제의 대안으로 '청색경제' 시대가 개막될 가능성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생물영감과 생물모방은 '청색기술'이라 불린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라는 저서를 통해 청색기술이라는 용어를 처음 사용한 지식융합연구소의 이인식 소장을 초빙하여 국내 최초로 융합시대의 최첨단 분야인 청색기술의 모든 것을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고은 시인



1958년 <현대시> '폐결핵'으로 등단 | 민족문학작가회의 의장 | 한국민족예술인총연합 의장 | 미국 하버드대 연청 특별연구교수 | 미국 버클리대 초빙교수 | 서울대 초빙교수 | 단국대 석좌교수 | 세계시 아카데미 명예위원회 회원 | '만인보' 스웨덴 '현대의 고전'으로 선정 중 · 고교 교재 채택

<상훈> 제1회 한국문학상, 만해문학상, 대산문학상, 만해대상, 은관문화훈장, 단재상, 영랑문학상, 한국예술원상 외

<저서> 서사시 '백두산' 7권, 전작시 '만인보' 30권, 고은시전집, 고은전집 등 시집, 소설, 평론집 150여 권

이인식 지식융합연구소 소장



서울대 전자공학과 졸업 | 과학문화연구소 소장 |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 KAIST 겸직교수 | 대한민국 과학 칼럼니스트 1호 |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외 고정 칼럼 | 월간조선, 과학동아, 한겨레21 외 칼럼 연재

<상훈> 제1회 한국공학한림원 해동상, 제47회 한국출판문화상, 2008 서울대 지랑스런 전자동문상

<저서> 이인식의 멋진 과학,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지식의 대융합하

경제경영포럼

세상의 빛을 밝히는 감성문화경영

제1771회 1월 2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앨빈 토플러는 '21세기에는 지식 못지않게 감성도 중시될 것'이라고 했다. 실제 우리는 주변에서 이성과 지식보다 감성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경우를 자주 목격한다. 시장의 고객은 자신의 취향과 감성에 맞는 제품과 서비스를 구매하고, 기업의 조직원들은 감성이 풍부한 직장에 더 매력을 느낀다.

감성을 자극하는 섬세한 발상이나 기존 사고의 틀을 타파하는 창의적 접근법은 이제 예술가뿐만 아니라 기업의 성공에도 큰 역할을 한다. 최근에는 최고경영자들이 앞장서 격식을 벗고 감성을 자극하고 감성에 호소하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다. 이른바 '감성경영'이다. 이제는 기업도 소비자들의 오감을 만족시키는 문화상품을 만들지 않으면 살아남기 어려운 시대이다. 이를 위해서는 기업 구성원들이 앞선 문화를 체험하고 이를 창의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소비자들의 문화 수준을 이해하고 그보다 더 나은 문화를 상품에 담아내야 하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감성조명'이라는 슬로건으로 단순히 빛을 상품화하는 것에서 벗어나 자연 그대로의 빛을 구현하며 고객에게 감성체험을 제공하고 있는 필룩스의 노시형 회장을 초빙하여 인간을 이해하고 인간과 가까워지려는 감성문화경영의 사례를 들어본다.

국제포럼

G1 국가를 위한 시진핑 시대 중국의 위상과 미래전망

제1772회 1월 3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지난해 이웃 나라 중국에는 큰 변화가 있었다. 작년 11월, 제18차 중국 공산당 전국대표대회와 함께 시진핑 총 서기를 필두로 한 신 정부가 출범한 것이다.

다가올 시진핑 시대는 한국 기업에 위기이자 기회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경제학자들은 민족주의 성향이 강해지고 있는 중국이 향후 자국 기업 육성정책과 더불어 성장 중심보다는 내실 다지기에 주력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놓고 있다. 과거 외국 기업 진출을 환영하던 중국은 이제 옛말이 되고 있지만, 시진핑 시대에는 그 속도가 한층 가속화될 것이란 얘기도 있다. 이에 국내 기업과 중국 기업 간의 경쟁도 한층 치열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반면 위기만 있는 것은 아니다. 세계 최대 시장인 중국을 새롭게 공략할 기회도 넓어진다. 신소재 기술, 첨단 IT산업, 신에너지산업 등 시진핑 지도부가 전략적으로 강화할 사업군은 향후 중국 경제의 핵심키워드로 부상할 전망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30년간 외교 현장을 누비며, 특히 중국통으로 일해 온 박종선 前 청도 총영사를 초빙하여 시진핑 지도부를 중심으로 G1 국가를 향해 가는 중국의 위상과 미래를 전망해보고, 우리 기업의 대 중국 비즈니스 방향을 가능해보는 시간을 갖는다.

노시형 필룩스 회장



연세대 전기공학과 졸업 | 1984년 보암산업(現 필룩스) 설립 | 경기북부상공회의소 회장 | 전기제품안전협회 부회장 | 중소기업중앙회 중견기업특별위원회 위원 | 조명박물관 관장 | 한국전통기구 LED산업 협동조합 이사장 | 한국조명연구원 이사장

〈상훈〉 지랑스런 신 한국인상, 2천만불 수출탑 대통령상, 발명의 날 동탑산업훈장, 중소기업문화대상, 서울시 좋은빛상 외

박종선 前 중국 청도 총영사



단국대 경영학 박사 | 1975년 외교부 입부 | 캐나다 토론토 총영사관 부영사 | 카타르대사관 2등 서기관 겸 영사 | 중국 상해 총영사관 수석영사, 청도 총영사 | 외교통상부 여권관리관, 구주연구관, 대사실 | 전주대 경영대학원 교수 | 중국 산둥대학, 제남대학, 청도대학, 과기대학 외 다수 대학 초빙교수

〈상훈〉 황조근정훈장, 신지식인 공무원포상, 호행공무원포상, 업무유공표창, 경제통상 우수공관장 포상 외

창립38주년 기념세미나

남북 교류협력의 교훈과 전망

제1773회 2월 7일(목) 롯데호텔(소공동) 3층 사파이어볼룸

장충식 단국대학교 명예총장은 50년 가까운 세월을 대학과 함께 해온 우리 사회의 원로 중 한 명이다. 특히 장 명예총장은 남북 체육회담 대표와 대한적십자사 총재 등으로 활동하며 남북 교류의 새로운 장을 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88서울올림픽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회담과 90베이징아시안게임 남북 단일팀 구성을 위한 체육회담의 남측 대표로서 남북 간 관계 개선을 위해 노력한 끝에 1991년 해방 후 최초로 탁구와 축구에서 남북 단일팀을 구성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한적십자사 총재를 역임하던 2000년에는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켜 민족화해의 물꼬를 트기도 했다.

장 명예총장은 최근 고착화되어 있는 남북문제에 있어 '먼저 북한의 실체를 인정하고 대화를 통해 평화적인 방법으로 풀어가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한다. 대결의식을 버리고 같은 민족으로서 조금 양보하더라도 장기적인 관점에서 도와주는 정책을 펼쳐야 한다는 것이 그의 지론이다.

이번 연구회는 본원 창립38주년을 맞아 박근혜 정부 출범을 앞두고 대북정책의 새로운 변화가 전망되는 가운데, 그동안 남북 교류협력에 많은 기여를 해온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을 초빙하여 지금까지 남북 교류협력 활동에서 얻은 교훈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향후 취해야 할 대북정책의 방향을 가능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융합과학청색기술포럼

숲에서 만나는 그린솔루션

제1774회 2월 14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프랑스의 낭만주의 작가 샤토브리앙은 "문명 앞에는 숲이 있고, 문명 뒤에는 사막이 있다"는 말을 남겼다. 사실 고대문명에서 숲의 과도한 벌채는 문명파괴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우리나라 역시 일제침탈과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산림이 처참하게 파괴된 경험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국가 지도자의 강력한 리더십과 모든 국민들의 적극적인 참여 덕분에 2차 세계대전 이후 녹화에 성공한 유일한 국가라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현재는 우리나라 산림의 임목축적(나무의 양)이 OECD 국가 평균을 상회할 정도로 성장했다.

최근에는 기후변화, 생물 다양성 감소, 사막화 등 지구환경을 위협하는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유력한 수단으로써 '산림'에 대한 관심과 역할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풍성해진 산림자원을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활용하는 한편, 휴양·치유 등 산림복지를 위한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해외 산림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면서 국제 협력도 활발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생명 자본주의, 자연 자본주의 시대를 맞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써 산림자원이 각광받고 있는 가운데 이돈구 산림청장을 초빙하여 융합과학과 청색기술로서의 숲과 문명, 그리고 우리나라 산림의 현재 모습과 그 가치에 대해 알아보고, 현재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다양한 산림정책을 들어보는 시간을 갖는다.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



단국대 정치학과 졸업 | 고려대 사학 석사 | 美 브리검영대 박사 수료 | 단국대 교수, 학장, 총장, 이사장, 명예총장 | 남북 체육회담 수석대표 | 제1차 남북 이산가족상봉 단장 | 대한적십자사 총재 | 백범 김구선생 기념사업협회 회장 | 범은장학재단 이사장

〈상훈〉 국민훈장 모란장, 대한민국 체육상, 대한적십자사 유공장급장, 체육훈장 청룡장, IOC올림픽 훈장 외
〈저서〉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

이돈구 산림청 청장



서울대 임학과 졸업 | 서울대 농학 석사 | 美 아이오와주립대 석박사 | 생명의숲국민운동 공동대표 | (사)한국임학회 회장 | 스웨덴 왕립 한림원 정회원 | 세계산림연구기관연합회 부회장, 회장 | 서울대 농업생명과학대학 교수, 학장 | 한국과학기술한림원 정회원

〈상훈〉 제1회 가산상, 제14회 상록연구대상
〈저서〉 조림학원론(역), 조림학본론(공), 조림학(공) 외

경제경영포럼

마켓3.0과 탱고경영

제1775회 2월 21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스마트 시대에는 글로벌 기업부터 중소기업에 이르기까지 경영데이터의 분석이 날이 갈수록 중요해지고 있다. 이제는 모바일로 경영솔루션을 풀어내는 등 기술은 더욱 높은 수준을 요구한다.

2011년 전 세계 매출이 21조 원에 이르는 SAP코리아는 독일 발도루프에 본사를 둔 전 세계 5만 5천 명이 일하는 세계 1위의 비즈니스 소프트웨어 솔루션 기업이다. 국내에서는 1995년 설립되어 국내 주요기업들이 가장 많이 도입한 비즈니스 애플리케이션 솔루션 브랜드이기도 하다.

SAP코리아는 마켓3.0시대 감성접근, 리얼타임, 플랫폼을 키워드로 탱고경영을 실천하고 있는 것으로도 유명하다. 기업의 핏줄과도 같은 ERP나 고객관계관리(CRM), SCM(공급망관리) 시장에서 두각을 나타내고 있고, 분석소프트웨어가 탑재된 ERP의 핵심기술을 한국에서 개발하기도 했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직원 모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수평적 플랫폼과 공정한 인사가 기본이 되는 신뢰 기반의 플랫폼이 먼저 이루어져야 시장이나 소비자 및 소통될 플랫폼이 완성된다”고 이야기하는 형원준 대표를 초빙하여 마켓3.0시대를 맞아 기업 관리자의 소통을 위한 플랫폼, 그리고 인재전략에 대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는다.

정치사회포럼

대통령 경제학으로 보는
박근혜 정부의 경제정책과 전망

제1776회 2월 28일(목) 롯데호텔(소공동) 2층 에메랄드룸

지난해 10월,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학과 리더십을 연구한 <대통령의 경제학>이라는 책이 출간되었다. 이 책을 집필한 중앙일보 출신의 이장규 삼성 KPMG 부회장은 역대 정부들이 당시의 국내외 정세에서 어떤 경제정책을 썼고, 어떤 결과를 가져왔는지 폭넓게 연구했다.

이승만 대통령의 국민을 먹여 살리기 위한 정책, 박정희 대통령의 경제개발 프로젝트, 전두환 대통령의 무모할 정도의 안정화 정책, 노태우 대통령의 북방외교정책, 김영삼 대통령의 금융실명제와 IMF, 김대중 대통령의 탈 IMF정책, 노무현 대통령의 경제형평의 가치, 이명박 대통령의 세계적 경제파동 대처와 4대강 등 역대 대통령들의 꿈과 희망, 숭한 고비와 좌절 등이 기록되어 있다. 특히 주목할 것은 각 대통령마다 그들의 생각이 정책에 투영되어 소신·집념·과단·신중·모호·유유부단 등의 성향이 번갈아 나타났다.

경제정책이 이처럼 반드시 합리적 판단과 절차를 통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며, 그 과정에서 치열한 파워게임과 이해싸움이 벌어진다는 점을 새로 들어서는 박근혜 정부는 유념해야 할 것이다.

이번 연구회에서는 이장규 부회장을 초빙하여 역대 대통령들의 경제관과 리더십을 바탕으로 국민이 선택한 박근혜 정부의 향후 5년의 경제정책과 희망의 대한민국 건설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는다.

형원준 SAP코리아 대표



고려대 산업공학과 졸업 | 美 카네기멜론대 MBA | 삼성전자 경영혁신본부 컨설턴트 및 매니저 | 삼성벤처투자 | i2테크놀로지코리아 사장, 아태지역 총괄사장

<저서> 탱고경영

이장규 삼성KPMG 부회장 / 서강대 초빙교수



서강대 경제학과 졸업 | 美 미주리대 신문대학원 수료 | 중앙일보 회장 비서실장 겸 전략기획실장 | 중앙일보 편집국장, 경제전문 대기자, 상무 | 중앙일보 시사미디어 대표이사 |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자문위원 | 아시아연구기금 이사 | 대통령 민경제자문회의 위원 | 한국경제 60년사 자문위원 | 하이트진로그룹 부회장, 고문

<저서> 경제는 당신이 대통령이야, 한국경제 설 땅이 없다, 실록 6공 경제비사, 카스피해 에너지 전쟁, 경제가 민주화를 만났을 때, 대통령의 경제학 외

제1764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시진핑 시대 중국 경제의 위험한 진실 우리가 아는 중국은 없다



중국 소비자가 우리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

오늘 등장하게 될 5세대 지도부가 중국을 과연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어떠한 성격의 리더십을 발휘할 것인가에 대해 여러 의견이 분분하지만 나는 핵심 키워드로 세 개의 혁(革)을 뽑았다. 어제 아침 신문에 난 기사이지만 새로운 5세대 지도부의 성격을 비혁(非革), 문혁(文革), 개혁(改革)으로 꼽고 싶다.

첫째, 비혁(非革)은 비혁명세대라는 것이다. 시진핑이 태어난 때가 1953년이다. 이는 중국인민공화국이 건국된 이후이다. 탈이데올로기 성향이 강한 이들은 공산당을 혁명보다는 발전을 지향하는 집정당(執政黨)으로 변화시키려고 할 것이다.

둘째, 문혁(文革)이다. 시진핑은 문화혁명 시절에 큰 피해를 받았던 사람이다. 그래서 어떠한 노력과 대가를 치르더라도 사회 안정은 꼭 이루어야 될 것이라는 의지가 5세대 지도부에게서 형성될 것이라고 본다.

셋째, 개혁(改革)이다. 5세대 지도자들은 대부분 개혁개방의 가장 큰 수혜자였다. 이는 앞으로 중국이 경제적으로 성장을 강조하는 정책을 펼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우리는 왜 중국을 얘기하고, 중국을 연구해야 할까? 요즘 주식시장에서 뜨는 주식 종목 중 하나가 빙그레다. 1년 만에 두 배 정도 올랐다. 특히 4월부터 주가가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데, 왜 갑자기 주가가 오르게 됐을까? '바나나우유' 때문이다.

매년 중국에서 약 200만 명의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찾는데, 이 사람들이 바나나우유 맛을 알게 된 것이다. 바나나우유가 중국에서 본격적으로 식품마켓에서 팔리기 시작한 때가 4~5월이었다. 매월 5천 박스 정도가 팔렸다고 하는데, 지금은 한 달에 5만 박스 정도가 나가고 있다고 한다. 중국 소비자들이 바나나우유를 찾는 것이 주가로 반영된 것이다.

오리온이 중국에 진출한 때가 1996년이다. 오리온 초코파이를 시작으로 중국 내 매출액이 1조 원에 이른다. 같은 시기에 롯데제과도 중국에 진출했지만 오리온에 비해 매출액은 10분의 1에 불과하다. 오리온이 중국에서 성공한 것이 주가로 반영되고, 롯데제과는 코스피 정도의 주가 등락만을 보였다.

중국을 전문적으로 담당하는 기자들은 오늘(11월 15일)이 최고로 바쁜 날이다. 오늘로 제5세대 지도부가 중국 인민들과 전 세계 국민들에게 공개된다. 중국을 미국과 함께 세계 G2 국가라고 하는데,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만한 지도부 인선이 오늘 공개되는 것이다. 세계 모든 언론들과 기자들은 11시 CNN을 켜놓고, 천안문 앞의 1층 로비에서 진행될 것으로 예견되는 기자회견을 준비할 것이다.

이는 중국 소비자가 우리 기업의 가치를 결정하는 시대가 왔다는 것을 말한다. 중국 소비자가 우리 기업, 내 가정, 내 개인의 삶에 빠르게 파고들고 있다.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중국을 연구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이다.

중국 경제, 삼통(三統)의 패러다임 전환기

그렇다면 지금 중국에서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알아야 한다. 중국을 오늘의 G2, 세계 제2대 경제 대국으로 키운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었지만 나는 크게 두 가지를 꼽고 싶다. 첫째는 인구, 둘째는 공산당이다. 중국의 13억 인구는 중국이 성장하는데 엄청난 노동력을 제공했다. 2000년대 중반 중국이 세계 공장이라는 별명을 얻게 된 힘이 바로 이 인구에서 나왔다. 그러나 얼마 전부터 '인구'라는 요소가 점차적으로 '노동력'에서 '구매력'으로 전환되고 있다. 최근 중국 언론이 '전반'이라는 단어를 자주 쓰고 있는데, 성장 구조를 기존의 '투자' 중심에서 '소비' 중심으로 바꾸겠다는 전략과 관련이 있다.

한편 중국 경제의 눈부신 성장은 공산당의 강력한 리더십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실제로 중국 공산당은 국가 비전을 제시하고, 거대한 대륙의 종합성을 유지하고, 국정과 민심을 장악하는 영역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해 왔다.

중산층과 공산당은 과연 조화로운 것인가, 갈등할 것인가는 중국 경제와 정치체제에 따라 크게 좌우될 것이다. 지금 중국에서는 연간 약 18만 건의 각종 시위가 벌어지는 등 사회 불안이 커지고 있다. 중산층이라는 존재는 구매력이라는 경제요소도 있지만 나의 것을 지키기 위해 국가나 외부로부터의 방어를 하게 되어 사회의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하지만 이것이 민란이나 국가 붕괴로까지 이어지는 않을 것이다.

공산당은 지식인, 자본가와 연합한 권력 형태를 유지해 왔다. 때문에 공산당을 대체할 권력과 대안이 존재할 수 없으며, 이는 사회불안이 국가적인 사태로 발전할 가능성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할 수 있는 이유가 된다.

하지만 문제는 경제다. 중국 경제가 지금처럼 6~8% 정도 성장을 한다면, 중국 공산당 체제는 중국의 불만을 해소해가면서 약간의 개혁과 정치적인 민주화를 통해서 바뀔 것으로 생각한다. 말하자면 성장 패턴이 변화하고, 중국 지도부도 바뀌고, 인구의 속성도 바뀌어 중국 경제, 중국 산업이 미시적으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날 것으로 보이는데, 나는 이것을 삼통(三統) 패러다임이라 규정했다.

첫째는 생산의 국내 통합이다. 이제까지 중국의 성장은 한국이나 대만, 일본에서 부품을 사들여와 중국에서 조립해서 미국이나 EU 등으로 수출하는 형태였다. 그러나 현재는 부품을 자체 조달하는 일괄적인 생산체제를 갖추나가고 있다. 부품을 해외에서 들여와 여러 나라



로 생산해 나가는 과정이 이제는 중국으로 모아지고 있다는 것이다. 매년 10% 이상 증가하던 한국의 대중 수출이 올해 들어 마이너스를 기록한 것도 이와 무관치 않다.

둘째는 생산과 시장의 통합이다. 이제까지 중국 기업은 중국에서 생산한 제품을 미국이나 유럽에 수출하는 모습을 보였으나 현재는 내수 시장 육성 정책을 적극 도입해 자국 내에서 생산하고 자국 내에서 판매하는 전략을 추진하고 있다.

셋째는 생산과 금융의 통합이다. 이제까지 중국은 금융을 제조업을 지원하는 산업 정도에만 인식해왔다. 하지만 인민폐 국제화를 추진하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금융시장을 개방하고 외국계 금융기관과 외화가 많이 유입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난 3월에 원저우가 금융종합개척시범구로 지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국유은행이 독점하고 있던 자본시장, 금융시장의 독점체제가 깨지기 시작했다. 이제 우리는 자본시장의 교류 측면에서 중국과 어떻게 협력해야 될 것인가를 고민해야 될 때가 된 것이다.

우문현답 -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

얼마 전 한 국내 기업이 베이징에서 유비쿼터스 개념의 부동산 개발 사업을 추진했다. 그런데 인·허가권을 쥐고 있는 베이징시 건설담당 부시장이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그 이유가 나중에 밝혀졌는데, 이 기업과 같은 그룹의 회사가 CDMA 사업을 하다가 1998년 외환위기가 터지자 철수한 적이 있었다. 파트너의 야만도주(?)로 당시 베이징시 담당 과장이 곤혹스런 처지에 놓였다.

새옹지마라고 했던가. 재기한 그 직원이 승진을 거듭한 끝에 건설담당 부시장이 된 것이다. 중국인이 중시하는 '관시(관계)'는 하루아침에 만



들어지지 않는다. 술과 돈으로 관시를 구하던 시대는 지났다. 중국인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기본이다. 내가 상대에게 가치를 제공할 수 없다면 관시는 절대 형성되지 않는다. 우리가 알던 중국은 더 이상 없다. ‘우문현답’이라는 말이 있다. 나는 이 말을 ‘우리의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재해석하고 싶다. 사실 이 원리를 무시하면 중국 시장에서 패배의 쓴잔을 마실 수밖에 없다. 현지화 실패, 잘못된 장소 선정, 현장을 무시한 CEO의 허영심, 시장의 생리를 제대로 읽지 못한 무감각 등으로 실패한 롯데백화점, SK스피드메이트가 대표적인 사례에 속한다. 2008년 쓰촨성(四川省)에서 수십만 명이 사망하는 대지진이 일어났을 때의 일이다. 중국에 진출해 있던 해외 굴착기 업체들이 경쟁적으로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중국 정부에 50~60대의 굴착기를 무료 지원한다는 것이 주요 내용이었다.

그런데 두산인프라코어는 전혀 다른 방법을 취했다. 쓰촨에서 두산 굴착기를 구매한 업자들에게 ‘당신의 굴착기를 동원해 복구 활동을 하면 하루 일당을 2배로 지급하겠다’는 공문을 일제히 발송한 것이다. 그러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났다. 당시 복구 현장을 보도한 CCTV 화면에는 온통 두산 상표가 찍힌 굴착기만 등장했다. 감동한 쓰촨성 성장이 감사편지와 상패를 전해왔을 정도였다. 이것은 두산이 1994년 중국에 진출할 때부터 싹틔줄 같은 유통망을 구축해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이 외에도 성공사례는 많다. SK하이닉스는 공장 입구에 ‘함께 일하고, 함께 밥 먹고, 함께 술 마신다’는 현지화 구호를 붙여 놓았다. 이 회사의 중국 현지화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모습이다.

다국적 기업의 글로벌 전략은 현지화다. 하지만 중국법인의 법인장을 중국인으로 임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중국법인을 이끌어 나갈 방법은 우리나라 사람이 현지 법인장을 맡는 수밖에 없다. 다만, 중국 사람에게 맡겼을 때보다 더 뛰어난 성적을 낼 수 있을 만큼 현지화된 사람을 숙련시켜서 내보내야 한다.

실제로 중국에서 성공한 업체인 오리온이나 두산인프라코어, 삼성을 보면 중국 현지에서 ‘맨땅에서 헤딩’하는 식으로 중국시장을 열어온 사람들이나 중국에서 10년, 15년 있었던 사람들이 수도룩하다. 이런 사람들이 중국 비즈니스와 중국법인을 이끌고 있는 것이다.

CGV는 멀티플렉스 영화관이다. 중국은 해적판의 천국이다. 하지만 3D영화인 ‘아바타’ 열풍을 통해서 영화는 영화관에서 봐야 한다는 인식이 막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현재 중국 영화의 박스오피스 규모가 매년 60~70%씩 성장하고 있다. 바로 이때 CGV가 중국에 진출한 것이다. 현장 직원들의 정확한 소비자 트렌드 분석과 상부의 철저한 검토가 중국 시장 성공 요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중국이란 시장은 규율이나 물이 없는 시장이다. 다른 곳도 물론 그렇겠지만 특히 중국은 곳곳에 지뢰와 함정이 많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현장을 파악해야 한다. 현장에서 소비자의 변화를 읽을 만한 사람들, 그러한 인재들을 투입해서 철저하게 현장을 조사하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소비자와의 소통이다.

신뢰를 바탕으로 한국만의 고유문화 개발해야

우리가 중국 비즈니스에서 가지고 있는 경쟁력의 근원은 '신뢰'이다. 중국인은 자기 나라 제품에 대해서 신뢰를 하려고 하지 않는다. 지난 국경일 때 중국인 친구들이 한국에 놀러 와서 함께 쇼핑을 했는데, 몇 백만 원 하는 롤렉스시계를 대여섯 개씩 사는 것이었다. 상하이에도 롤렉스 지점이 있는데 왜 그렇게 많이 사는지 물었더니 상하이에도 롤렉스가 있다는 것은 알지만 믿을 수가 없다고 했다.

반면 우리나라에 오면 정품이 맞는 것 같고, 믿을 만하다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대부분의 관계, 외교와 정치뿐만 아니라 경제에서도 우리나라가 가질 수 있는 경쟁력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 따라서 우리가 대 중국 비즈니스를 할 때 어떻게 우리 제품에 신뢰를 덧붙이느냐가 중요한 요소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요즘 중국인들이 한국을 많이 찾는데, 중국 소비자 시장에도 두 가지 요소가 있다. 중국에 있는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과 우리나라에 있는 중국 소비자를 공략하는 것이다. 올해 우리나라를 방문하는 중국 관광객이 250만 명에 육박할 것으로 예측되는데, 이 사람들도 결국 소비자라는 것이다. 사실 한국 경제가 세계 경제에 비해 잘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삼성의 갤럭시, 현대자동차와 더불어 '요우커(중국 관광객)'가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관광객이 우리나라를 방문해서 돈을 얼마나 쓰는지 정확한 집계는 불가능하지만 요즘 우리나라 백화점에서는 오히려 한국 사람들이 차별받는 것을 종종 볼 수 있다. 한국 사람들은 사지도 않고 구경만 하다가 샘플이나 가져가려고 하는데, 중국 사람들은 와서 물건을 쓸어간다. 이 중국인 집단이 지금 우리나라 유통산업을 지탱해주고 있는 힘이다. 이들이 없었다면 유통산업은 굉장히 힘들었을 것이다.

중앙일보 중국연구소에서도 중국 청년들을 초청해서 교육도 하고 관광도 시켜주는 행사를 갖고 있는데, 이들에게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이 무엇인가'고 물으면 '난타'와 '비보이를 사랑한 발레리나' 공연을 꼽는다. 제주도의 섭지코지나 성산일출봉 같은 경관이 좋은 관광지는 중국에도 얼마든지 있다.

하지만 '난타'라는 것은 중국에 없는 것이다. 이렇듯 한국에만 있는 고유의 소프트한 문화산업, 중국 사람들이 흉내 낼 수 없는 창의적인 문화를 다양하게 개발해야 한다.

한중 FTA - 위기를 통해 새로운 차원의 기회 잡아야

지금 중국과 우리나라의 FTA 협상이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한중 FTA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지 한 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가 20년 전 중국과 수교를 했는데, 한중수교는 우리나라의 산업을 업그레이드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중국이라는 존재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 경제에 축복과 같은 존재였다. 한중수교로 인해 우리나라의 많은 저임금 노동산업이 중국으로 이전했다. 신발공장, 넥타이공장, 의류공장이 모두 중국으로 넘어갔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가 산업의 고도화를 이루었다.

3년 정도 후에는 양국 사이에 FTA가 발효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FTA가 한국 경제에 과연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지, 그리고 우리가 그 과정에서 어떤 역할을 주도적으로 맡아야 할 것인지 정확하고 지혜롭게 판단하는 것이 중요하다.

FTA가 체결되면 중소기업과 농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는 등 당장은 불리할 수도 있다. 관세는 이미 우리가 중국보다 높고, 이러한 상태에서 중국 기업 제품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그냥 들어온다면 우리나라 중소기업의 피해는 굉장히 클 수 있다.

하지만 일본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목과 미국과 유럽이 중국으로 들어가는 길목을 우리가 지킬 수 있다면, 그래서 세계경제와 중국 경제를 연결하는 허브 기능을 담당할 수만 있다면 우리나라가 동아시아에서 차지하는 위치를 한 단계 업그레이드시킬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

이것이 한중 FTA를 체결해야 하는 이유이다. 실제로 일본의 많은 부품 기업이 한국으로 생산기지를 이전하고 있다. 이러한 구도에 어떻게 적응하는가에 대한 고민과 선택은 우리들의 몫이 될 것이다. **KPM**



〈노사발전재단 협력세미나〉 제1765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K-Style, 한국형 성과주의 진화 방향과 다양성인재 전략 사례



인사관리 현장에 35년간 있었다. 25년은 삼성에서 근무했고, 10년은 컨설팅업체의 대표로 있었다. 10년간 현장을 누비다 보니 우리의 인사제도에 대한 정체성에 궁금증이 생기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인사제도는 지난 50년 동안 일본식 인사시스템을 무조건 따라갔었고, IMF 이후로는 미국식 성과주의가 아무런 검토도 없이 물밀듯 들어왔다. 큰 은행이나 기업은 100억 원씩 주고 미국식 성과주의를 도입하기도 했다.

하나의 제도를 도입하기까지는 기본적으로 그 나라의 문화와 의식, 경영 관행이 어떠했는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한 후 적용시켜야 한다. 미국의 문화는 철저하게 개인 중심이고, 일본은 집단 중심이다. 따라서 미국의 성과주의는 개인 중심이며, 일본은 조직문화 중심이다. 우리나라는 어떨까. 우리나라는 개인별로 흩어져 있다가도 계기가 되면 뭉치는 문화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우리의 특성이 반영된 코리안 스타일의 제도가 필요하지만 그동안 우리는 검토 없는 성과주의를 우리의 인사제도로 여기고 따라왔다.

사람을 성장시키는 한국형 성과주의

조직의 만사를 움직이는 인사의 핵심은 성과주의다. 성과주의는 '직원들로 하여금 업무에 몰입하도록 지원하는 시스템'이다. 단순히 돈을 많이 주는 것은 성과주의가 아니다. 또한 실적만 가지고 평가하는 것도 성과주의의 전부는 아니다.

성과는 인풋(Input), 프로세스(Process), 아웃풋(Output)으로 구성된다. 사람을 뽑는 것은 인풋, 일을 시키는 것은 프로세스, 여기서 나오는 결과가 아웃풋이다. 그리고 그 전체 과정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것이 성과주의다.

과거에는 인재를 뽑을 때 학벌이나 능력을 중시한 반면 최근에는 의욕이나 태도까지 평가한다. 아무리 능력이 뛰어나도 의욕과 태도가 '0'이라면 결과도 무조건 '0'이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주의는 지금 심각한 도전을 받고 있다. 돈으로 외적 동기를 부여하는 것은 잘못되었으며, 스스로 일하도록 만드는 내적 동기가 중요하다는 지적이다.

최근 우리나라에서는 외적 동기에 집중한 성과주의, 과정보다는 결과에만 집착한 성과주의에 대한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대표적 사례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두산그룹의 '따뜻한 성과주의'이다. 기업이 애정을 갖고 직원을 키워주면, 그렇게 성장한 직원은 자긍심을 가지고 회사에 기여하고 헌신하게 된다는 것이 핵심 원리다.

이렇듯 직원들로 하여금 신바람을 내면서 업무에 몰입하게 만드는 것이 한국인의 기질과 특성을 살린 가장 전형적인 '코리안 스타일'의 제도라고 생각한다. 사람을 소모시키는 것이 아니라 성장시킨다는 분명

한 철학, 개인보다는 팀과 조직 중심의 성과 관리와 보상, 지속 가능한 성과주의에도 주목해야 한다.

‘한국형 성과주의’를 언급하면서 삼성의 혁신사례를 빼놓을 수는 없다. ‘자식과 마누라 빼고 다 바꿔라’라는 이진희 회장의 ‘신경영 선언’ 이후 20년 만에 삼성은 글로벌 기업으로 도약했다. 이진희 회장은 사람을 뽑고 키우는 기존의 방식부터 완전히 바꾸었다. ‘우수 인재 한 명이 수만 명, 수십만 명을 먹여 살리는 시대가 올 것이다. 핵심인력 확보가 10년 후 삼성의 경쟁력을 좌우할 것’이라는 화두를 내걸고 전 구성원에게 각인시켰다.

〈디테일의 힘〉의 저자 왕중추의 방한 강연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한 사람이 조직을 움직이는 경영 방식은 중소기업의 한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창업자나 경영자의 사람 그릇 크기만큼만 자라다가 딱 거기서 성장을 멈출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따라서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사람’이 아니라 ‘제도와 시스템’이 조직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한다. 버스가 한 대일 때는 상황이 한눈에 훤히 보이기 때문에 인치(人治)가 가능하다. 하지만 버스가 두세 대로 늘어나면 법치(法治)가 가동되어야 한다. 대기업으로 성장하려면 ‘조직문화’가 조직을 움직이게 만드는 문치(文治)를 도입해야 한다.”

삼성에 근무하는 직원을 만나본 적이 있는가? 그들은 자신이 회사의 주인인 것처럼 행세한다. 그것이 바로 삼성을 초일류 기업으로 만든 조직문화이다.

위기를 기회로 - 다양성과 관용의 경영

성과주의를 어떻게 운영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운명이 달라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기존의 성과주의가 통하지 않는 ‘다양성의 시대’를 살고 있다. 사나운 농부 A와 선량한 농부 B가 각각 꿀벌 1,000마리를 분양받아 키우고 있었다. 그런데 농부 A가 꿀벌의 행태를 살펴보다가 아주 이상한 특징을 발견했다. 200마리는 열심히 일하고, 600마리는 적당히 일하고, 200마리는 놀고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다음 날 아침에 놀고 있는 200마리를 쫓아내 버렸다. 갈 곳을 잃은 200마리는 농부 B의 꿀통으로 이사를 갔다. 이것을 보고 농부 A는 속으로 패재를 불렀다. 농부 B의 꿀통에 놀고먹는 꿀벌이 400마리로 늘어날 것이 자명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3개월이 지나자 농부 B의 꿀통에서 더 많은 꿀이 생산되었다. 이유는 너무나 간단했다. 꿀벌이나 개미는 한곳에 모이면 2:6:2의 법칙으로 나뉘는 속성이 있었던 것이다.

인간세상에서는 이런 다양성이 더욱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세상에 처음부터 C급 인재를 뽑고 싶은 기업은 없을 것이다. 우리 회사는 애초에 B급 인재를 뽑는다는 경영자도 없을 것이다. 모든 기업과 경영자는 A급 인재를 뽑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하지만 아무리 A급 인재



만 뽑아놔도 한 달만 지나면 A, B, C급으로 나뉘게 된다. 인재(人才)를 뽑았는데, 인재(人財)가 될 수도 있지만 인재(人災)가 될 수도 있는 것이다.

불황과 다양성 등의 어려운 상황에 놓이면서 도리어 주목받는 기업들이 있다. 일본의 미라이공업은 상식을 파괴한 ‘사원행복 제일주의’라는 괴짜경영으로 승승장구하고 있다. 요즘에는 닌텐도, 교세라 등 교토에 있는 기업들의 ‘톨레랑스 경영’이 부상하고 있다. 이들은 남의 것을 훔쳐 내 내지 않는 영뚱한 사람은 물론이고, 다른 기업이 꺼리는 재일교포를 채용하는 등 관용의 경영을 펼치면서 도리어 위기를 기회로 만들고 있다. 삼성 역시도 바뀌고 있다. 최근 신문 기사에 의하면 삼성은 신입 사원 채용에서 지방대 출신과 여성인력을 32%나 뽑았다고 한다.

시골길과 아우토반이 있다. 아우토반은 누구든지 달릴 수 있고, 누구든지 스피드를 내면 앞장설 수 있고, 달리다가 비켜줄 수도 있다. 하지만 시골길은 60km 이상으로는 절대 추월할 수 없다. 벤츠가 아무리 300km까지 달릴 수 있어도 길 자체가 60km로 속도제한이 정해져 있으면 달릴 수 없다. 그런 길은 벤츠도 무용지물이다.

인사 문제도 그렇다. 합리적 인사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수한 인재가 들어오지도 않거니와 들어왔다가 나갈 수밖에 없다. ‘인프라’가 없는데 ‘콘텐츠’가 채워질 리 없다. 회사 규모에 따라서 회사의 역량에 따라서 길을 택해야 하는데, 이 길을 어떤 식으로 닦을 것인가? 이것이 성과주의의 핵심이다.

일본 속담에 ‘1년을 생각하면 돈을 남기고, 10년을 생각하면 땅을 남기고, 100년을 생각하면 사람을 남겨라’는 말이 있다. 일본에는 이미 100년을 넘긴 기업이 2만 3천 개, 1,000년을 넘은 기업이 7개나 있다. 사람을 ‘남기는’ 정신이 그 비결이다. 우리나라 인사제도도 한국식으로 도약하는 날이 오기를 바란다. **김기현**

〈노사발전재단 협력세미나〉 제176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기업의 새로운 DNA CSR에 주목하라



상위 1%의 가진 자들에 대해 99%의 일반 국민들이 항의하는 시대가 되었다. SNS를 도구 삼아 하루아침에 사람들이 몰려오게 만든다. 미국에서는 ‘월가를 점령하라’라는 운동이 일어났고, 한국에서도 ‘1%의 세금을, 99%의 복지를’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제 막 개막한 시진핑 시대의 중국도 양적 성장에서 벗어나 질적 성장을 추구하고 있다. 질적 성장에서는 복지와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을 추구하지 않으면 살아남을 수 없다. 홍석우 지경부 장관은 ‘CSR이 기업의 홍보가 아니라 필수 전략이 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것은 우리나라에 국한된 것이 아니고 세계적인 흐름이다.

CSR의 개념과 동인(動因)

기업이 지속성장을 하려면 재무적 관점과 비재무적 관점을 동시에 고려해야 한다. 제품·서비스 생산을 통해 이윤·고용을 창출하는 재무적 관점은 기업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하다. 하지만 최근 법적 책임을 넘어서 이해관계자가 기업에 기대하는 윤리적, 공공적 책임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비재무적 관점(CSR)이 더 중요해졌다.

이와 관련해 등장한 개념이 ‘세 개의 큰 기둥(Triple Bottom Line)’이다. 기업은 경제적 책임(기술/경영혁신, 지배구조 개선, 투명성 제고), 사회적 책임(지역사회 관계, 노동/인권 존중, 윤리경영), 환경적 책임(친환경경영, 친환경기술, 청정생산)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기업 역할의 관점에서 CSR을 4단계(경제적 책임, 법적 책임, 윤리적 책임, 자선적 책임)로 나누는 ‘피라미드’ 개념도 있다. 결국 CSR은 기업이 경제, 사회, 환경에 미칠 수 있는 부정적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 영향은 확대하는 것을 의미한다.

그렇다면 기업은 왜 CSR을 하는가? CSR의 전략적 동인(Driver)은 무엇인가? 첫 번째 이유는 사회적 압력(Pressure)이다. 만약 법이 없고 제도가 없다면 기업을 어떻게 운영하겠는가? 이윤이 남지 않는다면 법을 지키지 않는 것, 즉 이익과 이윤을 쫓아가는 것이 인간의 기본적인 마음이다.

두 번째는 동인은 전략(Strategy)이다. 법을 지키는 것은 기본이고, 사회를 지키면서 이윤을 남기면 얼마나 금상첨화이겠는가? 이것이 전략적 CSR이며, 마이클 포터가 이야기하는 CSV(Creating Shared Value, 공유가치창출)이다. 세 번째 동인은 가치(Value)다. 인간의 마음에는 아주 선한 마음이 있다. 이것 때문에 사회가 건강해지고 발전하는 것이다.

LG 사례를 보자. 첫 번째는 압력으로서의 CSR이다. 기업은 국제규범을 준수해야 하고 내부기준도 만들어야 한다. 정도경영을 중시하는 LG전자는 에너지, 환경, 안전, 건강을 추구하는 자체 기준인 ‘EESH 정책’을 수립했다. 이것은 한국 공장뿐 아니라 베트남, 멕시코, 폴란드 공장에서도 작동된다.

두 번째, 전략으로서의 CSR이다. 2010년 5월 선포한 ‘Green 2020’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환경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제품(테크

핸디 시트)을 출시했다. 휴지처럼 한 장씩 뽑아 쓸 수 있는 세제인데, 효율성이 6배나 높다 보니 시장에서 인기도 좋다.

세 번째, 가치로서의 CSR이다. 보통 사회공헌 활동으로 표현하는데, 구자경 명예회장은 1987년 여의도 트윈타워에 민간기업 과학관 1호인 사이언스홀을 개관했다. 이러한 활동들에는 원칙이 있다. 그냥 나눠 주는 성격의 자선 활동도 있어야겠지만 가능하면 본업의 특성을 반영하고 본인의 역량을 가지고 하는 것이 좋다. LG의 경우는 '자립'하도록 해주는 것에 방향성을 잡았다. 그 대상은 청소년이어야 하고 '젊은 꿈'을 키우는 사랑 LG'라는 슬로건을 가지고 업의 특성을 반영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CSR에서 CSV로의 진화 - 공유가치 창출 추구해야

이제는 CSR 활동에도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시대이다. LG전자가 개발한 스마트도네이션 프로그램은 TV를 보다가 아프리카 어린이들을 돕고 싶을 때 바로 도울 수 있다. 카드로 거래가 가능하고 30초 내에 세계식량기구 총재의 편지가 바로 온다. 이는 대중들에게는 도네이션의 새로운 방법을 알려주는 사회적 이익을 가져왔고, LG전자는 스마트TV의 브랜드가치 상승과 경제적인 이익을 함께 취했다.

또 다른 사례로 LG전자는 아프리카 시장 맞춤형 제품인 '말라리아모기 퇴치용' 에어컨을 출시했다. LG전자는 나이지리아 라고스 오리엔탈 호텔에서 현지 유통업체 관계자를 초청해 출시 행사를 가졌다. 이 제품은 모기가 싫어하는 30~100Hz 주파수 대역 중 특정 초음파를 일정 주기로 쏘 24시간 이내에 말라리아 병균을 옮기는 암컷 학질모기를 사라지게 하거나 활동을 저하시킨다. 이 기능은 나이지리아 최고 의과대학인 이바단대학으로부터 인증을 받았다. LG전자는 모기 종류별로 퇴치용 주파수 대역이 달라 모든 모기 종에 적용할 수는 없지만 2010년 인도네시아에서 선보인 '맹기열모기 퇴치용' 에어컨의 경우 일반 에어컨보다 절반가량 비싼 가격에도 불구하고 매달 5,000대 가량 판매됐다고 전했다.

이는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면서 경제적 이윤을 함께 추구한 사례이다. 당연히 자선활동이 추가 되어야 하지만 이를 전략적 차원으로 끌어올려서 사회의 아픔을 치유하면서 이윤도 추구할 수 있는 것이 바로 CSR을 업그레이드시키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마케팅의 귀재인 필립 코틀러 교수는 'CSR을 통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자'고 했다. 처음에는 작은 활동으로 시작하지만 점차 사회적 이슈를 해결하면서 이윤을 추구하는 공익마케팅으로 가야 한다는 것이다. 소비자를 바꾸면서 이윤을 추구하고 그 다음으로 사회문화적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 모토를 만들어내고 끝없이 가도록 이끌어내는 활동이다.

작년 12월에 내한했던 마이클 포터 교수의 CSV 강연과도 같은 내용이



다. 그는 현재의 자본주의는 탐욕으로 기울어져 가고 있으므로 공유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적 가치를 창출하면서 경제적 이익도 얻자는 내용이다.

LG를 창업한 구인회 회장은 “돈을 버는 것이 물론 기업의 속성이다. 하지만 고기가 물을 떠나서는 살 수 없듯이 기업은 자신이 몸담고 있는 사회의 복리를 먼저 생각해야 한다. 나아가 나라와 사회의 백년대 계에도 보탬이 되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도 기업을 일으킴과 동시에 사회에 도움이 되는 일을 찾아야 한다. 그런 기업만이 영속적으로 대성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창업자는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 전문경영인들은 제대로 몰랐던 셈이다. 이러한 따뜻한 마음과 정신을 계승할 때 따뜻한 자본주의가 만들어지는 것이다. **김민**



내 몸의 의사를 깨우는 힐링투어 함양(주)인산가 방문

본원은 지난 11월 17일, '찾아가는 CEO교실' 열 번째 행사로 죽염 종가(주)인산가를 방문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행사는 지난 9월 27일 제1757회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강연으로 인연을 맺은 김윤세 회장의 초청으로 이루어졌으며, 인산연수원, 죽염공장 등을 방문하고,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인 상림과 지리산 12봉을 내려다보는 조망공원을 둘러보는 등 함양의 자연을 가슴에 품는 힐링투어 형식으로 치러졌다. 35명의 회원들이 참석한 이번 행사를 따라가 본다. **편집자 주**



11월 17일 토요일 새벽 6시. 밤사이 내린 비로 다소 쌀쌀한 아침 공기가 옷깃을 여미게 만드는 이른 아침, 예보된 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함양으로 떠나기 위한 회원들의 발걸음이 새벽공기를 가르며 이어졌다. 35명의 인간개발연구원 회원들이 차에 오르고, 드디어 함양을 향해 버스가 출발했다. 잔뜩 흐렸던 하늘이 버스가 달릴수록 구름을 걷어내고 맑은 얼굴을 내밀자 CEO들의 달리는 공부방 열기에 하늘도 감동했다는 탄성이 곳곳에서 터져 나왔다. 그렇게 버스 안에서 시작된 '달리는 공부방'은 본인 소개에서부터 경영이야기, 시사, 문화, 유머에 이르기까지 각양각색의 스토리로 이야기꽃을 피웠다.

지리산 자락 한 폭의 그림을 품은 함양 그린투어

4시간여를 달려 도착한 함양에는 군 관계자들이 미리 영접을 나와 있었다. 연구원과 함께 '함양군민 자치대학'이라는 지방자치 아카데미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 인연으로 함양군 투어를 안내하기 위해서였다.

함양은 우리 민족의 기상과 혼이 서린 지리산을 품고 있는 고장이다. 천왕봉에서 노고단까지 45km에 이르는 지리산맥은 그 둘레만 700km에 이르는 자연생태계의 보고이다. 일행 모두의 욕심이 야 천왕봉에 올라 어리석은 사람도 지혜를 얻는다 하여 이름 붙여

진 지리산(智異山)의 정기를 받고 싶었지만 일정상 지리산 조망공원과 불교예술의 극치를 이루고 있는 서암정사(西庵亭寺)를 둘러보기로 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리산 조망공원에 이르는 오도재를 바로 넘어갈 수 있었다는 점이다. 당일 예보된 비가 내렸다면 오도재에는 눈보라가 휘몰아쳐 차량통제가 이루어졌을 텐데, 맑게 갠 하늘이 오도재의 탁 트인 전망을 허락한 것이다. 오도재는 위에서 내려다본 모습이 아름다워 건설교통부가 선정한 '아름다운 길 100선'에 꼽힌 곳으로 가파른 고갯길을 오르기 쉽도록 S자로 구불구불하게 만들어 놓은 길이다. 오도재를 넘어 지리산 제1문 근처에 위치한 조망공원에서 지리산 12봉을 안개 사이로 희미하게나마 내려다볼 수 있었다.

우리나라 3대 계곡 중 하나로 꼽히는 칠선계곡의 초입에 위치한 서암정사는 지리산의 산세를 배경으로 자연암반에 무수한 불상을 조각하고, 불교의 극락세계를 그린 조각 법당을 10여 년간에 걸쳐 완성해 화려함과 웅장함이 장관을 이루고 있는 곳이다. 사찰 입구에는 불교진리의 세계로 들어간다는 대방광문이 있고, 바위에 조각된 사천왕상을 지나 도랑 안으로 들어서면 극락세계를 형상화한 석굴법당 등이 있다. 이 모두가 암반에 굴을 파고 조각을 함으로써 불교 예술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건축학적으로도 특이한 기법이라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했다.

지리산에서 내려오는 길에 들른 상림은 신라 진성여왕 때 고운(孤雲) 최치원 선생이 조성한 숲으로 홍수의 피해를 막고자 나무를 심어 조성한 우리나라 최초의 인공림이다. 상림은 연인들과 가족들이 즐겨 찾는 지역 명소로 120여 종의 나무가 1.6km의 독을 따라 조성되어 있어 자연학습장으로도 활용되고 있다.

참 의료 실천을 위한 죽염 종가의 고집

지리산 일대를 둘러보는 것으로 오전 일정을 마친 일행은 곧바로 인산가가 위치한 인산연수원으로 이동했다. 인산연수원은 함양 삼봉산 중턱 5만여 평의 산림 내에 자리한 곳으로 인산의학의 세상에



알리는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곳이다.

인산가는 4대에 걸쳐 160년의 전통을 자랑하는 죽염 종가로, 독립 운동가이자 사상가, 걸출한 의화학자였던 인산(仁山) 김일훈 선생의 유지를 받들어 김윤세 회장이 세계 최초로 설립한 죽염 전문회사이다. 현재 인산 선생의 의학이론인 '인산의학'을 바탕으로 자연의 섭리에 따라 몸과 마음을 다스리고, 순리에 맞춰 살아가면 건강해진다는 자연의학 건강법을 산업화하여 벤처기업 인증, 이노비즈기업 인증을 받는 등 중소기업의 성공사례로서 그 위상을 확고히 하고 있다.

원기를 살리고 몸을 정화시키는 죽염밥상으로 오찬을 마친 회원들은 인산가의 창업 배경과 성공스토리가 담긴 영상물을 통해 인산가의 창업정신과 성장 과정을 들을 수 있었다. 김윤세 회장은 "동양의 학과 서양의학, 제도권과 비제도권을 가리지 않고 암, 난치병의 근본치료에 효과를 발휘하는 것이 '참 의료'라고 할 수 있으며, '참 의료'는 자연법칙과 생명원리에 부합하는 치료법과 천연물의 약성을 활용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1987년 8월, 인산의학의 산물인 죽염을 세계 최초로 산업화하여 '소금 유해론' 문제의 본질이 미네랄 함유 여부에 있음을 밝히고, 자연의학의 참가치를 알리는 한편 국민의 올바른 건강인식 확립에 기여하고자 인산가를 설립하게 됐다"는 말로 인산가를 소개했다. 특히 김 회장은 1981년부터 5년 동안 선친으로부터 인산의학 이론을 구술받아 <신약>이라는 책으로 출간해 한국 대체의학 발전에 한 획을 그은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회원들은 죽염이 탄생하기까지의 제조공정을 살펴보기 위해 인산 죽염제조공장으로 자리를 옮겼다. 공장 안내를 맡은 정대홍 본부장은 "인산가 죽염은 서해안의 천일염과 지리산 부근에서 자란 왕대나무를 원료로 해서 대통 속에 간수를 뺀 천일염을 다져 넣고, 황토로 입구를 막은 후 쇠가마에 소나무 장작불을 지펴 굽는다"며 제조과정을 소개했다. 이렇게 한참을 구우면 대나무는 타서 재가 되고, 소금은 하얀 기둥으로 변하는데, 이 소금 기둥을 가루로 분쇄하여 다시 대나무 통에 넣고 굽기를 반복해서 죽염이 탄생한다

는 것이다.

마지막 아홉 번째 구울 때는 고열에 견딜 수 있도록 고안된 특수로에 죽염을 담아 굽는데, 이때 발생하는 열이 1,400도 이상이라고 한다. 이렇게 하면 소금이 순식간에 녹아 마치 용암처럼 액체 상태가 되고, 이것이 식으면 단단한 돌덩이로 변하는데, 이를 분쇄하여 가루 또는 굵은 입자로 만든 것이 전통적인 방법을 고집해 탄생한 인산죽염이다.

회원들이 찾아간 날은 토요일로 휴무일이었으나 김윤세 회장의 배려로 특수로에서 아홉 번째 죽염이 나오는 모습을 직접 볼 수 있었다. 김 회장은 "이렇게 탄생한 인산죽염 속에는 칼슘, 철, 구리, 아연, 게르마늄, 셀레늄, 마그네슘 등의 미네랄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다"며, "평소 조금씩 입에 넣고 침으로 녹여가며 수시로 먹되, 음식을 만들 때도 사용하면 효과적"이라고 일렀다.

공장을 둘러본 일행들은 김윤세 회장의 미니 강연을 끝으로 모든 일정을 마무리했다. 함양의 자연과 인산의학의 근본 이론을 체득하기에는 하루해가 너무나 짧았다. 저녁 해가 인산가 뒤편 삼봉산을 완전히 넘어간 뒤에야 일행들은 서울로 향할 수 있었다. 하지만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도 회원들의 열기는 하루의 감회를 나누는 것으로 식지 않고 계속되었다. **KNN**



CoverStory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기술원 원장

사진, 정리 · 정용달 팀장(dal2020@khdi.or.kr)

줄기세포 치료로 의료선진대국 꿈꾸는 라정찬 박사

인류의 희귀난치병 질환 극복에 앞장설 것



“줄기세포 연구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있고, 시장 규모도 훨씬 큼니다. 하지만 성체줄기세포, 그 중에서도 자가지방성체줄기세포 기술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1위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에 2년여 앞서 있는 기술 격차를 5~10년으로 벌리고, 표준화된 원천 기술을 외국으로 수출해 세계 어디에서든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하게 만든다면 우리나라는 의료선진대국으로 거듭날 수 있습니다.”

현대의학을 뛰어넘은 제4세대 재생의학으로 떠오르고 있는 성체 줄기세포 치료가 과학계를 넘어 의학계의 뜨거운 화두로 자리 잡고 있다. 세계적으로 줄기세포 효과를 둘러싼 논란이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지만 기존 의학으로는 고칠 수 없었던 난치병 환자가 줄기세포 치료로 호전된 사례들이 확인되면서 시장은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다. 우리 몸에서 지방조직을 떼 내 줄기세포로 배양한 뒤 손상된 조직과 장기의 세포를 재생시키는 자가지방성체줄기세포 치료는 면역 거부반응이나 발암 가능성 등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분야 기술 격차를 외국과 2년여까지 벌여 놓은 주인공이 바로 알앤엘바이오 줄기세포기술원 라정찬 박사다. 알앤엘바이오는 세계 최초로 지방줄기세포의 계대 배양 공정 기술 개발에 성공하는 등 오랜 연구와 기술력으로 국제 학술지에 27편의 논문을 발표해 연구의 수준과 안전성을 검증받기도 했다.

2000년에 회사를 창업한 뒤 5년 만에 코스피에 상장하고, 다수의 계열사를 세우는 등 경영자로서도 성공한 라정찬 박사는 지난해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리고 지난 9월에는 1,000억 원에 이르는 개인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해 주위를 놀라게 했다. 이유는 간단하다. 줄기세포 연구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진정성을 알리고, 소위 돈 있는 사람들만 줄기세포 치료제를 맞는다는 인식을 바꿔 서민층까지 확대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다는 것이 그가 밝힌 전부다. 앞으로 사업가가 아닌 연구자로서 희귀난치병 치료 기술 개발에 매진하겠다는 라정찬 박사. 의약품으로 묶여 각종 규제를 받고 있는 성체줄기세포 치료 분야에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더해져야 성체줄기세포 치료 중추국으로서 입지를 확고히 할 수 있다는 라정찬 박사를 만나 자가지방성체줄기세포 치료 현황과 효과, 향후 과제 등에 대해 들어봤다.

대담·장만기 인간개발연구원 회장

아직까지 일반인들에게는 줄기세포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개념을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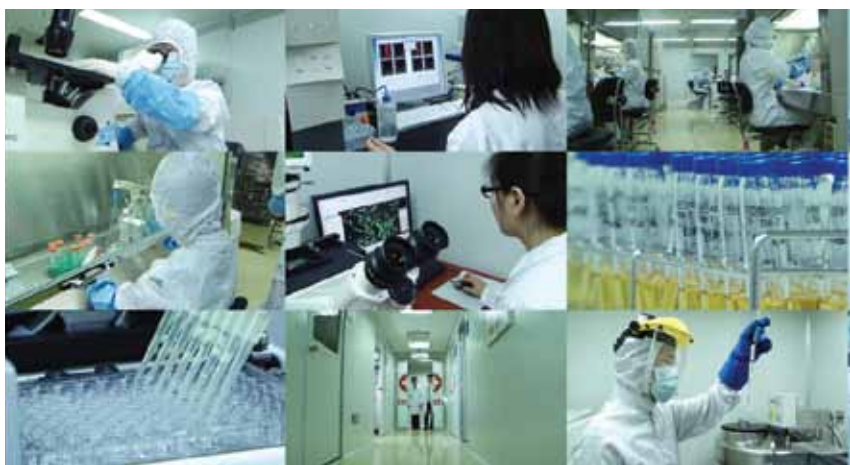
성인의 몸은 60조 개의 세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포 하나하나가 모여 생명을 구성하는 거죠. 난자와 정자가 결합해서 수정란이 되는데, 하나의 세포로 시작한 수정란이 세포분열을 통해 만들어지는 줄기세포를 배아줄기세포라고 합니다. 이 줄기세포에서 눈도 만들어지고 코도 만들어지죠. 배아줄기세포는 모든 조직의 세포로 분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부상이나 질병 등으로 조직이 손상되었을 때 배아줄기세포를 원하는 조직으로 분화시켜서 그 조직을 재생시키는데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배아줄기세포는 수정란에서 뽑아내는 세포이기 때문에 윤리성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또한 암으로 발전하는 성질이 있어서 현재로서는 사람에게 적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하기 시작한 것이 유도만능줄기세포(iPS)입니다. 완전히 자란 체세포에 세포분화 관련 유전자를 지닌 조작된 유전자를 주입해 마치 배아줄기세포와 같이 세포 생성 초기의 단계로 되돌린 세포로 역분화줄기세포라고도 하죠. 환자의 피부세포로 배아줄기세포를 만들어 치료한다는 점과 난자나 배아를 이용하지 않아 윤리적 문제도 없는 기술이지만 유전자 변형 과정에서 암 발병 우려가 있어 이 역시 아직까지는 사람에게 사용을 못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노벨생리의학상을 받은 일본도 이 분야를 연구한 것인데, 아직 임상실험은 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반면 성체줄기세포는 완전한 인간의 몸에 존재하는 것으로 필요한 때 특정한 조직의 세포로 분화하게 되는 미분화상태의 세포를 말합니다. 지금 저희가 연구하고 있는 자가지방성체줄기세포는 내 몸 안에 있는



라정찬박사와 장만기 회장이 대담을 나누고 있다.



세포를 이용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전성과 윤리성에 문제가 없습니다. 특히 '자기'를 앞에 붙이는 것은 내 성체줄기세포를 내가 쓰기 때문입니다. 타가성체줄기세포는 한 번은 괜찮을지 모르지만 여러 번 투여하면 면역 거부반응이 일어나는 반면, 자기 것은 안전하기 때문에 희귀 난치성 질환에 큰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박사님께서 줄기세포 치료법 개발과 보급에 누구보다 앞장서고 계신데요. 수의학 전공자로서 바이오산업에 뛰어들 계기가 궁금합니다.

1986년에 서울대 수의학과를 졸업했어요. 제가 태어난 곳이 워낙 시골이었는데, 어렸을 때 가정형편이 넉넉지 않았으니까 집에서 소도 길러서 팔고 돼지도 길러서 팔았죠. 그러다보니 자연스럽게 자연과 함께 자랐고, 생물에 대한 관심도 높았던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 때 담임선생님께서 수의과대학을 권하셨는데, 지금 생각해도 수의학을 전공한 게 잘한 일인 거 같아요. 생명현상을 연구하고 이것을 규명하는 과정이 사람을 모델로 삼기 때문에 윤리적 문제로 인해 주로 동물부터 실험하게 됩니다. 저는 수의학을 전공하면서 해부학, 생리학, 병리학, 발생학까지 두루 배웠어요. 그러면서 생물학자로서의 기본적인 소양을 갖출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국이나 일본의 경우 수의학자도 물론 많지만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분들이 대개 의사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줄기세포 연구자들 중에는 수의학 전공자들이 더 많아요. 아무래도 연구 초기에는 이 분야가 그리 각광받지 못했고, 순수 연구로 여겨진 측면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2000년 말에 다니던 LG생명과학을 그만두고 알앤엘생명과학을 창립했는데, 당시 경영철학이 '천연물에서 인간 질병의 치료물질을 찾아 내자'였습니다.

1999년에서야 지방조직에도 줄기세포가 있다는 것이 발견됐는데, 초기에는 지방줄기세포가 미용 목적으로 많이 사용됐습니다. 그러다 착안하게 된 것이 지방조직에서 빼낸 줄기세포를 이용해 질병과 난치병을 치료해보자는 것이었죠. 지금 생각하면 두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남들이 하지 않았던 일을 시작할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줄기세포 분야의 세계시장 규모와 한국의 위상은 어느 정도입니까.

전 세계 줄기세포시장은 한국, 미국, 일본이 주도권 다툼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올해 세계시장은 약 3조 원 규모로 내후년에는 2배 이상 성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전반적인 줄기세포 연구는 미국과 일본이 우리보다 앞서있고, 시장 규모 또한 훨씬 크죠. 그러나 성체줄기세포, 그 중에서도 자기 몸속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줄기세포를 배양해 난치병 치료에 이용하는 자가지방성체줄기세포 기술은 우리나라가 독보적인 1위입니다. 이 분야만큼은 외국과의 격차를 2년여까지 벌여 놓은 상황입니다.

알앤엘바이오가 보유하고 있는 줄기세포 기술 현황은 어떻습니까.

현재 알앤엘바이오의 줄기세포 기술은 까다로운 국제 학술지에 발표한 27편의 논문으로 연구의 수준과 안전성을 검증받았고, 국내외에서 취득한 특허가 25건에 이릅니다. 줄기세포에 대한 연구 결과는 엄격한 검증을 거쳐야 국제 학술지에 실리는데, 게재 논문이 많다는 것은 연구를 많이 한다는 것도 있지만 그 내용도 정확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알앤엘바이오의 핵심기술은 소량의 지방조직에서 추출한 성체줄기세포를 수천 배로 증식하고 활성화한 뒤 장기간 보관하는 기술입니다. 배양된 세포는 줄기세포 고유의 특성을 그대로 간직하죠.



“
알앤엘바이오의
 표준화된 원천기술을
 외국에 수출해 세계 어디에서든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하게 되는
 ‘줄기세포 실크로드’가
 완성되면 우리나라를 성체줄기세포
 치료 종주국으로,
 의료선진대국으로
 올려놓겠다는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올해 발표한 21개 논문이 국제 학술지에 실렸고, 추가로 투고할 논문도 7편이나 됩니다. 지난 11월 말 터키에서 열린 제7회 상처치료학회에서 중증하지허혈에서의 지방줄기세포 안전성 및 효능에 관해 발표한 바 있습니다. 당뇨병으로 인한 족부궤양을 주제로 열린 학회에서 기존 상처치료 방법의 대안으로 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가 새로운 대안이 될 것이라고 발표함으로써 학회에 참석한 많은 전문가들의 기대와 관심을 받았죠.

중증하지허혈은 하지의 말초동맥들이 심하게 막혀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 조직이 괴사되는 족부궤양으로, 심할 경우 발이나 하지를 절단해야 합니다. 버거씨병, 당뇨 족부궤양이 이 질환에 속하는데, 기존의 치료법으로는 완치가 어려웠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한 치료법은 혈관이 막혀 다리가 절단될 위기에 처한 동물 모델에게 지방줄기세포를 투여한 결과, 절단율이 유의적으로 감소하고 병변부위에 신생 혈관이 다량 관찰됨을 확인했으며, 실제 식약청 승인을 받아 실시한 임상시험을 통해서도 지방줄기세포의 효능을 입증했습니다. 또한 버거씨병 및 당뇨성 족부궤양 환자에서도 중증하지허혈과 마찬가지로 좋은 결과를 확인해 당뇨합병증 환자들에게 새로운 희망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 얼마 전에는 국제 학술지 뉴로사이언스 리서치 저널(Journal of Neuroscience Research)에 자가지방줄기세포로 노인의 인지기능과 신체활력을 개선시킬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이 연구는 노령의 동물에 사람의 지방줄기세포를 투여한 뒤 인지기능 및 신체활력을 비교해 줄기세포가 작용하는 기전을 밝혀낸 것으로 노화로 인해 뇌기능이 저하된 경우 자신의 지방줄기세포로 뇌세포 재생을 통한 노화방지 가능성을 제시했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알앤엘바이오의 자가지방줄기세포 기술을 세계 표준으로 만드는 '줄기세포 실크로드'를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입니까.

쉽게 말해 알앤엘바이오의 원천기술이 세계 표준으로 확립되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 일본에 비해 2년 정도 앞서있는 기술 격차를 향후 5~10년으로 벌리고 해외 보급에도 적극 나설 계획입니다. 표준화된 원천기술을 외국에 수출해 세계 어디에서든 줄기세포 치료가 가능하게 만드는 거죠. 이미 미국 텍사스주에 연간 1만 명을 치료할 수 있는 치료센터가 문을 열었고, 중국, 러시아, 일본, 독일, 중동, 터키, 브라질 등에도 관련 의학센터나 생산센터를 설립해 '줄기세포 실크로드'를 구축할 계획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 완성되면 우리나라를 성체줄기세포 치료 종주국으로, 의료선진대국으로 올려놓겠다는 꿈이 현실이 될 것입니다.

'줄기세포 연구는 과학이 아니라 의학'이라는 지론을 주장하시는데요. 자가지방줄기세포를 이용해 치료할 수 있는 질병의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그동안 줄기세포 연구는 과학의 분야에서만 접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줄기세포는 과학이 아니라 의학 분야로 넘어오고 있습니다. 자가지방줄기세포는 치매, 파킨슨병, 퇴행성 관절염, 당뇨병성 족부궤양, 뇌성마비, 녹내장, 버거씨병, 심근경색, 뇌경색, 골절, 뇌졸중, 척수 손상, 신부전, 소아마비, 다발성경화증 등 세포 손상에 따른 다양한 질환의 치료에서 효과를 발휘합니다. 수술 없이 주사로 치료가 가능해 시술이 간단하다는 것이 장점이지요. 암 또한 줄기세포 치료 기술에 다른 기술이 접목돼야 하는 과제가 있지만 치료 가능성은 높다고 봅니다.

자가지방줄기세포를 통해 자연수명 120세 시대를 맞는 것도 꿈만은 아닐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에 따른 안정성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는 게 사실입니다.

연구 초창기 시절 줄기세포 치료에 대한 안전성 문제로 줄기세포 치료제를 개발하고도 임상시험에 응하는 사람이 없어 난감했던 적이 많았습니다. 의사들조차 줄기세포 치료는 암을 비롯한 각종 부작용이 있다며 임상시험을 꺼렸죠. 결국 제 몸을 내놓고 안전성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보고 싶었습니다. 2008년부터 지금까지 50회 가까이 치료제를 주사 맞았는데, 예상대로 부작용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좋지 않았던 간 기능이 회복되고, 아토피 증상도 사라지는 등 몸의 각종 기능이 회복돼 연구하고 경영하는데 도움이 됐어요. 물론 동물실험 등을 통해 안전성을 확인했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특히 서울대 임상의학연구소의 실험 결과 알앤엘바이오에서 배양한 자가지방줄기세포에서는 어떤 독성이나 암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12번에 걸친 증식 과정에서도 유전자 변형이 일어나지 않아 안전성이 입증된 거죠.

현재는 대부분의 연구가 동물실험 단계를 끝내고 임상시험 중이거나 임상시험을 마친 상태입니다. 내년에는 퇴행성 관절염 치료제나 버거씨병 치료제 등이 선보이게 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1만 7,000여 명이 자가지방줄기세포를 보관했고, 이 중 1만 3,000여 명이 실제 치료에 사용했습니다. 지금까지 치료자의 절반 이상이 50대 이상임을 감안하면 수명 100세 시대를 넘어 자연수명 120세 시대도 앞당길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그런데 국내에서는 줄기세포 치료 및 시술에 제약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제도 개선과 정책지원이 필요하다는 지적을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나라에서 줄기세포는 약품으로서만 처방될 때 시술이 가능하며, 개별적 시술은 법적으로 금지되어 있습니다. 줄기세포라 해도 배양해서 치료하는 것은 의약품으로 분류돼 있어 허가를 받고 3차에 걸친 임상시험도 거쳐야 합니다. 반면 일본은 의료 기술로 간주돼 의사의 책임 하에 곧바로 치료에 적용할 수 있죠.

일본이 올해 노벨상을 수상한 것은 연구자 혼자만의 성과가 아닙니다. 일본은 2009년 까다로운 법 절차를 완화해 의사들이 임상시험에 재량껏 나설 수 있게 길을 열어줬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처럼만' 바뀌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대로 가면 기술개발에서 앞서고도 실제 응용에서는 뒤질 수밖에 없어요. 다행히 최근 자가지방줄기세포의 안전성이 입증되면서 반신반의하던 의사들이 먼저 임상시험을 요청하는 등 분위기가 바뀌고 있지만 임상시험이 더 활발해질 수 있도록 정부가 이를 장려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최근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관광 유치에 힘쓰고 있는데, 성체줄기세포 치료가 기폭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와 의료계가 의료관광 유치에 나서고 있지만 단순 의료관광에는 분명 한계가 있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에 와야만 치료받을 수 있다는 인식을 심어주는 게 중요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도 해결하지 못한 치매, 뇌성마비 등의 난치병을 치료할 수 있게 된다면 한국의 위상이 올라가는 것은 시간문제입니다.

의료관광을 오면 보통 그 가족들이 따라오기 마련인데, 환자는 치료받고 가족들은 관광을 하게 만든다면 병원, 호텔, 관광 등 연관 산업이 활성화되고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습니다. 성체줄기세포 치료가 우리나라 의료관광을 촉진시키는데 큰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들에게 '내 생명을 지켜준 나라 대한민국'이라는 이미지를 심어줌으로써 경제적 부가가치뿐만 아니라 나라의 국격을 올리는데도 도움이 될 겁니다.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노벨 생리의학상 후보로 추천됐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수상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떻습니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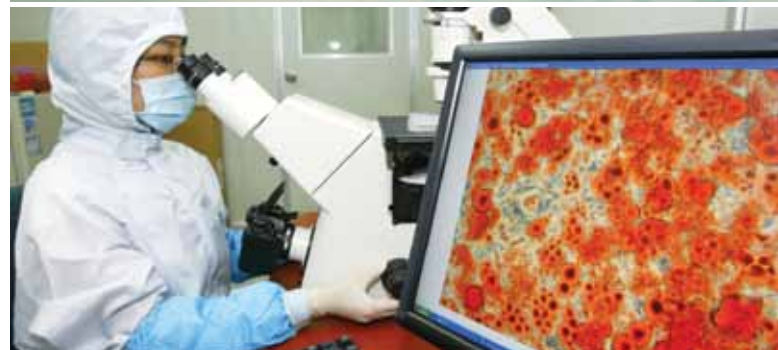
비록 수상은 못했지만 지난해에 이어 두 번째로 후보에 추천됐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의 줄기세포 기술을 인정받았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남다릅니다. 사실 노벨상에 대한 욕심보다는 연구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내면서 꾸준히 도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줄기세포 치료제는 대개 인체의 아픈 부위에 직접 투여하지만 알앤엘 바이오의 기술은 정맥 내 투여로 줄기세포가 아픈 부위를 스스로 찾아가 치료하게 하는 방식입니다. 남들이 흉내 낼 수 없는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정확한 진단이 나오지 않거나 어느 한 군데만 치료하기 힘들 때 유용한 기술이죠. 이 기술이 당국의 허가와 함께 실용화된다면 노벨상 수상도 가능하리라 봅니다.



박사님께서 쓰신 <고맙다 줄기세포> 저서가 세계 각지에서 출판되고 있는데요. 어떤 내용입니까.

줄기세포에 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이 책을 쓰게 됐습니다. 2010년 전 인류가 직면한 노화와 질병에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줄기세포에 대한 과학적 해설과 현재의 줄기세포 치료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함으로써 줄기세포가 무엇이고 어떤 내용의 연



구가 진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었습니다.

다행히 과학서적으로는 드물게 3만 부 이상 판매되어 베스트셀러 반열에 올랐고, 이후 과학도서 스테디셀러로 꾸준히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지난 10월에는 미국에서 영문판 <The Grace of Stem Cells>이 출간되었는데, 한국인 과학자의 책이 미국의 일반 독자들을 위해 번역 출판된 것은 최초로 영어권 국가에 성체줄기세포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대한민국 성체줄기세포 기술의 우수성을 알리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지난 12월 6일에는 중문판 출판기념회가 상해에서 열려 13억 중국 시장 진출을 선언하기도 했습니다. 최신 사례를 업데이트해서 내년 2월 14일에는 일본어판 출판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며, 5월 초에는 스웨덴 판도 출간해 전 세계의 희귀난치성 질환자들이 치료에 대한 희망을 얻을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
줄기세포 연구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저의 진정성을
알리고 싶었어요.
”

**지난 9월 개인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겠다고 발표해 주위를
놀라게 했는데요. 기부를 결정하게 된 계기가 무엇입니까.**

줄기세포 연구를 하면서 많이 받았던 오해가 “라 박사가 돈을 위해 연구한다”는 말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회적 편견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줄기세포 연구가 돈이 목적이 아니라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이라는 저의 진정성을 알리고 싶었어요. 또한 2005년 말 황우석 스캔들 이후로 줄기세포 연구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게 현실입니다. 믿지 못하겠다는 거죠. 더욱이 줄기세포치료제는 소위 돈 있는 사람들만 맞는 것이라는 인식이 강해 서민층까지 확대해 사회에 기여하고 싶었습니다.

이번에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기로 결심한 것은 비전보다 사명을 중시하는 제 철학에 있어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한 일이기도 합니다. 스스로의 마음을 외부에 드러냄으로써 제 마음을 바꾸지 못하도록 족쇄를 채운 것이죠.

기부 규모는 어느 정도이고, 어떤 방식으로 기부하실 예정입니까.

전체 기부 규모는 1,000억 원 정도 되는데, 현재 가지고 있는 회사 주식을 비롯해 계열사 주식, 주식관련 사채권, 신주인수권 및 기타 자산

의 90%를 사회복지법인 베테스다생명재단에 35%, 의료법인 예성의료법인에 35%, 재단법인 한국기독교학술원에 10%, 학교법인 중앙학원에 10%로 나누어 앞으로 10년 안에 모두 증여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연구 개발물들이 성과가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안정세에 와 있기 때문에 10년 동안 회사 가치가 상승하면 기부금액도 늘어날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번 사회 환원은 난치병 극복을 위한 줄기세포기술 연구 지원, 희귀난치질환자들에 대한 치료비 지원, 저소득층 희귀난치질환 환자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지원으로 활용되는 등 알앤엘바이오가 사회적 기업으로 그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경영에서 물러나신 것도 그렇고, 재산 사회 환원도 그렇고 하고 계신 일에 대한 사명이 남다른 것 같습니다. 앞으로의 계획이나 포부가 궁금합니다.

사람들은 비전을 이야기하지만 저는 비전보다 사명을 중시합니다. 창조주가 인간을 만들 때 각자에게 부여한 사명을 제대로 완수하느냐가 제게는 큰 관심사죠. 제게 주어진 인생의 사명은 “인류의 불치병 중 한 가지는 나의 작은 노력으로 정복하겠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의하면 창조주가 인간에게 허락한 자연수명은 120세입니다. 현대과학에서도 인간의 자연수명을 120세로 보고 있고요. 하지만 현재 실제 평균수명은 80세 정도에 머무르고 있습니다. 결국 건강하게 오래 사는 방법을 찾는 것이 인류가 풀어야 할 과제입니다.

저는 그 방법 중 하나가 줄기세포 치료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줄기세포 연구가 더 발전한다면 평균수명 100세 시대가 열릴 것입니다. 개인 재산 대부분을 기부하고 남은 반평생은 사업가가 아닌 연구자로서 성체줄기세포를 연구해 희귀난치병 치료 기술 개발에 매진할 생각입니다. 지난해 최고경영자 자리에서 물러난 것도 연구에만 전념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에게도 첨단 기술의 혜택이 돌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

● 라정찬 박사

1963년생으로 서울대 수의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했으며, 제주대에서 수의학 박사, 미국 벨헤이븐대에서 명예박사 학위를 받았다. 2000년 알앤엘생명과학을 창업해 5년 만에 코스피에 상장했으며, 다수의 계열사와 관계기관을 세우는 등 경영자로서도 성공가도를 달려왔다.

현재 알앤엘바이오 이사회 의장, 줄기세포기술원장, 베테스다병원 이사장, 서울대 수의과대학 겸임교수, 한국기독교학술원 이사 등을 맡고 있다. 그동안의 경영성과를 인정받아 2003년 벤처기업대상 국무총리상, 2007년 대한민국 기술대상, 2009년 장영실 한국과학기술대상, 2011년 한국기독교 학술상, 2012년 5·16 민족상 등을 수상했다.

세계 최초로 지방줄기세포의 계대 배양 공정 기술 개발 성과를 인정받아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2013년도 판에 등재될 예정이기도 하다. 최근 개인 재산의 90%를 사회에 환원하고 자신은 사업가가 아닌 희귀난치질환 극복에 앞장서는 줄기세포 연구자로 남고 싶다고 밝혀 사회적 주목을 끌었다.



“세상을 나누는 선물 TPT멘토대학 마중물 콘서트”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멘토대학 재정 자립을 위한 송년파티
각계의 후원 협찬으로 소중한 마중물 모아져**

장기불황의 여파에도 불구하고 한 해 동안 경영 일선을 지켜온 기업인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한편, 우리 사회 리더들이 가진 지혜를 세상과 나누기 위한 2012 KHDI 송년의 밤 '세상을 나누는 선물 TPT멘토대학 마중물 콘서트'가 12월 13일 삼성동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300여 명의 회원 및 강사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TPT멘토대학은 이 시대의 리더들과 함께 '돈이 아닌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자'는 뜻으로 새롭게 출범하는 인간개발연구원의 공익사업 브랜드이다. 이에 이번 송년 모임은 우리 사회 리더들인 본원 회원들과 함께

소외계층에게 꿈과 희망, 그리고 우리가 가진 지혜를 나누는 자리이자 멘토대학의 재정적 자립을 돕기 위한 마중물 콘서트 형식으로 열렸다. 이번 행사를 통해 각계에서 이어진 후원을 기반으로 멘토대학은 ▲ 대학생 멘토링 ▲ 청소년 멘토링 ▲ 다문화 저소득층 지원 ▲ 소년원 청소년 지원 ▲ 멘토링 아카데미 ▲ 인성교육 프로그램 등 각종 나눔사업을 전개해나갈 예정이다. 행사 후에도 우리 사회 리더 및 회원사들의 멘토 나눔, 강연나눔, 멘토플라워나눔, 지정기부 등을 통해 지속적인 나눔사업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한편, 방송을 통해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이홍렬 씨의 진행으로 푸짐한 경품이 참가자들에게 선물로 돌아갔으며, 김정택 SBS예술단장과 떠나는 음악여행이 오프닝공연으로, 강화자 단장이 지휘하는 베세토오페라단의 갈라 콘서트가 대미를 장식하는 등 다채로운 공연이 이어져 감동과 웃음을 선사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 김진현 대한민국역사박물관 건립위원장, 유상옥 코리아나화장품 회장, 송병락 서울대 명예교수, 김영환 국회의원, 정태익 전 러시아 대사, 조남철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총장, 임충빈 전 육군참모총장 등 본원 회원 및 강사진을 비롯한 사회 각계 리더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특히 이날 아름다운 피아노 선율로 많은 사랑을 받은 천재 꼬마작곡가 솔지(13세) 양에게 감동한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82세)이 든든한 후원자가 되기로 약속함으로써 멘토대학의 공식 멘토링 1호가 탄생하는 의미 있는 시간을 갖기도 했다.

송년의 밤이 끝나고 일주일 후, 본원으로 한 통의 편지가 날아왔다. 솔

지 양과 그의 어머니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보내온 편지였다. “할아버지 안녕하세요?”로 시작되는 편지에서 솔지 양은 “귀한 자리에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기분이 아주 짱 좋은 날이었어요. 저에게 이렇게 좋은 일이 있게 도와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리고 싶어요”라며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그리고 “부족한 저에게 큰 선물을 주신 총장 할아버지를 비롯해 모든 분들의 기대에 어긋나지 않도록 더욱더 겸손해지고 열심히 노력해서 꼭 훌륭한 사람이 되어 보답하겠습니다”라며 끝을 맺었다.

솔지의 어머니 또한 글을 통해 부족한 것이 많은 솔지에게 귀한 선물을 주신데 대해 거듭 감사의 뜻을 전하며, “솔지가 훌륭한 사람으로 잘 성장해서 사회와 이웃에게 더 많은 것으로 돌려드리며 공헌하는 멋진 사람이 되도록 최선을 다해 잘 키우겠다”고 전했다.

이에 TPT멘토대학에서도 이번 인연의 의미가 특별한 만큼 멘토링 1호로서의 지원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아래는 솔지 양이 학년 초에 썼던 ‘나의 꿈’이라는 글이다. 꼬마작곡가의 당찬 포부가 담겨있어 소개한다. **박솔지**

【나의 꿈】

박솔지



저의 꿈은 훌륭한 작곡가 겸 지휘자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 소리에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고 합니다. 울다가도 음악 소리만 들리면 울음을 멈추고 음악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모습이 참 신기했다고 우리 엄마는 가끔 말씀하십니다.

만 세 살부터 피아노를 놀이도구처럼 가지고 놀면서 엄마한테 피아노를 배웠는데, 너무 재미있고 소리 하나하나가 신기해서 하루 종일 피아노 옆을 떠나지 못하고 피아노와 놀았습니다. 피아노를 가지고 놀 때마다 머릿속에서 수많은 음표들이 춤을 추듯이 움직였고, 저는 그 음표들이 움직이는 모습을 피아노 연주로 표현했습니다.

그것을 신기하게 생각하신 우리 엄마는 만 다섯 살 때부터 저의 손을 잡고 제가 피아노로 치는 곡들을 노트에 옮기기 시작했는데, 이런 일이 소문이 나면서 초등학교 1학년 때 어떤 분의 제보로 SBS ‘세상에 이런 일이’ 프로에 ‘꼬마 작곡가’로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TV에 나오는 모습을 보고 여러 사람들이 저를 알아보는 것이 너무나 신기했어요. 저는 그때부터 작곡가가 되는 꿈을 꾸었습니다. 시간만 나면 피아노 연주와 작곡을 했어요. 노트에 악보가 그려지고 곡이 한 곡 두 곡 늘어날 때마다 신이 나고 뿌듯했어요. 길을 가다가도 밥을 먹다가도 수없이 떠오르는 곡들을 그림 그리듯이 노트에 옮기다 보니 800곡이 넘는 곡이 되었습니다.

저는 음악이 너무나 좋습니다. 음악이 없는 세상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저는 가끔 제가 작곡한 곡들이 세상을 가득 채우는 상상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제 곡을 듣고 행복해하는 꿈을 꾸지요. 제가 작곡한 곡을 듣고 많은 사람들이 꿈과 희망을 품기를 바라고 온 세상이 제가 작곡한 음악으로 평화로워지는 꿈을 꾸니다.

저는 이 꿈을 이루기 위해 매일 같이 피아노를 열심히 치며 멋진 곡이 떠오를 때마다 작곡을 합니다. 제가 훌륭한 작곡

가가 된 후에는 큰 오케스트라 지휘를 하고 싶습니다. 저는 가끔 오케스트라 같은 연주회를 감상할 기회가 있는데, 그 때마다 지휘자를 유심히 봅니다. 먼 훗날 그 자리에 제가 서 있는 상상을 하면서 말이죠. 꿈은 꿈꾸는 자만이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꿈을 이루기 위해 열심히 노력할 것이며, 제가 훌륭한 작곡가가 되어서 돈을 많이 번다면 아프리카 같이 가난한 나라에 음악학교를 지을 것입니다. 저는 TV 방송에서 가난한 나라의 어린이들이 나오면 관심 있게 봅니다. 제 또래의 친구들이 먹을 것을 걱정하며 어른들이나 하는 일을 힘겹게 하는 모습을 보면 얼마나 가슴이 아픈지 몰라요. 가난한 나라에 음악학교를 지어서 가난한 학생들에게 음악을 통해서 꿈과 희망을 주고 많은 사람들을 돕고 싶습니다.

저는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작지만 남을 돕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2학년 때부터 아프리카에 사는 친구 한 명을 후원하고 있는데, 이름은 까랑빌리 아와이고 저와 나이가 같은 여자 친구입니다. 처음 1년은 부모님이 절반을 도와주셨는데, 지금은 혼자 힘으로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 친구를 돕기 위해 음식 쓰레기 버리는 일도 하고 엄마 일을 돕고 받은 용돈과 친척들이 주시는 세뱃돈 같은 것을 쓰지 않고 친구를 돕기 위해 저축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을에서 가끔 열리는 알뜰장터에서 제가 안 쓰는 물건을 팔기도 합니다. 처음에는 조금 쑥스러웠지만 제가 번 돈이 좋은 일에 쓰일 때마다 얼마나 뿌듯한지 모릅니다.

저는 남을 돕는 일은 부자만 하는 것인 줄 알았는데 저같이 힘없는 사람도 할 수 있는 행복한 일임을 알았습니다. 저는 이다음에 내 친구 까랑빌리 아와이를 꼭 만나서 좋은 일을 함께하고 싶습니다. 저에게 이런 멋진 꿈이 있기 때문에 힘은 들지만 그 꿈을 이루기 위해 날마다 열심히 노력할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을 돕는 세계적인 작곡가, 지휘자 박솔지가 될 때까지 말이죠.

TPT멘토대학 마중물 콘서트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주신 회원 및 강사 여러분,
그리고 후원 및 협찬을 통해 풍성한 송년파티를 만들어주신 관계자 여러분께 지면을 빌어 감사의 인사를 전합니다.

소속	내용
공군본부(참모총장 성일환)	F-15K 전투기 모형 1점
광주요(회장 조태권)	클래식라인분청상감 수자문 다기 4세트
김미라 UCS Asset Consulting 대표	〈상속, 증여, 양도세이야기〉저서 200권
김익영 도예작가	도자기 1점
김효석아카데미(원장 김효석)	파워스피치 교육수강권 1매
농협중앙회 농업경제(대표 김수광)	한삼인 홍삼차 100박스
롯데호텔(대표 송용덕)	제주롯데호텔 숙박권
문화미디어그룹(회장 최세진)	〈이코노미컬처〉120권, 이슈포커스 100부
봄온커뮤니케이션(대표 성연미)	CEO미디어스피치 수강권 1매
손경식 한국서화원로연합회 회장	휘호 2점
양종관 남서울대 교수	고급손목시계 1점
에버그린MST(주)(사장 홍승국)	여성 패션손목시계 10점
우리안치과(원장 김병수)	VIP스케일링권 100매
원풍물산(주)(회장 이원기)	킨록앤더슨신사복 1착
이장규(주) 삼정KPMG 부회장	〈대통령의 경제학〉저서 3권
인간개발연구원(회장 장만기)	멘토플라워 상품권 2매
장충식 단국대 명예총장	〈그래도 강물은 흐른다〉전집 10세트
재능교육(사장 양병무)	2012년 수첩 200개
조순 前 경제부총리, 인간개발연구원 명예회장	휘호 1점
(주)동화세상에듀코(대표 김영철)	주5일 전화영어교육수강권 3매
(주)듀오(사장 이충희)	올랑 화장품 1세트, 솔2매
(주)무크투어(대표 최일묵)	제주왕복항공권
(주)미미월드(회장 이인규)	미미월드 완구 10세트
(주)신일팜글라스(사장 김석문)	도르만스 커피 50박스
(주)웰코스(회장 김상희)	웰코스 옛센스 150개
(주)유썸(회장 김영덕)	퀴즈노스 상품권 10매
(주)인산개(회장 김윤세)	죽염선물세트 5세트, 〈내안의의사를 깨워라〉저서 10권
(주)코리아나화장품(회장 유상옥)	달력 50부, 〈성취의 기쁨을 누리라〉 110권
중앙에프앤에스(주)(사장 이재욱)	구두상품권 2매
풋바란스(주)(대표 홍해근)	풋바란스 신발 2점
한국방송통신대학교(총장 조남철)	〈더 미라클〉도서 150권
한국웃음경영연구소(소장 이요셉)	신나게 웃을 수 있는 웃음 CD 200개
한영섭 (사)국제경영원 고문	루페니움식물처리기 1점
황선준 교육연구정보원 원장	〈금발여자 경상도 남자〉저서 5권
EBM통합의학센터(원장 허봉수)	유전체맞춤검진권 2매
가정문화원(이사장 두상달)	테이블 스폰
단국대학교(명예총장 장충식)	테이블 스폰
대한삼보연맹(회장 문종금)	테이블 스폰

소속	내용
동화세상에듀코(대표 김영철)	테이블 스폰
민들레영토(사장 지승룡)	테이블 스폰
삼익THK(주)(고문 심갑보)	테이블 스폰
새한신용정부(주)(회장 지광윤)	테이블 스폰
성부트레이딩(주)(사장 차진영)	테이블 스폰
세라젠헤스앤뷰티(사장 조서환)	테이블 스폰
알앤엘바이오(회장 라정찬)	테이블 스폰
(주)성도GL(사장 김상래)	테이블 스폰
(주)헤럴드(회장 조동호)	테이블 스폰
(주)KCTC(부회장 이윤수)	테이블 스폰
책글쓰기를 위한에세이클럽(회장 박춘봉)	테이블 스폰
한반도미래재단(이사장 구천서)	테이블 스폰
나경상사(주)(회장 이승우)	후원금 100만 원
대한노인회(회장 이심)	후원금 100만 원
쁘띠프랑스(회장 한홍섭)	후원금 100만 원
신원헬트(주)(회장 이용국)	후원금 100만 원
이종기업동우회 1그룹(회장 이윤수)	후원금 100만 원
이종기업동우회 3그룹 (화목회)(회장 황석희)	후원금 100만 원
인천국제공항공사(사장 이채욱)	후원금 100만 원
(주)다비육종(회장 윤희진)	후원금 100만 원
(주)덕성(부회장 이해성)	후원금 100만 원
(주)모간(회장 박성훈)	후원금 100만 원
(주)세스코(회장 전순표)	후원금 100만 원
(주)일삼(회장 정우철)	후원금 100만 원
(주)태창플랜트(회장 송언기)	후원금 30만 원
협운해운(주)(회장 마상근)	후원금 100만 원



강연 기부 프로젝트 '위(We)대한 토크'

헤민 스님과 이해인 수녀의 조금 특별한 선물
'감사하는 삶, 나누는 삶'

보통사람들의 꿈과 도전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는 강연 기부 프로젝트 '위대한 토크(we-talk)' 다섯 번째 무대가 지난 12월 17일 경희대 평화의 전당에서 열렸다. 새로운 패러다임의 기부강연인 '위톡'은 명사가 강연 기부를 하면 참가자들이 수감로 기부를 통해 저소득층 어린이들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이는 저소득층 가정의 아이들에게 복지와 교육, 건강 서비스를 지원해 공정한 삶의 출발을 돕고자 2005년 설립된 위스타트(We Start) 운동본부와 38년간 '인간개발'을 모토로 CEO들의 평생교육에 앞장서온 인간개발연구원이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고자 출범시킨 공익 사업 'TPT멘토대학'이 강연과 기부를 콘셉트로 뭉친 프로젝트이다. 특별히 이번 위톡은 경희대학교지구사회봉사단과 중앙일보, JTBC가 함께해 우리 사회 나눔의 문화 확산에 기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편집자 주

We-talk

대학생 및 일반시민 1,500여 명이 참석한 다섯 번째 위톡은 '힐링 멘토' 헤민 스님과 '한국의 마더 테레사' 이해인 수녀의 무대로 꾸며졌다.

헤민 스님은 하버드대 재학 중 출가해 현재 미국 햄프셔대 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이며, 지난 1월 출간한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올해 최고의 베스트셀러로 기록되는 등 국민 멘토, 마음 치유의 대명사로 잘 알려져 있다. 이해인 수녀는 2008년 대장암 판정을 받고 5년째 암 투병 중이다. 2009년 자신의 동시집 <엄마와 분꽃>에서 선별한 13편을 낭송해 녹음한 것이 최근 '이해인 수녀가 읽어주는 엄마와 분꽃'이라는 시낭송 음반으로 나와 반가움을 더했다. 문학과 영성으로 사람들의 각박한 마음을 위로해 온 두 멘토는 1시간 넘게 자리를 함께하며 근황, 고민 등을 청중들에게 털어냈다.

각박한 마음에 위로의 말 한마디

헤민 스님은 특유의 친근함과 부드러운 어투로 청중들을 위로했고, 이해인 수녀는 소녀의 심성으로 삶에 지친 이들에게 위로와 격려의 말을 전했다. 스님이 "SNS를 하는 많은 상담 중에 연애상담이 그렇게 많아요. 수녀님도 연애상담 많이 받으세요?"라고 묻자 이해인 수녀는 "난 연애 경험도 없는데 연애상담을 하는 사람이 많다"고 너스레를 떨었다. 이에 스님은 "딱히 고민 해결을 바

라기보다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울고 싶어서 그런 것 같다"고 받았다.

헤민 스님은 '사는 게 힘들다며 자살하고 싶다는 사람에게 어떤 상담을 해야 하느냐'는 질문을 통해 조언을 구하기도 했다. 이에 이해인 수녀는 "한 소녀에게 죽을 힘으로 부모 뉘까지 살아야 한다는 편지를 쓴 적이 있다"며 "진심 어린 위로의 말 한마디가 마음을 바꿔 줬다"고 자신의 경험담을 소개했다. 스님은 "살다 보면 어려운 때를 만나는데 그 순간이 영원할 것만 같은 숨막힘을 느낄 때가 있다"며 "이 또한 지나간다는 것을 잊지 말았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이해인 수녀가 "스님이 트위터에 올린 글 가운데 '부족한 나라고 해도 내가 나를 사랑해 주세요'라는 문구가 마음에 와 닿았어요. 약점 많은 나를 다독이는 것도 겸손의 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우쳤어요"라며 인사를 건네자 헤민 스님은 맑은 미소를 지으며 "저도 제가 쓴 글을 보면서 위로받을 때가 있습니다"라고 답했다. 트위터에 올린 글을 묶어 낸 에세이집 <멈추면, 비로소 보이는 것들>이 결국 자기 위안용으로 출발했다는 고백에 객석 여기저기서 웃음이 터졌다.

이해인 수녀는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는 사랑한다고 하면서 스스로를 너무나 미워하는 경우가 많다"며 "스스로에게 박수를 한 번 쳐주세요"라고 주문했다. 그리고 '사는 게 힘들다고 / 말한다고 해서 / 내가 행복하지 않다는 뜻은 / 아님니다'로 시작하는 자작시 '행복의 얼굴'을 낭송했다.

연말을 맞아 감사와 나눔을 주제로 한 이번 토크 콘서트에는 배우 강성연 씨와 재즈 피아니스트 김가은 씨 부부가 토크, 연주, 동화낭독 등을 재능 기부했으며, 가수 JK김동욱 씨의 공연이 이어져 나눔 메시지를 더하는 시간이 되었다.

청중들은 두 사람이 걸치레를 벗어던지고 내면의 고민을 솔직하게 털어놓는 모습에 크게 공감하는 모습이었다. 글로써 세상과 소통해온 두 사람의 육성 소통, 삶에 지친 이들을 어루만지는 위안의 토크를 펼친 것이다.



잠시 멈추고 나를 사랑하라, 상대를 이해하라

헤민 스님은 앞서 많은 사람들이 스님에게 털어놓는 고민 중 가장 자주 묻는 세 가지 질문에 대해 답하는 형식으로 강연을 펼쳤다.

첫 번째 질문은 '미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하죠?'였다. 스님은 이에 '나를 먼저 들여다보라'고 했다. "누군가 미워 보이는 사람이나 행동이 있을 때 그를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진실로 상대방을 이해하는 것이 안 된다면, 나를 먼저 들여다보세요. 자격지심, 혹은 열등감으로 푹푹 묻혀 남을 미워하고 있지는 않은지 돌아보세요. 상대방이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내 안에도 그와 비슷한 그 무엇인가 단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매일 아침 거울을 보고 다음 세 가지 주문을 외워 마음이 온화해지길 바란다고 했다. 나를 위한 세 가지 주문은 1.나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습니다 2.나라면 할 수 있어 3.나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지 않고, 나만의 빛깔로 세상을 밝힐 거야 등이다.

두 번째 질문은 '왜 스님은 멈추라고 하시나요? 왜 멈춰야 하나요?'였다. 이에 스님은 박찬호 선수와의 방송 촬영 중에 있었던 일화를 소개했다. "박찬호 선수가 제게 이런 말을 했어요, '저는 왜 스님이 멈추라고 하는지 그 의미를 알고 있습니다. 제가 경기 중 볼을 던질 때 제 마

음이 멈춰 있지 않으면 볼이 제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지를 않습니다. 제 마음속에 여러 가지 복잡한 생각이 있으면 절대 제가 원하는 대로 볼을 던질 수가 없습니다.' 미래에 대한 걱정, 과거에 대한 생각 등 다른 것들을 보지 않고 내가 현재 상황에서 해야 할 것에 온전히 투자할 때 잘 던질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렇듯 우리의 마음이 현재에 있지 않으면 더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생각을 멈추는 '멈춤의 힘'입니다. 멈춤이라는 것은 가만히 서서 나를 들여다보는 것입니다. 생각이 많다고 해서 창조적인 생각이 나오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세 번째 질문은 '스님은 나를 사랑하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나를 사랑할 수 있나요?'였다. 이에 대해 스님은 "우리의 마음속에 나의 말보다 남의 말이 너무 많지는 않은가요?"라며 되물었다. 이어서 "살다 보면 나의 생각이나 말보다 다른 사람의 말과 생각, 기대나 평가요구에 부합하기 위해 살아가고 있을 때가 많습니다. 이럴 때는 의도적으로 시간을 떼어내 멈추고, 내 몸과 마음이 뭐라고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혼자만의 시간을 보내는 것이 중요하며, 혼자 생각을 해나가면 나의 무의식이 길을 가르쳐 줍니다"라며 누군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 자신이 바로 나의 삶의 주인이 되는 것이야말로 진정 나를 사랑하는 일임을 강조했다.

헤민 스님은 마지막으로 가정 형편이 어려워 굶주리는 빈곤 아동들에 대한 관심을 당부했다.

"우리나라에 빈곤 아동이 100만 명이 넘는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해외에서 봉사활동도 많이 하지만 우리 아이들을 너무 방치하는 게 아닌가 하는 속상한 마음도 들었어요. 이들을 돕는 여러분의 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손입니다. 시작만큼은 같은 선에서 출발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여러분의 정성이 모여서 우리나라의 빈곤 아동들이 용기와 희망을 얻을 수 있습니다." **김민재**



우리가 다음 세대에게 남겨야 할 유산은?

인간개발연구원은 이 시대의 리더들과 함께 돈이 아닌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고 싶습니다!**

갖추어진 조건이 아닌 온갖 역경을 이겨나가는 리더의 정신을 다음 세대에게 진솔하게 담아내는 대화의 공간.

여러분들의 지혜나눔으로 건강한 가치들이 살아 숨쉬는 좋은 세상을 만들어가겠습니다.

TPT 멘토대학은...

인생을 통해, 경영을 통해 깨달은 지혜를 다음 세대에게 어떻게 전수하면 좋을까요? CEO 여러분들과 함께 인간개발연구원이 보유한 명사특강 사업의 노하우를 활용하여 위대한 나눔 프로젝트를 시작합니다. 멘토대학은 강연과 멘토링의 나눔으로 이 시대를 이끌어 가는 리더들의 지혜를 사회적으로 공유하고자 합니다.

TPT 멘토대학 참여는...

- CEO(창업자/전문경영인)
- 공직자 및 행정전문가
- 신문, 방송 등 언론인
- 총장, 교수 등 교육계 인사
- 판·검사, 의사 등 전문직업인
- 트렌드, 마케팅 전문가
- PD, 영화감독, 광고인, 방송인 등 영상예술인
- 작가, 음악가, 디자이너 등 문화예술인
- 운동선수, 산악인, 스포츠 전문가
- 기타 오피니언 리더들의 참여를 기다립니다.

TPT 멘토대학 나눔사업은...

아름다운 리더들의 나눔을 통해 다음 세대에게 돈이 아닌 지혜를 유산으로 남깁니다.

강연나눔

기업·기관 강연나눔 - 강연기부사업을 펼쳐갈 모체를 만들어주세요.

연구원의 다양한 협력기관 중 필요한 곳에 강연해주시고, 강사비를 기부약정해주시면 지혜나눔사업의 인적구성과 재단형성의 모체로 사용되어집니다.

학교 강연나눔 - 다시 학생이 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으세요?

진학과 취업을 뛰어넘는 인생선배로서의 조언이 학생들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학생들을 위한 강연을 기부해주세요. 이미 전국 주요 지자체와 함께 중고교, 대학 등 순회강연을 개설해 미래의 리더를 키우고 있으며, 앞으로 전국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창업콘서트 강연나눔 - 위기를 창업의 기회로 만드는 마술사

풍부한 창업 노하우를 가진 분야별 CEO들의 시리즈 강의로 기업가 정신을 키우고, 은퇴자와 젊은 세대들이 자신에게 맞는 창업 노하우를 찾아가는데 등대지기 역할을 합니다.

NGO 강연나눔 - 강연만으로도 나눔을 실천할 수 있습니다.

위스타트와 함께하는 '위(we)대한토크' 등 다양한 NGO기관과의 강연나눔 특강 제휴사업으로 리더들의 지혜를 나누는 강연 기부문화를 활성화시키겠습니다.

강연 동영상서비스 - 온라인과 스마트폰에서 만나는 리더들의 아름다운 나눔문화

기부해주시는 강연은 동영상으로 제작되어 온라인 및 스마트폰을 통해 미래의 리더, 멘티들에게 서비스됩니다. 보다 많은 사람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진정한 나눔의 의미를 전파하고자 합니다.

멘토링나눔

■ 대학생 멘토링 아카데미

네가 만약 해매일 때면... 내가 멘토가 되리!

- 인간개발연구원 회원 CEO들이 대학생들의 멘토가 되어 기업 초청과 함께 온오프라인에서 대화의 시간을 가지며 인생의 지혜를 공유하겠습니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초찬세미나를 활용하여 대학생 멘티를 1년간 기수별로 운영합니다.
- 대학생 멘티들은 기수별로 활동보고서를 통해 멘토링 제도의 유익함을 알립니다.
- 소외계층과 일반대학생이 한 기수가 되어 네트워크를 만들고 CEO들이 함께하여 작은 사회적 소통을 키워가겠습니다.

■ 청소년 멘토링&인성교육

미래의 인재, 청소년들의 인생에 등불을 밝힙니다.

학교 강연나눔을 통해 만난 전국 청소년들과 멘토링을 맺고, 사회에 대한 고민을 나눕니다. 영역별 전문가들과 함께 청소년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소년원 등 필요한 곳에 후원합니다.

멘토플라워나눔

멘토플라워 꽃배달 서비스로 기부해 주세요

회원사가 멘토플라워를 이용하면 수익의 10%가 멘토대학에 기부됩니다.

평소 이용하시는 꽃배달 서비스를 멘토플라워를 통해 주문해보세요. 스마트한 주문부터 도착한 모든 꽃을 도착 현장 사진으로 확인해주는 화훼유통의 혁명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착한 꽃 '플라워팀'과의 제휴로 기업에도 도움을 드리는 멘토플라워, 더불어 멘토대학의 재정을 돕는 일거양득의 나눔활동입니다.

<http://mentorflower.org>에서 이용 가능합니다.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아름다운 리더들!
나눔회원이 되어 주세요

나누는 사람들

성명(단체명) _____
회사명 _____
직장전화 _____
핸드폰 _____
이메일 _____

주민등록번호 _____
부서/직위 _____
직장팩스 _____
주소 _____

서울시 강남구 대치동 966-4 동성빌딩 202호 인간개발연구원
T. 02-2203-3500 F. 02-2203-1974 E-mail : sy7079@naver.com

나눔회원 신청

지혜를 유산으로 남기는 아름다운 리더들,
나눔의 방식을 선택해 주세요.



멘토링나눔 회원

대학생 멘토링 아카데미의 멘토로 ☐ 1년간 ☐ 2년간
☐ 기타 _____ 년간 활동하겠습니다.

멘토플라워나눔 회원

멘토플라워에 가입하고 꽃배달 이용에 따른 적립금 10%를
멘토대학에 후원하겠습니다.

- 회사명 _____
- 담당자 연락처 _____

강연나눔 회원

- 인간개발연구원 초청강연료의 ☐ 10% ☐ 20%
☐ 기타 _____ %를 기부하겠습니다.
- 인간개발연구원 초청강연에 ☐ 1회 ☐ 2회 ☐ 기타
회의 강연을 기부하겠습니다.

정기후원 회원

- 매월 ☐ 1만 원 ☐ 2만 원 ☐ 3만 원 ☐ 5만 원 ☐ 10만 원
☐ 20만 원 ☐ 기타 _____ 원을 기부하겠습니다.
 - 매월 ☐ 5일 ☐ 15일 ☐ 25일 CMS 자동이체 하겠습니다.
- 은행명 _____ 계좌번호 _____
예금주 _____

지정기부 회원

후원계좌로 _____ 을 기부하겠습니다.
입금일자 :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입금처 : 국민은행 381-01-0050-244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기부금은 멘토대학 운영을 위한 소중한 마중물로 사용됩니다.

* 인간개발연구원은 지정기부금 대상 단체입니다.

* 후원금은 연말정산 시 소득공제혜택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20 _____ 년 _____ 월 _____ 일

성명 : _____ 서명 : _____

글로벌 불황대비 특별교육

영업마케팅 능력향상 과정 2기 수료

글로벌 불황의 시대, 기업의 영업 전략을 어떻게 세우느냐에 따라 그 기업 성과는 달라지기 마련이다. 아무리 좋은 제품이라도 영업마케팅에 관한 전략이 없다면 결코 좋은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 이에 본원에서 글로벌 불황기를 극복하기 위해 마련한 영업마케팅 능력향상 과정이 2기를 운영해 총 12명의 교육생이 수료했다.

영업과 마케팅 융합논문으로 잘 알려진 김덕희 본원 상임이사가 주재한 본 과정은 지난 11월 14~16일까지 총 3일간 20시간의 교육으로 진행되었으며, 롯데호텔, 동화세상에듀코, 가스파워, 화성항공물류, 명암산채영농조합법인 등에서 참여했다.

왜 융합인가?

김덕희 이사는 '왜 융합이 화두인가?'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으로 첫날 강의를 시작했다. 시장과 고객 환경의 트렌드를 짚어주면서 1.0시대에는 제품, 2.0시대에는 소비자의 감성, 3.0시대에는 가치, 4.0시대에는 따뜻하고 차별화된 가치로 흐름

이 변화하고 있음을 상기시켜 주었다. 강의 중간 중간에는 유명 비즈니스맨, 세일즈 마케팅 대가들의 일화를 들려줌으로써 교육생들에게 많은 시사점을 던져 주기도 했다.

첫날 교육은 마케팅의 종류와 각각의 기업에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을 소개하는 것으로 진행되었다. 그리고 기업 전략을 작성하는 SWOT 분석을 해보고, 오후에는 발표와 함께 김 이사의 코칭시간이 이어졌다.

제주 롯데호텔에서 영업을 담당하고 있는 최정규 지배인은 SWOT 분석에서 제주 롯데호텔은 주변 호텔들에 비해 가격이 높다는 것이 고민이며, 그 대안으로 롯데호텔그룹은 제주시에 저가 비즈니스호텔을 건설 중이라고 밝혔다. 동화세상에듀코의 박상연 지부장 역시 에듀코가 타사 대비 가격이 높다는 점, 낮은 교재, 대입시험 정책이 수시로 변화한다는 점을 약점으로 들었다. 이에 따른 대안으로 회사는 차별화된 맞춤식 관리, 비즈별 맞춤교육, 교사 직접선택 등으로 고품질을 강조하면서도 신용과 관계를 지속하는 정책을 내놓고 있다고 분석했다. 명암산채영농조합법인의 박상민 이사는 통참깨 등을 판매하고 있는데, 원재료의 차별화로 외국 참깨분을 쓰지 않고 국산 통참깨를 쓰고 있다며, 원가가 6배 정도 차이가 나기 때문에 고품질화, 별도 타깃을 정해 마케팅을 하고 있지만 아직 많은 시행착오를 겪고 있다고 했다.



고객접점 15초가 승부를 가른다



2일 차 교육에서는 고객 상담기법을 주로 다루었다. 김 이사는 스칸디나비아항공의 MOT 전략의 성공 일화를 예로 들면서 MOT의 중요성을 언급했다. MOT란 Moment Of Truth의 약자로 고객 접점의 15초에 만전을 기하면 성공할 수 있다는 이론이다.

1970년대 말 일어난 오일쇼크로 인해 2년 연속 적자를 기록한 회사에 1981년 39세의 나이로 사장에 취임한 알 칼슨은 부임하자마자 “직원들이 처음 고객을 만나는 15초 동안이 진실의 순간이며, 그 15초 동안에 고객을 평생 단골로 잡느냐 원수로 만드느냐가 결정된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고객이 예약문의 전화를 하고, 공항카운터를 방문하고, 티켓을 받은 후 탑

승하고, 기내서비스를 받고, 공항을 빠져나오는 등의 모든 순간에 고객이 항공사와 함께 있다는 기분을 느낄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위기로부터 회사를 살릴 수 있었다.

이후 김 이사는 가망고객을 사로잡는 감성적 고객 상담기법, 수용하는 고객의 대처 전략, 무관심 극복 스킬, 기각고객 대처 스킬 등에 관한 내용을 들려주면서 중간 중간에 설득의 대가인 스티어트 다이아몬드 교수의 일화, 웅진그룹 윤석금 회장의 일화도 소개했다. 강의내용과 관련한 추천도서로는 <실행이 답이다>, <무지개 원리> 등을 소개해 교육생들에게 일독을 권했다.

오후 시간에는 소그룹을 만들어 고객 상담과 관련해 실습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론만 듣는 것이 아니라 바로 실습하면서 피드백을 받는 방식이라 교육생들의 체득 속도가 상당히 빠르게 느껴졌다.

Win-Win의 협상을 이끌어라

마지막 날인 3일 차 교육에서는 협상기법에 대한 강의가 진행되었다. 김 이사는 서로가 반반씩 양보하는 것은 결코 협상이 아니라며 Win-Win을 강조했다. 협상의 적절한 시기로는 고객 상담 시작, 고객 니즈 파악, 고객 만족, 이견도출 등의 단계 중에서 이견도출 때가 가장 적절하다고 했다. 판매자가 의도한 대로 따라오면 좋겠지만 고객이 다른 요구를 했을 때가 바로 협상의 시기라는 것이다.

협상용어로는 BATNA(최선의 대안),



ZOPA(합의가능영역), Reservation(유보가격), 가치창출(거래를 통하여) 등이 있는데, 김 이사는 이에 대한 예시를 들어 상황별 적용법을 짚어주기도 했다.

협상 중간에는 언제나 다른 변수들이 존재하는데, 방해꾼이 나타날 수도 있다. 고객의 친구라는 사람이 와서는 ‘어? 이것보다 다른 제품이 좋지 않나?’ 하는 등 아무 생각 없는 방해 공작들이 오갈 수 있다. 이럴 때는 그 사람을 내 편으로 만드는데 힘써야 하며, 그 일화와 세부 스킬을 알려주었다. 오후 시간에는 조를 나누어 직접 협상테이블에 앉아 고객과 판매자, 그리고 옵저버로 나누어 상황별 실습을 진행하였다.

강의를 마친 후 진행된 수료식에서 가스파워의 전상용 대리는 “춘철살인이라는 말이 딱 맞는 것 같다. 박사님이 알려주시는 강의 내용은 어느 영업현장에서도 바로 써먹을 수 있는 핵심이 너무나 많이 들어있다. 지금 체화시킨 영업 전략을 실무에 바로 적용해 볼 생각”이라고 했다. 롯데호텔 최정규 지배인은 “학교에서 경영공부를 했지만 현업에 들어가면서 한참을 잊고 지냈던 것 같다. 경영학 박사님이 알려주는 영업과 마케팅의 융합강의는 어디에서도 들을 수 없는 실전강의인 것 같다. 테크닉을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핵심 원리를 알려줘서 활용가치가 더 크다고 생각한다”고 소감을 밝혔다.

3일간의 교육을 마치고 수료한 교육생들은 그 내용을 실전에서 활용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별도 모임을 만들어 지속적인 만남을 갖기로 했다. 또한 연구원은 향후 다양한 직군, 직능, 직급별 교육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고 전개해 나갈 예정이다. 참여해주신 교육생들에게 감사드린다. KPM



[회원 소식]

■ **(주)웰코스(회장 김상희)**는 10월 10일 여의도 웰코스 본사에서 창립 26주년 기념식을 개최했다. 웰코스는 지난 1986년 10월 10일 '현대화장품공업사'로 시작해 미용 업계 최초로 '헤어 스트레이트 크림'을 출시했고, 1996년 업계 최초로 '과일나라 코 전용팩'을 히트시키면서 화장품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으로 자리매김했다. 이날 창립기념식에서는 우수사원 및 장기근속자 표창식도 함께 가졌다.



■ **동화세상 에듀코(대표이사 김영철)**가 지난 10월 19일 미래지식경영원이 주최하는 지식경영인 최우수기업 시상식에서 대상을 수상했다. 지식경영인대상은 국제적인 경영시스템을 구축하고 글로벌 고객 만족을 추구하는 선도 기업 및 단체에 주어지는 시상으로, 에듀코는 새로운 기업가치 및 문화 창출을 통해 국가 경쟁력 강화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받아 교육서비스산업 부문 지식경영인대상을 수상했다. 한편 김영철 대표는 중소기업청과 중소기업중앙회가 주관하는 '2012년 11월의 자랑스러운 중소기업인'으로 선정되는 기쁨까지 누렸다. 김영철 대표는 1995년 회사를 창립, 국내 최초로 코칭 홈스쿨, 코칭 학습지 개념을 도입해 성공을 거두었으며, 기업교육 및 E&F 영어전문학원 사업에 진출해 프랜차이즈를 전국 890개로 확대하는 등 매출액 600억 원을 달성했다.



■ **썸리코리아대표이사 윤종호**는 10월 22일 서울 순화동 웅진코웨이 본사에서 제품 개발과 생산, 유통, 판매 등 전 과정에서 협력하기로 하는 협약식을 가졌다. 앞으로 썸리코리아와 웅진코웨이는 각 사의 역할을 기반으로, 썸리코리아는 프리미엄급 침대의 개발 및 생산의 역할을, 웅진코웨이는 판매 및 유통, 위생관리 서비스를 진행해 양사의 경쟁력을 함께 높일 계획이다.

■ **(주)동서식품(감사 김학수)**은 '제11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을 기념하고 문학상 참가자들의 성원에 보답하고자 10월 25~26일, 1박 2일 일정으로 문학기행을 다녀왔다. 이번 문학기행에는 '제11회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운영위원장으로 활약하고 있는 김홍신 작가가 동행해 일반인 참가자들과 함께 제주 문학에 대해 공유하는 시간을 가졌다. 앞으로도 동서식품은 삶의 향기 동서문학상, 동서커피클래스, 사랑의 향기 등 고객들



과 함께 삶의 향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문화 활동을 지속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 **KB금융지주(회장 어윤대)**는 10월 30일 거동이 불편한 소외 계층을 위해 전국 사회복지시설 51곳에 장애인 리프트 차량과 승합차, 승용차 등 복지차량 51대를 전달하는 행사를 가졌다.

■ **인천외고(교장 강인수)**는 11월 5일 독도는 한국 땅이라고 주장하는 호사카 유지 세종대 교수를 초청, '역사적 사실로 본 독도'란 주제의 특강을 가졌다. 호사카 유지 교수는 세종대 독도종합연구소장과 일본 어과 교수를 겸하고 있으며, 근현대 한일관계, 독도 영유권 문제 분야의 전문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날 강의는 '학생, 학부모, 교사가 함께하는 아카데미'의 하나로 마련되어 1천여 명이 참석했다.

■ **대한삼보연맹(회장 문종금)**은 11월 7일 벨라루스의 수도 민스크시 유빌레이나야호텔에서 열린 제24회 세계삼보연맹(FIAS) 총회에서 2014년 주니어 세계삼보선수권대회의 서울 유치를 확정했다. 한국은 총회에서 과반 표를 얻어 카자흐스탄, 불가리아, 그리스 등 경쟁국들을 여유 있게 제치고 대회 유치에 성공했으며, 이로써 세계삼보선수권대회를 최초로 한국에서 개최하는 성과를 올렸다. 대회 일정은 2014년 10월 7일부터 11일까지다.

■ **에쁘고 갤러리(대표 김희정)**는 11월 7일부터 27일까지 기획전시 '마주보다'를 개최했다. 일상에서 마주하는 관계를 표현한 이번 전시는 이순구, 조장은, 최윤정 작가가 참여해 총 20여 점의 작품을 선보였다.



■ **마상곤 협운해운(주) 회장**은 11월 12일 모교인 한국해양대학교에 발전기금 5억 원을 전달했다. 항해학과 16기인 마 회장은 2006년 5억 원의 마상곤연구 장학기금을 조성한 바 있으며, 지난 개교기념식 때도 1천만 원의 대학발전기금을 내놓는 등 지금까지 모두 11억 1천 700만 원의 장학금 및 발전기금을 모교에 회사했다.



■ **조인스HR(대표 가재산, 양병만)**은 11월 14일 한국과학기술회관 국제회의실에서 '제46회 조인스HR 추계세미나'를 개최했다. '불황극복을 위한 HR의 도전과 과제'를 주제로 진행된 금번 세미나는 가재산 조인스HR 대표, 이지평 LG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이금룡 코글로닷

컴 회장 등이 강사로 나서 불황을 극복하기 위한 인사관리에 대한 강연을 진행했다.

■ **(주)성도솔루원(대표이사 김상래)**은 11월 17부터 20일까지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한국국제사인·디자인전(KOSIGN 2011)'에 참가해 디스플레이용 소재 'Re-board'를 전시했다. Re-board는 디스플레이, POP, 건축자재를 대체하는 신소재로 가볍고 단단하며 사용자 편의와 고객 요구를 반영하는 확장성을 보장한다. 이 제품은 스웨덴에서 제작된 FSC 인증의 100% 친환경 소재로 재사용과 리사이클이 가능하며, 다양하고 유니크한 디자인 표현이 가능하다.

■ **이정훈 HUMUS 대표이사**는 환경아카데미의 경영강좌 '기업 성과를 위한 RISK 경영관리 고급과정'에서 임성준 HUMUS 대표, Ryan Kim RDK Partners LLC 대표와 함께 강연을 펼쳤다. 본 강연은 11월 15, 16일 이틀 동안 12시간 과정으로 진행되었으며, 외환 RISK의 정의 및 대비전략, RISK 측정 및 공식화 정책에 대한 내용으로 구성되었다.

■ **IBK기업은행(행장 조준희)**은 11월 17~18일 양일간 저소득층 및 다문화가정 자녀 등을 초청해 충남 태안군 소재 태안해안국립공원에서 '생태체험캠프'를 실시했다. 이번 캠프에는 저소득층, 다문화가정의 자녀 43명과 이들의 멘토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 근로자 자녀 47명 등 100여 명이 참가해 철새탐조와 갯벌체험, 노을길 산책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 국립공원의 아름다움을 체험했다.



■ **(주)에스씨엘(회장 이상춘)**은 11월 24일 사랑의 김장김치 나눔 행사를 가졌다. 올해로 8년째를 맞는 이번 행사는 에스씨엘 임직원 30여 명이 참여해 120포기의 김장을 담아 독거노인 20가구에 전달하며 따뜻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또한 이상춘 회장은 상록수 재단을 설립해 인재양성에 주력하는 등 활발한 사회공헌 활동을 펼치고 있다.



■ **삼익THK(주)고문 심갑보**는 11월 20일 대구문화재단과 함께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약식'을 갖고 기업과 문화예술의 상생을 위해 서로 협력하기로 했다. 이번 협약은 기업과 문화예술의 동반성장을 위한 협력, 예술



에 대한 기업의 지원 및 참여 확대, 대구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환경조성이 주요 내용으로 이번 협약을 통해 삼익THK는 대구문화재단과 함께 다양한 문화메세나운동 및 기업문화지원 사업을 개발해 추진할 계획이다.

■ **한국방송통신대(총장 조남철)**는 11월 21일 구미시 남동동에서 '구미시 학습관' 신축 개관식을 가졌다. 지상 2층, 연면적 989㎡(약 299평)인 구미시 학습관은 행정·도서관, 전산실습실, 학생회실, 강의실 등이 들어섰으며 총 22억 원을 투입해 완공했다.

■ **한국마사회(회장 장태평)**는 11월 22일 경기도 가평군 상천 초등학교에서 '찾아가는 승마교실'을 개최했다. '찾아가는 승마교실'은 어린이 승마체험 기회 확대를 통해 승마 대중화를 도모하고, 미래 승마 수요 창출을 위해 매년 상·하반기로 나눠 시행되며, KRA 기마대 및 승마교육원 교관 7명이 농촌·벽지 초등학교를 방문해 승마 교육을 진행한다.

■ **인천공항공사(사장 이채욱)**는 인천시와 함께 반도체 패키징 업체인 스태츠칩팩코리아(STATS ChipPAC KOREA)와 인천공항 배후 자유무역지역 내 최초의 생산시설 건립을 위한 MOU를 체결했다. 지난 11월 19일에 열린 체결식에는 인천공항공사 이채욱 사장과 스태츠칩팩코리아 맹상진 사장을 비롯해 송영길 인천시장, 서울지방항공청청장과 인천공항세관장 등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했으며, 스태츠칩팩코리아는 2015년 하반기부터 자유무역지역 2단계 물류단지 내에 약 9만 5천㎡(약 3만 평) 규모의 생산시설을 갖추고 본격 가동에 들어갈 예정이다.



■ **허봉수 EBM 통합의학센터 원장**은 11월 24~30일 전라남도 장흥군에서 개최되는 2012 대한민국 통합의학 박람회에서 '밥으로 병을 고친다'는 주제로 강연을 진행했다.



■ **라정찬 알앤엘바이오 회장**이 세계 3대 인명사전 가운데 하나인 '마르퀴스 후즈후(Marquis Who's Who)' 2013년도 판에 등재된다. 마르퀴스 후즈후는 세계 215개 국가를 대상으로 정치·경제·과학·예술 등 각 분야에서 세계적으로 우수한 업적을 남긴 인물을 선정,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는 인명사전으로 라정찬 박사는 세계 최초 지방줄기세포 계대 배양 공정 기술 개발의 성과를 인정받아 선정되었다.



■ **세스코(회장 전순표)**는 누구나 재미있게 실행 가능한 '해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를 개발했다. '해충 자가진단 체크리스트'는 해충에 대한 관심이 저조하거나 잘 알지 못해 방치하고 있는 이들에게 해충의 위험성 및 위생관리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자 제작되었으며, 총 16개 문항으로 관심, 주의, 경고, 위험 등의 진단 결과가 바로 도출될 수 있도록 설계되어 각 결과에 대한 간단한 분석도 첨부되어 있다. 무료진단 서비스는 세스코 홈페이지 또는 1588-1119를 통해 신청 가능하다.



■ **엠베서더호텔그룹(회장 서정호)**은 대한적십자사의 4대 취약계층 지원 사업 '희망풍차'에 1억 1천만 원을 후원했다. 희망풍차는 대한적십자사가 지난달 출범시킨 4대 취약계층(노인, 아동, 다문화가정, 북한 이주민) 지원 사업으로 이번 후원을 통해 서정호 회장에게는 적십자 회원유공장 중 두 번째 훈격에 해당하는 명예대장이 수여되었다.



■ **한일시멘트(대표이사 허기호)** 단양공장은 12월 6일 충북 단양군의 매포초등학교와 매포중학교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전달했다. 이날 전달식에서 한일시멘트는 매포초등학교 학생 20명과 매포중학생 10명에게 장학금 총 550만 원을 전달하고 격려했다. 한편 한일시멘트는 1995년부터 매년 기업과 지역이 상생하고 함께 발전하며 미래 지역사회의 주축이 될 모범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원해왔으며, 올해까지 모두 320명에게 5천여만 원의 장학금을 전달했다.



■ **한화케미칼(대표이사부회장 홍기준)** 여수공장은 50여 명의 임직원들과 함께 12월 12일 여수시 학동 노인복지관 마당에서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김장 대축제'를 열었다. 이날 행사에서 담은 김장 김치는 여수 노인복지관과 소외계층 이웃, 희망밥차, 다문화 가정 100세대에 나누어 전달했다. 한편 한화케미칼 여수공장은 16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소외계층에게 신토불이 친환경 농산물로 사랑의 릴레이 김장나누기를 매년 펼쳐오고 있다.

■ **한국전지산업협회(부회장 최갑홍)**는 코트라(KOTRA)와 공동으로 '제4회 일본국제전지전시회'에 한국관을 운영하고 중소기업의 해외마케팅을 지원한다. 2013년 2월 27일부터 3월 1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

트에서 열리는 이번 전시회는 일차전지, 이차전지, 팩, 부품소재, 전지제조설비, 시험장비 등을 소개할 예정이며, 한국관에 10개 업체를 모집해 신규 바이어 발굴, 기업 홍보, 해외시장 개척 등의 마케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 **광주요(회장 조태권)**는 12월 31일까지 광주요 서울 청담점과 부산점에서 '제1회 광주요 작가 초대전'을 개최했다. 이번 초대전은 11월 경기도 이천 광주요 장작가마에서 만들어진 신진 도예가 5명의 166점 작품을 대중에게 소개하고 구매할 수 있는 자리로 김대용 작가, 김상기 작가, 김영수 작가의 작품이 전시됐다.



[신규회원]

■ 김이섭 명지대 객원교수(개인회원)

김이섭 교수는 연세대 독어독문학과를 졸업하고 독일 하이델베르크 대학교에서 독어독문학 석사 학위를, 자르브뤼켄 대학교에서 박사 학위를 취득하였다. 현재 명지대학교 객원교수직을 역임하고 있으며, 한국하인리히비탈학회 부회장, 한국투명성기구 정책위원, 좋은 사법세상 이사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남가좌동 50-3 명지대 방목기초교육대학

● **전화:** 02-300-1864

● **추천인:** 김덕희 인간개발연구원 상임이사

■ 백영진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부회장(개인회원)

명성일 (사)한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전무(개인회원)

백영진 前 한국아쿠르트 고문이 한 국종이팩자원순환협회 부회장으로 자리를 옮겨 명성일 전무와 함께 회원에 재가입했다. 협회는 2003년 자원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환경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비영리 사단법인으로 종이팩 재활용의무생산자의 재활용 의무 이행 및 재활용 사업을 추진해 자원 절약과 환경 보존을 위해 설립되었다.



-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방배3동 1031-1
- 전화 : 02-584-1974~5
- 홈페이지 : www.pack.or.kr

- 이인규 (주)미미월드 대표이사
- 손승한 (주)한은 회장
(입금순)

[자녀분의 결혼을 축하합니다]

- 방기봉 빌드윈 회장의 장남 준배 군의 결혼식이 지난 12월 8일(토) 용산전 쟁기념관 뮤지엄웨딩홀 평화홀에서 있었습니다. 결혼을 축하드립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 이영관 도레이첨단소재 사장의 모친께서 2012년 11월 5일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 최갑홍 한국전지산업협회 상근부회장의 모친께서 12월 6일(목) 오후 노환으로 별세하셨습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기원 드립니다.

[창립기념일을 축하합니다]

회사명	이름/직함	창립기념일
주식회사유셈	김영덕 회장	1월 1일
(주)건축디자인연구소 빌드윈	방기봉 회장	1월 8일
대성에너지	박봉규 사장	1월 10일
(주)실버텍스	정만우 대표	1월 21일
세종고등학교	최신옥 이사장	1월 22일
나경상사(주)	이승우 회장	1월 23일
청미원(주)	윤동노 대표이사	1월 25일
조인스HR	가재산, 양병만 대표이사	2월 1일
Location portrait	오경근 대표	2월 7일
인천국제공항공사	이재욱 사장	2월 22일

[연회비 납부에 감사드립니다(2012년 11~12월)]

- 개인회원
 - 배승호 (주)지케이21 회장
 - 한철웅 서호 회장
 - 이경숙 동양생명 FC
 - 방기봉 (주)빌드윈 회장
 - 최동현 유텍스세무회계 대표
 - 김성규 인곡산업 대표이사

[소모임 소식]

- 이종1그룹(회장 이윤수 / 총무 고지석)은 11월 26일 오후 6시 30분 교대역 부근 '설국'에서 정기 모임을 갖고 회원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테이블모임(좌장 김동철 / 총무 이재욱)은 12월 4일 오후 12시 로얄호텔 21층 '스모가스'에서 친목 오찬 시간을 갖고 회원 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회장 박춘봉 / 총무 정지환)은 12월 10일 '글쓰기'라는 주제로 함께한 2012년 한해를 되돌아보고, 2013년 새 구상을 이야기하는 송년모임을 가졌다. 특히 이날 모임에서는 1년간 회장으로서 모임을 이끌어왔던 박춘봉 회장을 대신해 **2013년 신임회장으로 정문호 동국산업 부회장**을 선임하고 아·취임식을 가졌다. 정 신임회장은 취임사에서 '글쓰기'를 화두로 모인 회원들의 습작 활동을 돕기 위한 다양한 모임을 전개하고, 더욱 활발한 회원 교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연구원 소식]

- 본원에서는 11월 17일 (주)인산가의 김윤세 회장을 방문하는 '찾아가는 CEO교실'을 개최했다. 회원들은 전통방식의 죽염제조공정 견학 및 김윤세 회장의 경영철학 강의, 내 몸의 의사를 깨워보는 힐링 프로그램 체험하는 시간을 가지는 한편 향암 지리산 일대를 둘러보는 그린투어로 알찬 시간을 보냈다.
- 본원은 12월 13일 코엑스 그랜드볼룸에서 소외계층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 지혜를 나누는 '2012 KHDi 송년의 밤, 세상을 나누는 선물 TPT멘토대학 마중물 콘서트'를 개최했다. 회원사를 비롯해 각계 리더 300여 명이 참석한 송년의 밤은 개그맨 이홍렬 씨의 사회로 SBS김정택예술단장과 함께하는 음악여행, 꼬마작곡가 솔지의 피아노 연주, 베세토 오페라단의 갈라콘서트 등이 펼쳐졌으며, 각계에서 협찬해준 다양한 경품이 참가자들에게 큰 기쁨으로 돌아가 풍성한 송년의 밤을 만들었다.

한파와 대선에도 끊임없는 평생학습 열기

[교육컨설팅 소식]

- 한파와 대선의 영향 속에서도 전국 60여 지자체에서
11~12월 110여 회 진행



제18대 대통령 선거와 기록적인 한파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아카데미는 풍성하게 운영되었다. 11월 5일 용인시청에서는 세종대 호사카 유지 교수를 모시고 최근 큰 이슈가 되었던 독도 영유권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알아보고 미래를 전망해보는 시간을 가졌다. 11월 8일 부천에서는 점진강사인 김용택 시인과 함께 자연과 더불어 살아가는 삶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고, 같은 날 평창에서는 KBS 9시뉴스의 진행자 김은성 아나운서를 모시고 마음을 사로잡는 스피치 스킬에 대한 특강을 진행했다. 11월 22일 경북 청송에서는 이홍렬 방송인을 모시고 행복한 인생을 꾸며가는 방법으로 올 한 해의 마지막 강연을 진행했다. 11월 23일 영월에서는 드라마 대장금의 주제를 부른 가수 이만 씨를 모시고 문화와 아리랑에 대한 음악과 함께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12월 6일 거제에서는 김영식 천호식품 회장을 모시고 '10미터만 더 뛰어봐'라는 주제로 올해 아카데미를 마무리했으며, 제주에서도 이영권 세계화연구소 소장을 모시고 글로벌마인드를 주제로 한 강연을 진행했다. 그리고 울산 북구청에서는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구글의 김태원 팀장을 초빙해 열정과 창의에 대한 강연을 진행하며 2012년의 마지막을 장식했다.

이로써 지난 11~12월 동안 전국 60여 개 지자체에서 110여 회에 이르는 교육이 진행되며 깊어가는 겨울과 함께 2012년도 교육을 마무리했다.

■ 평생학습조직 구축으로 조직 발전에 기여하는 기업 정기교육

고리원자력본부는 11월 13일 4/4분기 정기아카데미로 요리연구가 이혜정 교수를 모시고 '소중한 우리 만들기'를 주제로 지역 주민들과 함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번 아카데미는 원자력발전이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던 시점에서 열려 지역 주민들에게 치유의 시간을 제공했다.

YPP 전력계통전문가교육 과정에서는 11월 15일 김오곤 화성행궁명인 한의원 원장을 모시고 '뽕짝 허준의 행복한 자기 건강법'을 주제로 노래로 익히는 자기 건강법을 알아보는 유쾌한 시간을 가졌다.

리바트 임직원 100여 명을 대상으로 용인본사에서 열고 있는 리바트 아카데미는 11월 30일 서진구 희망연구소 박사를 모시고 '나는 희망의 증거가 되고 싶다'를 주제로 꿈과 희망, 그리고 도전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 들었다. 한편 12월 26일 제주 JDC지역협력사업단과 함께 한 지역 특성화 사업 주민교육에서는 송미령 농촌경제연구원 박사를 모시고 지역특성화 사업 성공 방안 및 자문회 시간을 갖고 지역특성화 사업의 활로를 모색해보았다.

■ 병영선진 아카데미 7주년, 아카데미에서 학습조직으로

군부대의 지식학습을 위한 배움의 장으로, 또한 사회적 트렌드 인식과 창조적 발상 전환을 위한 장으로 자리 잡은 병영선진 아카데미가 올해로 7주년을 맞았다. 그간 병영아카데미는 정·재계, 문화예술계 명사들이 초청되어 경영, 경제, 안보뿐 아니라 문화, 예술, 종교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분야와 형태로 변화되어 왔다. 또한 학습이라는 아카데미 본연의 역할뿐 아니라 군과 민간 간의 소통과 교류를 위한 가교 역할 역시 톡톡히 해왔다.

2012년 한 해 동안 아카데미에는 최광식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현인택 대통령실 통일정책특보, 정갑영 연세대 총장, 김진태 대전고검장, 김희상 안보문제연구소 이사장 등 약 24명의 명사들이 다녀갔다. '더 큰 대한민국 생각의 틀을 바꾸자'를 주제로 강연한 윤은기 중앙공무원교육원 원장에게는 새로운 사고와 새 시대 군의 도약을 위한 마음가짐을 배울 수 있었으며, 연세대 윤종록 교수의 '이스라엘의 창조정신과 경쟁력'이라는 주제 강연에서는 우리 못지않게 안보의 중요성을 느끼는 이스라엘군과 시민의 투철한 안보정신을 배울 수 있었다. 때로는 뜨거운 학습 열기로, 때로는 미소와 잔잔한 감동으로 2012년 병영선진 아카데미는 마무리됐다. 하지만 이제 병영선진 아카데미는 새로운 7년을 위한 도약을 준비해야 할 시기이다. 군의 지식학습과 교류의 장으로 지금까지 자리해 온 아카데미는 이제 프로그램을 넘어 학습조직으로 성장해야 한다. 또한 습득된 지식은 현장에서 실행 가능한 실용지식으로 탈바꿈될 수 있도록 변화되어야 한다. 고도의 훈련과 직업정신을 요구하며, 끊임없이 변화하는 환경에 부딪히는 군의 특성상 학습조직은 스스로 문제를 인식해 학습하고, 또 학습된 지식을 다양한 실행 가능한 형태로 변화시켜 업무에 보다 효과적,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실행 역량과 행동 역량을 키울 수 있게 만들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새로운 7년을 위한 도약이 병영선진 아카데미를 넘어 우리 군에 시작되기를 기대해 본다.



[교육컨설팅기관 소식]

■ 예천군, 사군 농정평가 '최우수상' 수상

예천군(군수 이현준)은 경북도가 주관한 사군 농정평가에서 농촌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기 위한 조기 집행 실적과 도 역점시책인 공동소득화 사업인 고품질 쌀 생산유통, 조사료 재배면적, 수출축진대책 및 추진실적, 군수의 주요 농정현장 상시 방문을 통한 기관장 관심도, 특수시책 등 모든 부분에서 높은 점수를 받아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 함안군, 'Self-Stress 관리 프로그램' 호응

함안군(군수 하성식)은 공직자들의 직무 스트레스와 심혈관질환 예방을 통한 업무 효율 향상을 위해 직장인 Self-Stress 관리 프로그램을 운영해 호응을 얻고 있다.



교육 내용으로는 스트레스란 무엇인가, 스트레스 어떻게 대응할 것인가, 호흡법, 근육 이완요법, 심상 요법, 마음 챙김 영상 등 나만의 스트레스 관리법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대응하는 방법 등을 교육하면서 스트레스를 이기는 법을 배우게 된다.

■ 서울 강서구, 마곡지구에 LG컨소시엄 유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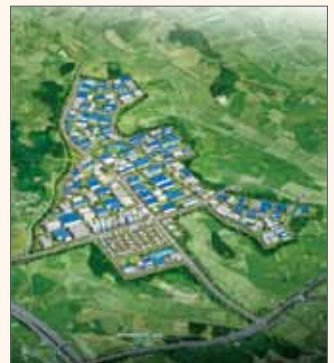
강서구(구청장 노현송)는 마곡산업단지 전체 면적 18.3%에 해당하는 부지에 LG전자, LG화학, LG이노텍, LG생명과학, LG디스플레이, LG하우시스 등 6개 계열사가 들어와



2020년까지 13만 3,591㎡의 부지에 2조 4,000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강서구는 앞으로 21세기 첨단산업과 서울의 경제발전을 이끄는 메카로써, 또 서울 서남권의 경제 중심지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 장성군, 나노산단 조성사업 가속

장성군(군수 김양수)에 들어서는 나노산업단지는 진원면과 남면 일원 90만㎡에 1,268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해 조성되며, IT, NT, BT, ET 등의 관련 업체가 들어서 나노기술의 미래형 산업단지로 육성될 전망이다. 이미 나노바이오연구센터가 입주해 있고, 300억 원이 투자되는 레이저시스템산업 지원센터도 지난 5월부터 건립공사가 진행 중이다. 특히 나노산업단지는 광주 첨단산단, 광주과학기술원 등이 인접해 있어 산업 연계 조건이 매우 우수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2012 인간개발연구원 정기교육 운영현황

인간개발연구원은 2012년 한 해 동안 100개 기관과 함께 총740여 회의 정기교육을 운영하였습니다.

교육으로 인연을 맺은 기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2013년에도 더욱 좋은 교육으로 평생학습 시대를 선도해나가겠습니다.

구분	기관명	교육명	학교 (2)	경운대학교	최고경영자 과정	경북 (17)	대구시 달서구청	달서행복아카데미	
공공 기관 (12)	국민건강보험 관리공단	부산지부 사원 교육		경북도립대학	술개돌아카데미			부부아카데미	
	국방부	수습사무관 현장견학	공군본부	하늘사랑아카데미				달서진로학습특강	
		연구모임 워크숍	공군교육사령부	하늘사랑아카데미				달성교양강좌	
		우수직원 현장견학	육군본부	신진육군아카데미				상주아카데미	
		군사전문성강화교육	육군,해군,공군본부	육해공 합동강연				물산업 특강	
			지자체(60)				예천군청	예천아카데미	
	대통령소속 사회통합위원회 (사회통합위원회 제주지역협의회) [문화예술인 총연합회 목포지회]	2012 소통아카데미 1기	서울 (4)	강서구청	강서지식비타민강좌			울산시 북구청	찾아가는 명사아카데미
		2012 소통아카데미 2기		광진구청	광나루아카데미			청소년특강	
		2012 소통아카데미 3기		송파구청	송파아카데미			울산시 중구청	중구문화대학
		2012 소통아카데미 4기		강북구청	독서동아리회원 특강			울산시 동구청	동구주민 평생교육 특강
		2012 소통아카데미 5기		가평군청	एको피아-가평 찾아가는 아카데미			CS특강	
		2012 제주소통아카데미			주민자치위원 특강			울산시청	사회복지 워크숍
2012 목포소통아카데미	경기 (6)	강화군청	강화아카데미		직원특강				
마사회		월례특강	부천시청	북사골아카데미			울진군청	울진아카데미	
제주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		지역특성화사업 주민교육	부천시 소사구청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조회			청도군청	싱그리아카데미	
[제주의 소리]		대학생글로벌아카데미	명강사초청 특별강연		청송군청		창원아카데미		
[JDC지역협력사업단]		서귀포글로벌아카데미	용인시청	월례초회 특강	경남 (9)	거제시청	거제시민자치대학		
[제주대학교]		제주글로벌아카데미	인천시 연수구청	명사초청 특별강연		부산시 서구청	서구미래아카데미		
[KCTV제주방송]		강원 (5)	강릉시청	강릉비전 금요특강	양산시청	자원봉사특강			
전국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시장,군수,구청장 연찬회		2012 동계올림픽 대비 직원 CS 특별연수	창원시 명곡동주민자치센터	주민대상 특강				
기업 (22)	농협은행	지점장 교육	충북 (2)	영월군청	영월아카데미	전북 (2)	통영시 여성단체협의회	간전한 결혼문화조성 특강	
	대웅제약	경남지역본부 특강		양양군청	밀레니엄 양양아카데미		하동군청	하동군민자치대학	
	삼성화재 대전유성연구소	삼성화재 특강	충남 (5)	원주시청	베스트 원주아카데미	전남 (10)	함안군청	함안군민대학	
	TCC동양	사원부인 교양강좌		평창군청	HAPPY700 평창아카데미		목포시청	서남권아카데미	
	리바트	전 직원 워크숍	충북 (2)	음성군청	여성농업인 특강	전남 (10)	무안군청	여성주간 기념식 특강	
		대리점주 워크숍		원주시청	시민문화센터 개강식 특강		광주시 동구청	아시아문화충성도시 동구아카데미	
	리바트아카데미	원주시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 특강	평창군청	HAPPY700 평창아카데미	광주시 동구 노인종합복지회관	노인복지회관 직원워크숍			
	서울사무소 특강	원주시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 특강	제천시청	행복중심 수요특강	목포공공도서관	직원 워크숍			
	직원특강	원주시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 특강	충남 (5)	대천시청	서림자치대학	전남 (10)	완도군청	청해진 희망강좌	
	FC GROUP 특강	원주시 어린이집 교사 및 학부모 특강		대천시청	행복 유성아카데미		장성군청	21세기 장성아카데미	
	성도이엔지	전 직원 워크숍	충남 (5)	부여군청	굿뜨래 자치대학	전남 (10)	함평군청	여성주간기념식	
	세화글로벌	명사초청 월례특강		서산시청	서산아카데미		전남이주여성연구센터	전남이주여성 특강	
	수협	리더십 특강	충남 (5)	아산시청	아산시민아카데미	전남 (10)	전남학생교육문화 회관	학교도서관 연찬회	
	실버텍스	신년 특강		거창문화원	행복거창아카데미				
	좋은문화병원	33주년 개원기념 특강	충남 (5)	경주시청	경주화백포럼				
	좋은상선병원	17주년 대시민 건강교양 공개강좌		고령군청	군민교양교실				
	기업 (22)	크루선택	월례특강	충남 (5)	구미시청	아은아카데미			
		임원아카데미	아산시청		평생학습축제 특강				
		한국전력	울산지역 정기 실무자모임	충남 (5)	군위군청	군위아카데미			
		한진해운	직원특강		김천시청	김천아카데미			
		홀름플러스그룹	자문단회의 신년특강	충남 (5)	거창문화원	행복거창아카데미			
YPP		월례특강	충남 (5)		경주시청	경주화백포럼			
		전력계통전문가교육		고령군청	군민교양교실				
YPP아카데미		YPP아카데미	충남 (5)	구미시청	아은아카데미				
남동발전 영호화력발전소		혁신아카데미		군위군청	군위아카데미				
한국수력원자력 월성원자력발전소		품질의 달 직원특강	충남 (5)	김천시청	김천아카데미				
한국수력원자력 고리원자력본부	명사초청 특강	충남 (5)		거창문화원	행복거창아카데미				
	분기별 아카데미		경주시청	경주화백포럼					
품질의 달 직원특강	품질의 달 직원특강	충남 (5)	고령군청	군민교양교실					
위스타트 운동본부	위대한토크		구미시청	아은아카데미					
CBS	크리스천리더스아카데미	충남 (5)	군위군청	군위아카데미					
			김천시청	김천아카데미					

아름다운 사람들의 아름다운 만남

인간개발연구원 멤버십은 건강한 습관, 건강한 네트워크를 만들어 갑니다.

회원자격

본 연구원의 이념과 정신에 동의하는 기업체 및 단체의 임원 또는 전문직업인, 사회적 여론 주도층(Opinion Leader) 또는 회원 1인 이상의 추천을 받은 자

회원서비스 안내

1. 온라인 서비스

- 이메일 서비스
(경영자연구회 후기, 회원칼럼, 회원소식, KHDI 웹진)
- KHDI 라이브러리(강연동영상, 녹취록 다운로드)
- 홈페이지
(회원사 수상 및 경조사, 신제품 등 회원동정 게재 및 홍보)

2. 오프라인 서비스

-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회원가 우대 및 면제, 강연CD, 녹취록 매주 우송, 경영도서 제공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회원커뮤니티 활동
-친목과 교류를 위한 이종기업 협력 동우회 (이종1그룹, 다락회, 화목회, 인목회), 골프클럽(인경회), Young Ceo Forum, 차이나클럽, 책·글쓰기를 위한 에세이클럽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 무·유료 참석
- 국·내외 시찰 Program
- 회원친선행사(찾아가는 CEO교실, 회원사방문, 송년파티 외)
- 정기 간행물 <좋은사람 좋은생각> 제공
- 기업 교육컨설팅

회원이 되시려면

회원가입신청서 제출 ▶ 심사 ▶ 연회비납부 ▶ 회원활동

서비스 구분	서비스 항목	특별 할인	법인 회원	세미나 회원	개인 회원	오디오 회원	온라인 평생회원	후원/나눔 회원
오프라인	회원혜택 적용인원수	10인	5인	1인	1인	1인	1인	후원, 강연, 재능 기부 시 정회원 예우 ※본 연구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익성기부금 대상단체입니다.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 조찬세미나 참가비 (매주 목요일 개최)	면제/2인	면제/1인	면제/1인	회원가	비회원가	비회원가	
	회원 커뮤니티 가입자격	○	○	○	○			
	회원친선행사(무료, 유료)	○	○	○	○			
	기업소식 및 동정 홍보 (매거진, 이메일, 팩스, 유인물배포)	○	○	○	○			
	CEO SUMMER FORUM 참가비 할인	○	○	○	○			
	국내외 산업시찰 참가비 할인	○	○	○	○			
	독서경영 오픈세미나(무료, 유료)	○	○	○	○			
	조찬세미나 강연 CD 매주발송 정기 간행물 및 도서제공	5개	3개	1개	1개	1개 (도서제외)	별도구매	
		등록임원에게 우송(연 2회)		도서는 세미나 참가시 제공			정기 간행물 발송	
	교육컨설팅(명사섭외, 연수프로그램기획 등)	○	○	○	○			
온라인	KHDI 라이브러리 아이디 부여(동영상, 녹취록 제공)	○	○	○	○		○	
	강연 후기 이메일 서비스	○	○	○	○	○	○	
회비	연회비 / 온라인 평생회원은 1회 납부	650만 원	390만 원	290만 원	130만 원	60만 원	100만 원	

- 입금계좌 : 하나은행 102-910003-99904 예금주 (사)한국인간개발연구원
- 문의 : 경영자교육팀 T. 02-445-1948



회사와 조직의 문제를 항상 고민하는 경영진, 여러 가지 문제점들 어떻게 해결하고 계십니까?



우리 직원들의 창의력을 어떻게 개발하지?

업무프로세스가 왜 이러지?

우리 조직은 문제가 많아 뭔가 좋은 해결책이 없을까?

시간관리가 안돼!

우리 리더는 리더십이 부족해!

올해도 예전방식대로 그냥 흘러가야 하나?

효과적인 마케팅 방안이 뭘까?

우리 조직의 문화를 활기치게 바꿀 순 없을까?

우리회사의 비전이 뭐지?

우리 조직 구성원들의 균형적인 발전과 핵심인재로의 성장!
상황과 조건에 맞는 다양한 해법으로 하나씩 묶여있는 매듭을 풀니다



인 간 개 발 연 구 원 은

플라톤은 '탁월성은 지속성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상의 탁월한 모든 것은 바로 그 지속성의 산물이고, 그 중 교육은 더욱더 그러합니다. 콩나물사루에 물을 부으면 그 물은 밑으로 빠져나가버리고 콩은 콩나물로 자라납니다. 세상을 사는 사람들의 하루하루가 비슷해 보이지만 그렇게 쉬지 않고 스스로에게 물을 부어던 사람들은 지혜의 거인이 되어 이 시대를 이끌고 있습니다.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37년간 지속적인 지혜의 물을 사회에 부어 CSV(Continue Share Value) - 지속적 가치의 공유를 실현하고 있습니다.

직급별과정	테마별과정	Core Competency	Business Skill
관리자교육과정	손자병법리더십과정	DOL(Dimension of Leadership)	Communication(소통)과정
사원교육과정	힐링 리더십과정	SHL(Self Heal Leadership)	리더의 마음을 여는 의사소통과정
매니저교육과정	오디션 리더십전략	Risk Management 과정	전략적 시간관리 과정
시니어교육과정	멘토스쿨	Performance Managing 과정	성과향상코칭 과정
신입사원교육과정	이순신에게 배우는 "불패의 리더십"	전략적 리더십 과정	기획능력 개발 과정
팀리더교육과정	"새생명(임종)" 체험과정	여성리더십과정	프리젠테이션 과정
		신뢰를 주는 스피치 과정	미팅/조회 스킬 과정
			Winner를 만드는 불패협상스킬과정

기업의 희망을 담은 판도라

People Development Reengineering
P A N D O R A

인간개발연구원은 지난 37년간 기업과 지자체에 수 많은 판도라의 상자를 열어 지혜의 나눔을 실현해오고 있습니다. 경영, 경제, 문화, 건강, 글로벌, 리더십, 의식혁신, 자기개발 등 다양한 분야의 초일류 명사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변화의 물결을 주도해왔습니다

2013 KHDI LEARNING PROGRAM
Korea Human Development Institute

문의 | 교육기획팀 070-8670-8436

그룹내 계열사 평가에서 낮은 평가를 받던 포스코 ICT, 2년 뒤 평가에서 몰입도와 행복지수 1위가 된 **기적같은 이야기**

추천 교육

조직의 문제를 치유하는
힐링 리더십 과정

과정목표

힐링이란 사전적 정의로 몸과 마음의 치유를 말한다. 힐링리더십 과정은 포괄적인 개념의 정서적 치유로서 따뜻한 리더십을 통한 치유의 리더로 조직 내 경험의 공유를 통한 감사, 나눔의 문화를 정착시키고 긍정적리더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돕는다.

기대역량

- 따뜻한 리더로서 / 감사/ 나눔 / 치유의 리더십을 발현한다.
- 상대방을 높이고 존중하여 관계에서의 단기적 승리와 리더십의 영향력을 통해 업무에서의 장기적 승리를 얻을 수 있다.
- 리더십 1단계 > 지식의 주입(해결사항)
- 리더십 2단계 > 경험을 통한 대화 (소통 공감함)
- 리더십 3단계 > 상대의 경험에 대한 치유 (힐링행)
- 감동하고 공감하며 긍정의 영향력을 행사한다.

Module	단위별 내용
Gratitude	어느 문제 많은 회사의 기적적인 변화 조직 변화의 비결 5강 2독 1선 Action plan
Shared	행복나눔 125 감사와 나눔의 달인들 조직의 운명을 바꾼 감사 나눔 효과 Action plan
Experience	Action plan 작성 실현 가능 운동 경험의 공유
Healing Leader	수평적 소통과 배려 감동하는 리더의 파급효과 긍정의 영향력

Sales & Marketing Convergence

세일즈트렌드워칭
영업관리자 역량강화
비즈니스 4단계과정
신규 고객 개척 전략
브랜딩 마스터과정
마케팅 마스터 과정

Organization Program

조직치유와 시너지를 위한 힐링캠프
Team Success School
Creativity & Innovation
비전통등
Mental Vitamin
Synergy & Change
조직 협력 "도미노"
열정과집중의 "도자기 만들기"

카드섹션

Family Training
화합의 하모니
- 조직의 활성화 "드림&난타"
- 함께하는 즐거움 "댄스Life"
- Role playing을 통한
조직문화 "연극치유"



현대카드 이야기

이지훈 저/쌤애틀커스/360쪽

〈혼창통〉 저자 이지훈이 밝히는

현대카드의 혁신 DNA!

현대카드가 한국적 상식을 깨고 어떻게 스마트하게 일하고, 새로운 조직문화를 어떻게 집요

하고도 강력하게 실행, 일관성 있게 유지해 가는지를 밝히는 책이다. 한국 기업에 〈혼창통(混創通)〉이라는 강력한 화두를 전한 바 있는 저자는 현대카드의 일하는 방식을 통해서 높은 혼을 널리 펼치고, 상식의 벽을 뛰어넘으며, 세계와 자유자재로 소통하는 길을 생생한 사례를 들어 제시한다.



2013-2014 세계경제의 미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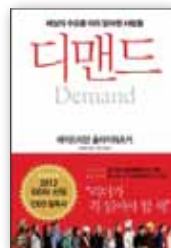
해리 덴트, 로드니존슨 공저/권성희역/

청림출판/414쪽

디플레이션 시대 모든 것이 달라진다!

저자는 2000년대 중반까지 미국 경제의 호황을 이끌었던 베이비붐 세대가 나이가 들어가며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고 있기 때문에 미국 경제가 2020년까지 하강을 계속할 수밖에 없다고 진단한다. 아울러 유례가 없는 미국 부동산 버블과 신용 버블에 따른 후유증으로 부채를 줄여나가는 과정이 계속 이어지며, 경제는 당분간 계절상 겨울과 같은 추운 조정기를 지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디맨드

에이드리언 J. 슬라이워츠키, 칼 웨버 공저/

유자익역/다산북스/560쪽

사람들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차리기 전에

그들이 좋아하는 것을 창조하라!

‘도대체 그들은 어떻게 했을까?’ 미스터리와 같

이 궁금증을 자아내는 세계 곳곳의 수많은 사례와 수요 창출의 비밀을 저자와 그의 연구팀이 직접 그 주인공들과 기업을 만나고, 수많은 사례들의 공통점을 찾아내 분석했다. 저자는 수요는 대단히 독특한 통찰력과 실행력을 지닌 어느 개인에 의해 종종 창조되며, 또한 그들이 구사한 스킬은 누구라도 충분히 학습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다고 말한다.



1일 1식(1일 1식)

나구모 요시노리 저/양영철역/

위즈덤스타일/240쪽

내 몸을 살리는 52일 공복 프로젝트

최근 고령화가 급격히 활발해지면서 ‘건강하게 장수하기’가 주목 받고 있다. 이 책은 세계 최

장수국인 일본에서 출간되자마자 많은 화제를 일으켰으며, 장수하기 위해 하루에 한 끼를 먹으라고 권고한다. 의학박사인 저자는 ‘나구모 식 건강법’을 전파하며 하루에 한 끼를 먹는 식습관의 힘을 보여준다. 우리가 미처 몰랐던 자연의 소리와 자기관리, 건강까지 되찾을 수 있게 도와주는 책이다.



초협력자

마틴 노박, 로저 하이필드 공저/허준석역/

사이언스북스/495쪽

이기적 유전자를 넘어 이타적 집단을 이끄는

협력의 다섯 가지 법칙

이기와 이타, 배신과 협력 사이의 갈등으로 가

득한 삶이라는 게임에서 이기심이라는 금과옥조를 거스르고 어떻게 경쟁 대신 서로 협력하게 만들 수 있는지를 탐구하는 책이다. 시공간을 가로질러 끈질기게 협력을 추적한 마틴 노박은 배신과 갈등을 넘어 협력을 향상시키고 유지할 수 있는 다섯 가지 법칙을 밝혀 소개하고 있다.



뇌美人

나덕렬 저/위즈덤스타일/284쪽

얼굴 관리하듯 뇌 관리하여

100살까지 아름답게 살자

이 책은 20여 년간 수많은 치매 환자를 치료하

며 연구해온 신경과 최고 명의 나덕렬 박사(삼성서울병원 신경과 과장)의 연구 결과를 집대성한 ‘치매 예방 솔루션’을 담은 책이다. 치매 예방법뿐만 아니라, 이미 치매에 걸렸더라도 덜 나빠지게 하는 방법, 그리고 중증 치매에도 불구하고 남을 배려하는 마음을 가지고 웃음을 잃지 않아 보호자를 힘들게 하지 않는 ‘예쁜 치매’가 될 수 있는 방법도 소개되어 있다.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

뮤지컬 <지킬 앤 하이드>는 로버트 스티븐슨의 동명소설을 원작으로 하는 브로드웨이 뮤지컬이다. 뮤지컬 장르에서는 보기 드문 스릴러물로 한사람 내에 존재하는 두 가지 상반된 인격을 가진 지킬/하이드란 캐릭터와 그를 사랑하는 엠마와 루시를 등장시켜 아름다운 로맨스를 그려낸다. 2004년 코엑스 오디토리움 초연 당시 전회 매진, 전회 기립 박수, 2006년 국립극장, 2008년 LG아트센터, 2010년 샤롯데씨어터 공연 시 90% 이상 객석점유를 기록하며 명실상부한 한국 최고의 뮤지컬로 평가 받고 있다.

●**일정**: 1월 8일(화) ~ 2월 9일(토)

●**장소**: 예술의전당 오페라극장(문의 : 1588-5212)



뮤지컬 **레베카**

불의의 사고로 아내를 잃고 힘든 나날을 보내고 있는 막심 드 윈터. 그는 몬테카를로 여행 중 우연히 '나'를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된다. 행복한 결혼식을 올린 두 사람은 막심의 저택인 맨덜리에서 함께 생활하게 되는데... 유준상, 오만석, 옥주현 등 파격적인 캐스팅으로 보는 이들의 눈과 귀를 더욱 즐겁게 해줄 뮤지컬이다.

●**일정**: 1월 12일(금) ~ 3월 31일(일)

●**장소**: LG아트센터(문의 : 02-6391-6333)



연극 **밀당의 탄생**

옛날 옛날 오랜 옛날! 놀거리라고는 놀음이나 연애질 밖에 없던 그 시절. 노는 걸 유난히 좋아했던 신라 최고의 시골벽적 연애스캔들의 주인공 선희공주는 얼굴값 하느라 밤마다 그 시절의 클럽을 드나들던 중 연애고수 맛동도령 서동과 연분이 난다. 밀고 당기기 비책을 주고 받다가 진짜 사랑에 빠진 선희공주와 서동의 아찔한 연애 공방이 펼쳐진다.

●**일정**: 11월 10일(토) ~ 2월 11일(화)

●**장소**: PMC대학교자유극장(문의 : 02-739-8288)



연극 **나에게 불의 전차를**

1924년 조선. 한 도시 성문의 저편에서 들려오는 사물놀이의 신명 나는 장단이 울려 퍼지고, 우두머리 고대석(김응수), 이순우(차승원) 등 남사당패가 모여든다. 마침 그곳에 훔친 보자기를 꺼내고 도망가는 남자와 그를 쫓아 달려오는 야나기하라 나오키(쿠사나기 츠요시). 순식간에 순우가 그 남자를 잡지만 도자기를 떨어뜨려 깨지게 된다. 나오키는 범인을 잡은 승우에게 고마움보다 깨진 백자를 보며 나무란다. 승우는 화를 내기는 커녕 그런 나오키에게 흥미를 가지는데...

●**일정**: 1월 30일(수) ~ 2월 3일(일)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문의 : 02-2280-4114)



뮤지컬 **캐치미이프유캔**

부모의 이혼으로 무작정 가출한 프랭크는 본격적으로 남을 속이는 천재적 재능을 발휘하기 시작한다. 기자를 사칭해 항공사의 허점을 알아낸 프랭크는 조종사로 위장, 모든 항공 노선에 무임승차는 물론 회사 수표를 위조해 전국 은행에서 140만 달러를 가로챈다. 하지만 꼬리가 길면 밟히는 법. 21년 경력의 FBI 최고의 요원 칼 해너티가 프랭크의 뒤를 쫓으며 극은 흥미를 더해간다.

●**일정**: 12월 14일(금) ~ 2월 9일(토)

●**장소**: 국립극장 해오름극장(문의 : 02-764-7858)



발레극 **백조의 호수**

테디베어씨어터 <백조의 호수>는 전문 발레 무용수들이 공연형 테디베어를 비롯해 친근한 동물 탈인형을 쓰고 선보이는 국내 최초의 인형 발레극이다. 차이코프스키의 아름다운 선율과 함께 전문 발레 무용수들의 수준 높은 발레로 지금까지 볼 수 없었던 색다른 경험과 즐거움을 선사한다.

●**일정**: 1월 5일(토) ~ 2월 3일(일)

●**장소**: 세종문화회관 세종M씨어터(문의 : 02-3444-0677)

국장님의 서랍_즐겁게 일하고 인정받는 비법

제781회 전남 장성군 '21세기 장성아카데미' 12월 20일(목)

본원은 1995년부터 전국의 자치단체 및 기업,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정기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실시하여 공직자를 비롯한 지역 주민, 조직 구성원들에 대한 교육의 중요성을 일깨우며 우리 사회 평생학습체제 구축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중 첫 번째 아카데미 프로그램인 전남 장성군(군수 김양수)의 '21세기 장성아카데미'는 사회교육의 대표 브랜드로서 전국의 자치단체에 새로운 아카데미가 개강하는데 산파 역할을 하는 등 '세상을 바꾸는 것은 사람이지만 사람을 바꾸는 것은 교육'이라는 신념이 일구어낸 값진 성과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본원과 장성군은 장성아카데미의 전통을 이어갈 혁신적인 프로그램을 준비하는데 더욱 노력해 나갈 것입니다. 이번 명사초청특강에서는 '국장님의 서랍'을 주제로 강연해주신 정종제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국장)의 강연을 소개하는 지면을 마련하였습니다.



논어의 용어면에는 '머리 좋은 자는 열심히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고, 열심히 하는 자는 즐겁게 하는 사람을 당할 수 없다'는 공자의 말씀이 있다. 이 말을 접한 사람들은 '야! 대단한 말씀이다. 그래 일은 즐겁게 하는 거다'라는 깨달음을 얻는다. 그리고 '나도 한번 해보자'라고 시도하게 된다. 하지만 '어떻게 해야 즐겁게 할 수 있지'라는 회의와 함께 좌절을 맛보게 된다. 왜냐하면 공자의 그 말씀에는 방법론이 없기 때문이다.

오늘은 내가 그동안 광주광역시 기획계장, 교통기획과장, 문화관광국장, 행정자치부 지역경제 팀장, 자치행정팀장, 총리실 국장, 주 OECD 대표부 주재관 겸 공보관, 그리고 현재의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에 이르기까지 17개의 보직을 수행했던 경험을 토대로 '어떻게 하면 즐겁게 일할 수 있는가'에 대한 방법론을 일곱 개의 서랍을 하나씩 열어봄으로써 알아보고자 한다.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하라

첫 번째 서랍은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한다'이다. 직원들은 물론 과장급 이상의 업무 범위는 비교적 넓은 편이기 때문에 더욱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과원이 10명이라면 과원 한 명이 두 건씩의 보고서를 올리면 과장은 20건을 검토해야 한다. 만약 과장이 모든 일을 같은 비중으로 처리할 경우, 업무처리가 지연되거나 상사로부터 업무처리를 독촉받을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업무처리의 요령이 필요하다.

우선 경중완급(輕重緩急)으로 매트릭스를 형성한다. 즉, 중요하고 급한 일,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 가볍지만 급한 일, 가볍고 급하지 않은 일로 분류하는 것이다. 그리고 네 가지 유형에 따라 처리하는 방식을 달리한다.

중요하고 급한 일은 최우선적으로 처리하되, 판단이 서지 않을 경우에는 직원회의를 소집하여 토론하고 아이디어를 얻을 필요가 있다. 중요하지만 급하지 않은 일은 담당자를 중심으로 관련 직원, 필요시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연구하도록 해서 완성을 높인 후 처리하면 큰 도움이 된다. 이때 업무처리 시한을 충분히 부여할 필요가 있다. 현안 처리에 지장을

주지 않으면서도 방치될 사안을 보너스로 수행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가볍지만 급한 일은 챙겨서 보고를 받고 가급적 즉시 처리하고, 가볍고 급하지 않은 일은 실무자에게 일임하는 것도 무방하다. 나는 행자부 자치행정팀장 시절에 이러한 일 처리 방식을 직원들과 공유하고 적용한 결과, 종전보다 더 많은 일을 처리하면서도 야근이나 휴일 근무를 대폭 줄일 수 있었다. 한편, 문제가 발생된 사안에 대해서는 임시방편으로 대충 처리하지 말고 '왜? 왜? 왜 그럴까?'하고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을 찾아야 한다.

상사의 기대에 부응하라

두 번째 서랍은 '상사의 기대에 부응한다'이다. 흔히 우리는 '개구리 울창이 시절 모른다'라고 말한다. 하지만 '울창이는 개구리 시절이 없다'라는 말은 오늘 처음 들었을 것이다. 내가 만든 말이다. 왜 이런 말을 만들었을까?

무리한 비유일 수 있지만 직원이 울창이라면 과장 또는 국장은 개구리에 해당할 것이다. 과장·국장은 대부분 직원 시절을 경험했기 때문에 그 시절에 대해 회상하고 감정이입하면 어느 정도 그들의 입장을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직원은 과장이나 국장 직위를 직접 수행한 적이 없기 때문에 아무리 그의 입장을 생각해 본들 한계가 있다. 그래서 개구리 시절이 없는 울창이의 처지와 같다고 비유한 것이다.

따라서 직원들은 능동적이고 적극적으로 자신의 업무를 수행하고 상사에게 보고를 해줘야 한다. 관장해야 할 직원도, 챙겨야 할 일도 많고, 간부회의 참석, 대외행사 등으로 바쁜 과장·국장의 경우 일일이 직원 한 명 한 명의 업무를 챙기기 쉽지 않다. 결국 알아서 잘 챙겨 일하는 직원, 중간보고를 잘 해주는 직원이 믿음직스러워지는 것이다.

사마천의 사기에 따르면 '인간은 자기보다 10배 정도 더 가진 자는 흔들려 보려 하고, 100배 정도 가진 자는 두려워하고, 1,000배 이상 가진 자에 대해서는 앞을 다투어 그의 일을 도모하려 한다'고 한다. 인간의 본성에 대한 깊은 통찰이 아닐 수 없다.

예를 들어 7급 주무관의 경우 계장은 열 배 정도 더 가진 자로서 주무관끼리 술 한 잔 할 때 흥을 보기도 하고 업무지시에 대해서 가끔 몽개기도 할 것이다. 하지만 100배 정도 더 가진 과장에 대해서는 흥을 보기가 쉽지 않다. 왜냐하면 근무성적 평정권이 있으며, 정책 결정권을 어느 정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심지어 동료들과 함께 흥을 봤는데, 그 내용이 어느새 과장의 귀에 전달되기도 한다. 인사를 앞두면 더욱 그렇다.

한편, 국장이나 군수에 대해서는 자신도 모르게 밖에 나가서 홍보맨을 자처하게 되는 경우가 있다. 바로 앞을 다투어 그의 일을 도모하게 되는 것이다. 이러한 인간의 본성에 대해 비판할 생각은 없다. 다만, 조직생활을 하면서 경계해야 할 사항인 것은 분명하다. 상사의 지시사항에 대해서도 흔히 자신이 계획한 사항은 마음 편하게 진행시키는데, 상사의 지시사항에는 심리적 저항의식을 가질 수가 있다. 업무에 대한 통제권을 자신이 가지지 못한 데에서 오는 저항의식이다. 지시사항을 수행하려면 자료를 챙겨야 하고, 보고서를 작성해야 하고, 때로는 모호한 지시사항에 방향 잡기가 곤란해서 그렇다.



하지만 상사의 '지시사항은 채택 가능성이 높은 아이디어'라는 긍정적 프레임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상사의 지시 내용을 어느 정도 충실히 담아가면 결재를 받아 시행하기 쉽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사의 '지적사항은 나에 대한 무료 컨설팅'이라고 생각하면 또 다른 발전이 있을 것이다. 삼성, LG 등 굴지의 대기업이 맥킨지 등 해외 컨설팅 회사에 고객의 비용을 지불하고 진단을 받는 것은 장점을 홍보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회사의 단점을 지적받아 개선하기 위함이다. 마찬가지로 자신의 업무추진 스타일과 인간관계상 부족한 부분을 지적해 주는 상사는 무료 컨설팅을 해주는 것과 같다.

부하를 배려하는 상사가 돼라

세 번째 서랍은 '부하를 배려하는 상사로 거듭난다'이다. 먼저 상하 간에는 진실과 소통으로 신뢰가 형성되어야 한다. 특히 상사가 부하 직원에게 부탁할 사안이 생길 경우 솔직하게 털어놓고 상의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대부분의 상사는 부하에게 부탁보다는 다소 무리가 따르더라도 논리적으로 굴복시키려는 경향이 있다. 그렇게 되면 상하 간에 서로 방어적인 마음과 태도가 형성될 우려가 있다. 따라서 진실을 바탕으로 서로 소통해야만 서로의 지혜를 모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아이디어를 내는 일은 그리 쉽지 않다. 과거 행정의 수준이 낮았을 때는 행정 개선을 위한 사항이 지천으로 널려 있었기에 조금만 관심을 가지면 쉽게 아이디어를 제시할 수 있었다. 하지만 현재의 행정 수준은 매우 높아졌다. 그 결과 행정 수준 향상을 위한 참신한 아이디어를 내기가 어렵다. 따라서 부하 직원에게 아이디어 제시를 강요하기보다는 자연스럽게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는 것이 필요하다. 먼저 업무와 관련해 의견을 내는 과정에서 편하게 대할 수 있도록 부드러운 리더십을 구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울러 아이디어를 낼 수 있는 토론의 장을 만들어 주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맥락에서 브레인스토밍은 좋은 방안이 될 수 있다. 다만 브레인스토밍 시 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몇 가지 원칙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첫째, 편안한 분위기를 조성한다. 둘째, 하찮은 의견에도 비판하지 않는다. 셋

때, 백발백중을 노리지 말고 백발일중이라도 좋다. 많은 의견을 제시한다 할지라도 회의비용 이외에 별다른 비용이 들지 않기 때문이다. 넷째, 타인이 제시한 의견에 편승하여 더 발전된 아이디어를 낸다 등이다. 실제 알래스카 주정부에서 전신주 위에 눈이 많이 쌓여 발생한 정전사태에 대한 해결책을 구하는 브레인스토밍이 있었다. '전선을 지중화한다', '경비행기로 열화칼슘을 뿌린다', '긴 막대에 빗자루를 달고서 눈을 치운다' 등 다양한 아이디어가 제시되었는데, 결론은 비행기와 빗자루가 결합된 아이디어인 헬리콥터의 프로펠러에서 나오는 강한 바람을 활용해 전신주와 전선 위에 쌓인 눈을 날려 보내는 방안이 채택되었다.

네 번째 사람은 '예측 가능한 상사가 된다'이다. 권한이 집중된 상사의 일거수 일투족이 부하직원의 관심 대상이므로 상사는 출퇴근, 신상필벌 등에서 급급적 일관성을 유지해 부하직원들이 예측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유연성을 갖춰라

다섯 번째 사람은 '유연성을 갖춘다'이다. 직장생활을 하다 보면 자신도 모르게 경직되어 있을 수 있다. 지나치게 경직되는 것은 결코 좋은 현상이 아니다. 이를 경계하는 사례 하나를 보자. 바로 '고지식이 지나치면 죽음에 이를 수 있다'이다. 옛날에 두 친구가 모일 모시에 특정한 다리 밑에서 만나는 약속을 했다. 한 친구가 먼저 도착해 다리 밑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다른 친구가 예정 시간보다 늦어지고 있는 사이 강 상류에서 홍수가 나서 점점 물이 불어났다. 그런데 다른 친구가 도착했을 때에는 먼저 도착한 친구가 다리 밑 교각을 부둥켜안고서 익사한 채 발견되었다. 다리 밑에서 만나자는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였다. 같은 맥락에서 소신과 동배짱에 대해 생각해 보자. 소신은 어떤 사안과 관련해 경험과 충분한 자료 검토에 바탕을 둔 확신인 경우이다. 반면 동배짱은 객관적 확신이 없는 상태, 즉 막연히 그럴 것이라는 직관에 의존해 허투루 부리는 배짱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직장인들은 자신이 보고한 사안에 대한 상사의 타당한 지적사항을 수용하기보다는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는 경향이 있다. 이 경우 자신의 주장이 소신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동배짱으로 하는 것인지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 비록 소신에 따라 옳다고 판단되는 사안일지라도 상사가 추진시기 또는 정무적 판단 등에 따라 유보하자고 강력히 제지하면 수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그러면 상사와의 원만한 관계 유지와 나중에 활용할 아이디어의 축적이라는 두 마리의 토끼를 잡을 수 있기 때문이다. 과장이 반대하면 나중에 자신이 과장으로 승진하여 재추진할 수 있는 아이디어를 축적하는 셈이다.

대외관계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하라

여섯 번째 사람은 '대외관계의 중요성을 깊이 새긴다'이다. 조직 안에서 아무리 좋은 정책을 만들고 추진하려고 해도 대외관계가 원만하지 못하면 제대로 평가받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고객 관점, 언론관계 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그 중에서 '고객의 관점을 잃지 않는다'를 보자. 민간에서는 그 중요성에 대

해 오래전부터 강조해왔으며 이미 정착단계에 접어들었다. 정부에서도 행안부를 비롯해 몇몇 부처가 고객관리 전담부서까지 설치하고 운영하는 등 그 중요성을 받아들이고 있다.

이와 관련해 어떻게 하면 고객의 입장을 헤아릴 수 있을지에 대한 사례를 보자. 어촌에 살고 있는 사돈이 산촌의 사돈댁을 방문했다. 산촌의 사돈은 가장 귀한 음식을 대접한다고 마른 갈치 조각 등 해산물을 어렵사리 구해서 대접했다. 이번에는 산촌의 사돈이 어촌으로 답방을 했는데, 건조 상태가 불량해 곰팡이가 서려 있는 마른 산나물을 대접받았다.

이것이야말로 공급자 위주의 생각이다. 공급자는 그 지역에서 귀한 음식을 대접했으나 대접 받은 입장에서는 자기 지역에서는 너무 흔해서 잘 먹지도 않는 음식을 제공받은 꼴이다. 자신도 모르게 공급자 위주의 판단을 할 수 있다는 점을 경계하게 하는 사례이다.

일곱 번째 사람은 '하는 일에 의미를 부여한다'이다. 공직자를 포함해 직장인들은 자신이 하는 일이 단순히 월급을 받기 위해서라기보다는 사회적으로 가치 있는 것이라는 측면에서 의미를 부여하면 일에 대한 자긍심을 가질 수 있다. 공직자인 내 경우도 어린 시절 동네 할머니들이 내게 '전(前) 면장 아들'이라는 비교적 존중하는 칭호를 사용했다. 어머니께서는 아버지가 전에 면장을 하셨는데, 당시 '나랏일'을 하던 사람들은 퇴직 후에도 그 직함으로 불린다며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고 하셨다. 그렇게 어린 시절 내 머리와 가슴속에 '나랏일'과 '직함', 그리고 '자랑스럽게'라는 단어가 자리 잡게 되었으며, 내가 공무원이 된 중요한 이유가 되기도 했다.

아울러 언론이 공직자를 인터뷰하는 이유도 공직자들이 하는 일들이 국민 생활에 미치는 영향이 크기 때문일 것이다. 그만큼 우리는 중요한 일을 하므로 신중하고 능동적으로, 그리고 열정적으로 업무에 임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리하자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일을 하면 여유가 생기고, 그러면 상사의 지시는 물론 동료와 부하 직원의 부탁에도 미소를 띤 얼굴로 흔쾌히 도와줄 수 있다. 그 결과 직장 안에서의 인간관계도 좋아질 것이다. 그러면 월요일 아침이 두렵지 않은 직장인이 될 수 있다. 오히려 설렘을 가지고 출근해 재미있게 일하고 인정도 받고 보람을 느낄 수 있게 될 것이다. **김재**

● 정중제 국장



1963년생으로 서울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동대학 행정대학원과 미국 오리건주립대에서 행정학과 정책학을 전공했다. 1988년 행정고시로 공직에 입문해 지방, 중앙, 해외 등 다양한 공직경험을 쌓고 있다. 광주광역시에서 자치행정과장, 문화관광국장 등을 역임했고, 행정자치부에서는 지역경제팀장, 장관비서관 등을 역임했다. 국무총리실에서는 제주지원위사무처 분권재정관을, 주OECD 대표부에서는 공공행정위원회 담당 겸 공보관으로 일했다. 현재 행안부 행정선진화기획관으로 일하며, 행안부 소속 공무원의 역량 강화, 일하는 방식 개선, 성과평가, 그리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발굴해 정책에 도입하는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TPT멘토대학과 우리의 비전

2013 계사년은 뜻깊은 해이다. 2012년은 12월 21일이 인류의 마지막 날이라는 대재앙의 예언은 빚나갔지만 지각변동이 일어날 만큼 대 사건들이 이어져 온 한 해였다. 미국, 중국, 일본, 러시아 등 세계 4강의 국가 지도자들이 바뀌었고, 우리 한국도 12월 19일 국민들의 선택으로 최초의 여성대통령을 맞이하게 되었다.

또한 2013년은 우리 인간개발연구원이 창립38주년을 맞는 해로써 2월 7일, 그동안 연구원을 아끼고 참여해준 기업가, CEO, 그리고 한국을 빛내는 각계의 지도자들과 함께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자축하는 자리를 가질 계획이다.

특히 지난 38년간 축적된 최고의 인적자원과 40년 가까이 탐구해온 세계의 평화, 국가의 번영, 인간의 행복이라는 꿈과 비전을 바탕으로 'TPT멘토대학'이라는 공익사업 브랜드를 출범시키고자 한다. TPT(Total People Technology) 철학을 바탕으로 새롭게 펼쳐질 인간개발 캠페인은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의 시대정신인 서번트리더십과 함께 나누는 문화운동으로 전개될 것이다.

우리 인류는 물량적 생산성 향상과 소유와 지배제도의 한계를 넘어서서 인간의 마음과 영혼을 일깨워 새로운 행복의 세계를 향해 나아가고자 하는 인간개발의 학문적 시도를 하고 있다. 이것을 TPT 즉, '참 인간의 삶을 살아온 지혜의 인간학'으로 정리하고, TPT 철학을 바탕으로 한 멘토대학 프로젝트로 연결하고자 하는 것이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의 속담이 자본주의의 4.0시대, 따뜻한 자본주의를 맞이하려는 우리 한국 사회의 화두가 되고 있다. 세계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세계 10위권의 경제대국으로 급성장한 가운데, 우리가 지불하지 않으면 안 되는 대가들이 바로 CSR(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현상으로 나타난 것이다. 국가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해온 기업들이 경제가 성장하면서 발생시킨 온갖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일에 앞장서야 하는 것이 바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에 1975년 2월 5일 이래 지난 38년간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지속해온 우리 인간개발연구원이 새로운 시대적 과제의 하나로 TPT멘토대학 프로그램을 시도하는 의도가 있다. 한국 사회는 지금 내·외적으로 겹겹이 쌓인 위기 속에 빠져 있다. 이러한 위기는 부정적으로 보면 재앙이 되겠지만 긍정적으로 보고 오히려 새로운 기회로 전환시켜 가는 지혜를 발휘해 나가야 할 것이다.

"인류의 미래는 인간에게 달려있고, 인간의 미래는 바로 인간교육에 달려있다"는 깨달음으로 '좋은 사람 좋은 세계(Better People Better World)'와 TPT멘토대학 프로그램을 창안해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모든 영역에서 올바르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멘토링 사업 전개가 절실히 요청되고 있는 현실이다.

지난 38년간 기업가와 CEO들이 중심이 돼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과학기술 등 제 분야의 지도자들이 인간개발연구원의 인간개발경영자연구회를 비롯한 다양한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지원해왔던 정신을 살려 그동안 축적해온 인간개발에 관한 노하우를 바탕으로 TPT멘토대학 프로그램을 기획해 우리 사회의 쌓이고 쌓인 인간문제를 창조적으로 풀어나가고자 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 그리고 청소년들이 겪고 있는 시대적 문제들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을 먼저 펼쳐나갈 계획이다.

지금까지 인간개발연구원이 주로 기업 사회, 공직 사회, 대학 사회, 그리고 군대 사회에 인간개발 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발전시켜왔음에 근거하여 대학생들의 초·중·고생들을 위한 멘토링 프로그램과 60만을 헤아리는 병영 사회를 대상으로 한 기업계, 학계, 군사계 등 각 분야 지성인들을 통한 멘토링 프로그램으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한다.

특히 젊은 세대들이 겪게 되는 실업의 두려움과 고통을 해결하고 새로운 희망의 세대를 이끌어 가기 위해 새 세대들에게 자기 인생의 목적의식을 분명하게 갖게 하고, 지혜의 혁명시대를 살아가기 위한 지혜를 전수하고, 새 시대를 살아가는 데 있어 각자에게 도움이 되는 멘토를 소개하고, 새 세대들에게 기업가정신을 복돋아 주고자 한다.

기업가정신의 배양이란 다음과 같은 7가지 마음가짐이나 성향을 복돋아 주는 것이다. 첫째, 생생한 목표정신과 그 성취를 위한 현실적 계획 수립 능력이다. 둘째, 낙천적이고 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정신이다. 셋째, 장애물이나 어려움에 직면했을 때 도전정신과 꾸준함이다. 넷째, 위험에 대한 내성, 더 나아가 감내하고자 하는 의욕과 열정이다. 다섯째, 실패를 맞았을 때 회복력(오독이 정신)이다. 여섯째, 주목할 만한 결과를 성취하고자 하는 결단이다. 일곱째, 어떤 결과를 성취하기 위한 방법을 개발함에 있어서 지혜와 창의성이다.

탈무드에는 시련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시련을 극복하는 자에게 영광이 있으리라. 신은 모든 사람을 시험하고 있다. 어떤 사람은 부에 의하여 시험을 당하며, 어떤 사람은 가난에 의하여 시험을 당한다. 부자에게는 그를 필요로 하는 궁핍한 사람에게 인색하지 않는가를 시험하며, 가난한 사람에게는 그가 불평 없이 자기의 고통을 간직하고 있는가를 시험한다."

2013년 계사년은 희망과 행복과 번영의 해, 그리고 지혜의 해가 되기를 기원한다. **장만기**

신문 기사의 세 가지 오류

신문에 난 기사에 오자나 오보는 몰라도 오류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러나 학술용어, 특히 해외의 전문 용어를 우리말로 옮기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한 기사가 눈에 띈다. 대표적인 사례로는 유비쿼터스 컴퓨팅, 집단지능, 컨실리언스를 들 수 있다.

유비쿼터스 컴퓨팅(ubiquitous computing)의 경우, 주요 일간지의 기사는 1988년 이 용어를 창안한 미국 컴퓨터 과학자 마크 와이저(1952~1999)의 개념과 전혀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2000년 동아일보에 연재하던 칼럼 '이인식의 과학생각'(4월 6일자)에서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에는 실로 천을 찢듯 컴퓨터가 의식주의 모든 수단에 스며들기 때문에 컴퓨터가 도처에 존재하면서 동시에 보이지 않게 된다. 유비쿼터스 컴퓨팅은 한마디로 컴퓨터를 우리 눈앞에서 사라지게 하는 기술이다"고 소개한 적이 있다.

마크 와이저는 메인프레임, 퍼스널 컴퓨터에 이은 제3의 물결을 유비쿼터스 컴퓨팅이라고 명명했다. 컴퓨터가 신발·안경·손목시계·옷감 등 필수품을 비롯해서 부엌이나 벽 속은 물론 심지어 냉장고 속의 돼지고기 조각에까지 장착될 정도로 어디에나 퍼져 있다는 뜻에서 '유비쿼터스'라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다. 이를테면 물건에 다는 태그(꼬리표)처럼 생긴 컴퓨터가 출현할 때 비로소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가 실현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신문 기사는 퍼스널 컴퓨터가 여기저기 대량으로 보급된 현상을 '유비쿼터스'라는 용어로 표현함으로써 2025년경 이른바 '만물의 인터넷(Internet of Things)'이 구축되면서 개막될 유비쿼터스 컴퓨팅 시대가 이미 실현된 것처럼 호들갑을 떨고 있는 것 같아 민망할 따름이다.

집단지능(collective intelligence)은 집단을 하나의 개체로 볼 때 그 집단이 갖고 있는 지적 능력을 의미한다. 집단은 사람, 동물, 컴퓨터 네트워크 등 종류가 다양하다. 집단에 대해서는 긍정적 시각과 부정적 시각이 공존한다. 프랑스 사회심리학자인 구스타프 르봉(1841~1931)은 "집단 내에 쌓여가는 것은 재치가 아니라 어리석음이다. 집단은 소수 엘리트보다 언제나 지적으로 열등하다"고 말했다. 한편 미국 경영 칼럼니스트인 제임스 서로위키는 2004년 펴낸 <대중의 지혜>에서 군중의 어리석음을 경멸하는 견해를 반박했다.

우리나라의 많은 지식인들은 집단지능(CI)을 집단 '지성'이라고 번역하여 사용한다. 동물 집단에 '지능'은 몰라도 '지성'까지 있다고 할 수야 없지 않은가.

모든 집단이 반드시 '지성적' 행동을 하는 건 아니지 않은가.

컨실리언스(consilience)는 '추론 결과 등의 부합, 일치'를 뜻하는 보통명사이다. 그런데 1998년 미국 사회생물학자인 에드워드 윌슨이 펴낸 <컨실리언스>에서 생물학 중심으로 모든 학문을 통합하자는 주장을 펼침에 따라 컨실리언스는 윌슨 식의 지식 통합을 의미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 2005년 번역된 이 책의 제목은 <통섭>이다. 번역자가 '통섭'에는 원호스님의 사상이 담겨 있다고 해서 한때 주목을 받았으나 번역자의 이런 건강부회를 질타하는 지식인이 적지 않았다.

특히 김지하 시인은 '통섭'의 오류를 날카롭게 지적했다. 2008년 10월 프레스안의 고정칼럼에서 "통섭. 이 단어는 앞으로 틀림없이 '저주받은 말'로 전락할 것"이라고 운을 뚫 뒤 번역자에게 "동양학 공부를 열심히 하라"고 당부했다. 이 칼럼은 2009년 4월 출간된 <촛불, 햇불, 숯불>에도 그대로 수록되었다. 이러한 몇몇 학자들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일부 지식인과 언론에서는 윌슨 식의 지식 통합을 뜻하는 고유명사인 통섭(컨실리언스)을 생동맞게 인문학과 과학기술의 융합을 의미하는 보통명사로 둔갑시켜 제멋대로 사용하고 있으니 답답하다 못해 한심하기 짝이 없다는 느낌을 떨쳐버릴 수 없다. **이인식**

● 이인식 소장



1945년생으로 서울대 전자공학과를 졸업했다. 현재 지식융합연구소 소장이며, 과학문화연구소장,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위원, KAIST 겸직교수를 역임했다. 대한민국 과학 칼럼니스트 1호로 조선일보, 중앙일보, 동아일보, 한겨레 등에 470편 이상의 고정 칼럼을, 월간조선, 과학동아, 한겨레21 등에 160편 이상의 기명 칼럼을 연재했으며, 2011년 일본 산업기술종합연구소의 월간지에 칼럼을 연재하기도 했다. 제1회 한국공학한림원 해동상, 제47회 한국출판문화상, 2008년 서울대 자랑스런 전자동문상을 수상했으며, <지식의 대융합>, <자연은 위대한 스승이다>, <이인식의 멋진 과학> 등 40여 종의 저서가 있다.



자랑스런 한국인대상 수상
(사)한국언론인협회 선정_인재육성부문



가족친화 우수기업 인증
여성가족부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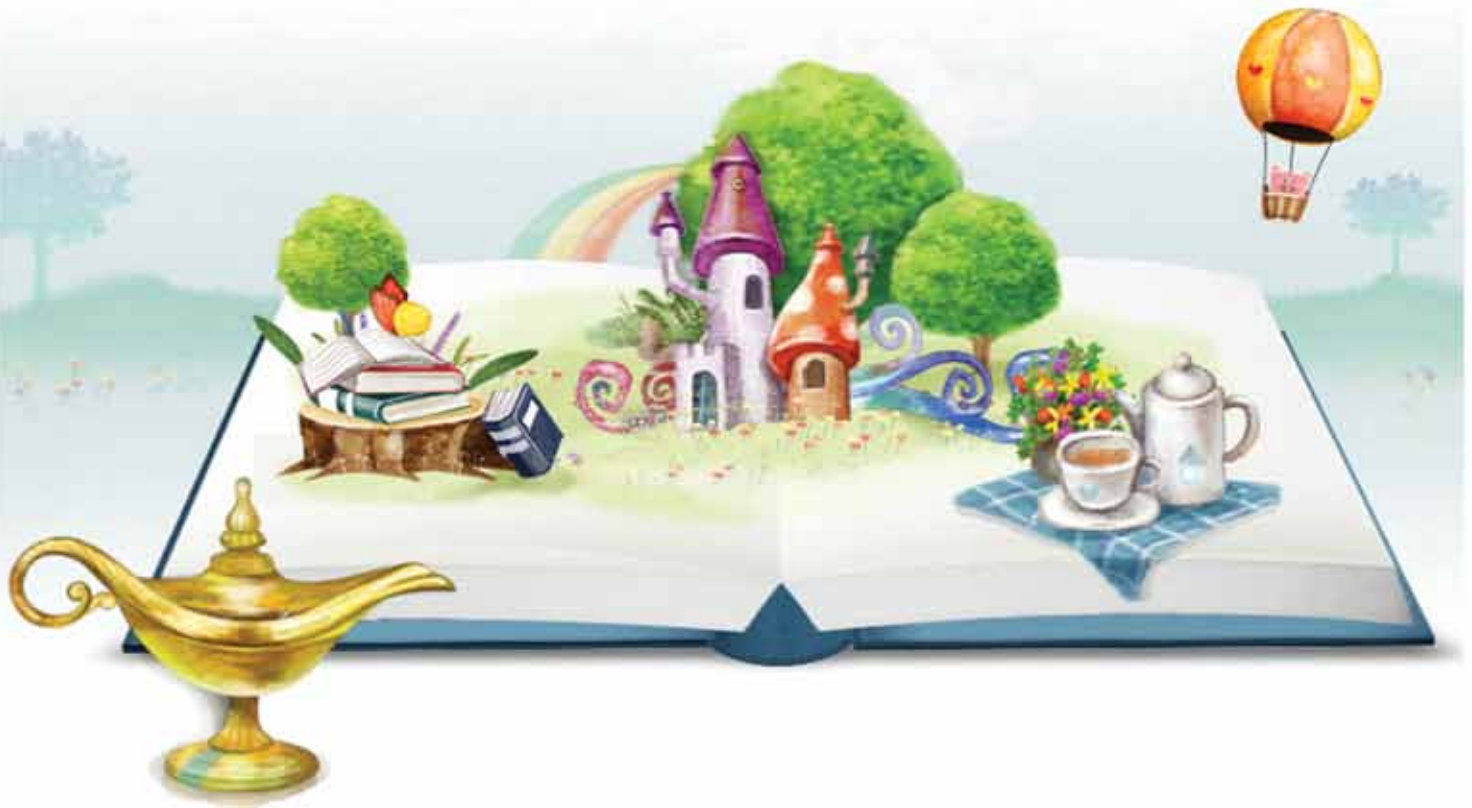


인적자원개발 우수기관인증
고용노동부, 교육과학기술부, 지식경제부, 중소기업청

동화 속 행복한 세상을 만들어가는 따뜻한 사람들

큰 회사보다 남 다른 회사 이야기입니다
동화같은 기업 이야기로 시작합니다
낮은데서 출발했습니다
지금은 더 큰 미래의 꿈을 실현합니다.
남하고 비교하고 경쟁하지 않았습니다.
어제의 우리 모습하고 경쟁했습니다.
힘을 모으는 지혜가 있었습니다.
열심히 학습하고 도전했습니다.
어제보다 나은 오늘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만의 색깔을 가졌습니다.
과정은 남다르지만 우리 현재의 모습은
동화세상입니다

educor **동화세상 에듀코**
www.educor.co.kr



교육전문기업에서 그룹화 비전을 실현합니다.

코칭 홀스쿨 코칭 사이버스쿨 에듀코 연수원 E&F 영어전문학원 코칭 학습지

에듀코 파워잉글리쉬 · USA · CHINA · 기업교육사업 · (주)고려진생 · 무역사업

educor **동화세상 에듀코**
www.educor.co.kr



단국대학교 치과대학병원

DANKOOK UNIVERSITY DENTAL HOSPITAL

진료안내

치과보존과 | 구강악안면외과 | 치과보철과 | 치주과 | 치과교정과 | 소아치과
구강내과 | 구강악안면방사선과 | 예방치과 | 마취과 | 구강병리과 | 통합진료과
임플란트센터 | 충남장애인구강진료센터

진료시간

- 평 일 : am09:00 - pm05:30 ※ 초진환자의 경우 진료시간 1시간 전까지 내원
- 토요일 : am09:00 - pm01:00
- 일요일/공휴일 : 휴 무

단대치대병원 이전안내

- 이전예정일자 : 2013년 1월 28일
- 장 소 : 안서호 북쪽 단대병원 옆

대표전화

- **이전후 번호**(2013년 1월 28일부터 사용)
T 041-5500-114
- **기존번호**(2013년 1월 23일까지 사용)
T 041-550-1929

오시는 길



단국대학교치과대학병원
DANKOOK UNIVERSITY DENTAL HOSPITAL

330-716 충남 천안시 동남구 단대로 119 | T 041-550-1929

